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성격 연구

A Study on Characters of Goddess in the
Korean Shaman Myths

울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아용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성격 연구

지도교수 박경신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아용

정아용의 문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10년 12월

<국문 초록>

무속신화에서 여성에 대한 연구는 개별 서사무가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들은 여성무속신화가 영웅서사문학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그것이 기존 문학사 속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밝히는 데에 주력하였다. 현재는 여성무속신화를 여성적 시각으로 보는 여성 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적 현실과 여성성, 여성적 담론에 대한 규명을 목적으로 하면서 여성의 원형과 여신원형, 여신의 지위변화, 여성의식에 대한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여성무속신화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본풀이의 대상신을 비롯하여 대상신이 아닐지라도 주요한 기능을 하는 여신들까지 연구하였다. 총 12개의 무속신화에 나타난 20명의 여신들을 성장하는 딸신, 성숙한 어머니신, 젊은 할머니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의 신들이 인간의 삶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생의 단계에 따라 구분했으며, 그 각각의 속성을 ‘성장’과 ‘성숙’, ‘젊음’이라고 보았다.

성장하는 딸신에는 가문장아기, 자청비, 당금애기, 심청, 바리데기가 속한다. 성숙한 어머니신에는 길대부인, 당금애기의 어머니, 저승할망의 어머니, 심청이의 어머니, 원강아미, 여산부인, 노일제대귀일의 딸, 과양생이 각시, 명월각시, 황우양씨 부인, 강림이 큰부인, 짐치원님 부인이 속한다. 젊은 할머니신에는 이승할망과 저승할망, 선문대할망이 속한다.

이러한 여신들은 길쌈과 옷, 불과 술, 물과 꽃, 대식과 배설, 우주목과 텃줄이라는 문화사적 상징을 통해서 여성성을 드러낸다. 한국 여신들은 보편적으로 죽음과 재생을 통해 모성성을, 탐색과 획득을 통해 신성성을, 탄생을 통해 주어진 전능성을 발현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은 여신들이 가진 모성성이며, 이는 여신승배나 모계사회의 사유에서 이어지는 여신들의 모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여성성 외에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여성성을 가지기도 한다. 딸신의 성장은 ‘반항’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표출되며, 이것은 여신들이 자립하여 성숙함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어머니신의 성숙함은 ‘선함’과 ‘악함’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표출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신들이 가족구성원을 원조하고 가정을 보호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할머니신의 젊음은 여신이 태초의 여신이 가진 고유한 능력으로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로 확대된 끊임없는 생산과 창조를 의미한다.

한국 여신들의 이러한 성격은 가정의 수호자이자 사회의 유지자로서의 어머니들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 여신, 성장, 성숙, 젊음, 생산, 창조, 반항, 순종, 선함, 악함, 여성성, 모성성, 신성성, 전능성.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연구사 검토	1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
2.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신들	7
2.1. 성장하는 딸신	7
2.1.1. 가문장아기	7
2.1.2. 자청비	9
2.1.3. 당금애기	12
2.1.4. 심청	15
2.1.5. 바리데기	17
2.2. 성숙한 어머니신	20
2.2.1. 길대부인	20
2.2.2. 당금애기의 어머니	21
2.2.3. 저승할망의 어머니	22
2.2.4. 심청이의 어머니	22
2.2.5. 원강아미	23
2.2.6. 여산부인	24
2.2.7. 노일제대귀일의 딸	25
2.2.8. 과양생이 각시	27
2.2.9. 명월각시	28
2.2.10. 황우양씨 부인	30
2.2.11. 강림이 큰부인	31
2.2.12. 짐치원님 부인	31
2.3. 젊은 할머니신	32
2.3.1. 저승할망	32
2.3.2. 이승할망	33
2.3.3. 선문대할망	34
3.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여성성 상징	37
3.1. 길쌈과 옷	37
3.2. 불과 솔	43
3.3. 물과 꽃	47
3.4. 대식과 배설	52
3.5. 우주목과 땃줄	54

4. 무속신화에 나타난 한국 여신의 여성성.....	57
4.1. 보편적 여성성.....	57
4.1.1. 죽음과 재생을 통한 모성성의 발현.....	57
4.1.2. 탐색과 획득을 통한 신성성의 발현.....	64
4.1.3. 탄생을 통한 전능성의 발현.....	66
4.2. 특수한 여성성.....	70
4.2.1. 성장하는 딸신의 반항과 순종.....	70
4.2.2. 성숙한 어머니신의 선함과 악함.....	72
4.2.3. 젊은 할머니신의 원초적 여신상.....	75
5. 결론.....	76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연구사 검토

무속신화에 대한 연구는 서사무가에 대한 연구와 혼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김태곤¹⁾은 무속신화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무속신화를 서사무가와 같은 의미로 보았다. 본고에서도 서사무가와 무속신화를 같은 범주로 다루기로 한다.

먼저 무속신화에서 여성에 대한 연구는 개별 서사무가에서 신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되었다.

서대석²⁾은 제석본풀이와 바리공주를 주요한 대상 자료로 삼고 전승권역에 따른 변이양상을 밝혔으며, 당금애기와 바리공주를 영웅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웅 개념의 도입으로 조동일의 영웅의 일생 구조가 여러 서사 장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남을 입증하여 이후의 논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 여성영웅에게 나타나는 여성 수난 모티브를 분석하여 무속신화가 한국 신화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나경수³⁾는 제석무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연구를 했다. 각 이본에 따른 전개양식을 비교하고 그 속에서 주인공과 기능상의 성격을 도출했으며, 다른 건국신화나 바리데기 무가를 구조분석 함으로써 제석무가가 우리나라의 문화사적 발전을 지켜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문화양태를 수용하고 있는 문화복합체라는 의미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별 서사무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무속신화 속에서 여성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모색도 이루어졌다. 특히 강진옥⁴⁾은 현행 연구에서 여성무속신화가 영웅서사문학의 기본구조를 계승하고 있고 그것이 기존 문학사 속에서 어떻게 위치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일반 서사문학 연구의 전형적인 방법에서 나아가 여성적 시각에서 여성 읽기에 대한 관심이 태동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성적 현실과 여성성, 여성적 담론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방법론적 모색과 더불어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신을 여성영웅으로 보고 설명하는 연구와 여성 원형에 대해 탐구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오세정⁵⁾은 건국신화의 남성영웅이 갖는 트리스터의 면모와 무속신화의 여성영웅이 갖는 희생양의 면모의 차이를 지적하고, 여성이 사회의 이중적 판단에 의해서 희생양에서 영웅으로 변모한다고 했다. 즉, 남녀의 성차에 따라 신성의 획득에도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유경⁶⁾은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와 주몽신화, 무속신화인 세경본풀이, 삼공본풀이, 초공본풀이, 바리공주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영웅의 원형 상징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살피고 소설적 수용양상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건국신화와 무속신화를 통틀어 한국 신화의 여성영웅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 의도는 높이 살 만하였으나 생산과 창조, 개척과 성

1) 김태곤, 「한국 무속신화의 유형」, 『고전문학연구』 제4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8.

2) 서대석, 「바리공주 연구」 『계명논총』 제8집, 1968.

_____, 『韓國巫歌의 研究』, 문학사상사, 1980.

3) 나경수, 「帝釋巫歌의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4) 강진옥, 「여성문학적 관점에서 본 구비문학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5) 오세정, 「무속신화의 희생양과 희생제의」, 『한국고전연구』 제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6)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취, 모성과 원조, 희생과 구원이라는 여성영웅의 원형 구분 기준 속에서는 건국신화와 무속신화의 여성영웅이 다시 분리되어 그 성격이 하나로 규명되지 못했다. 또 신격의 층위변화를 설명하면서 건국신화의 여신은 생래적으로 신성성을 타고난 존재이고 무속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은 인간적으로 태어나 통과의를 거쳐 신성을 후천적으로 얻는 존재라고 차이점을 언급한 바 있었으나 뒷부분에서 자발적 통과의례와 타의적 통과의례라는 용어를 쓰면서 옹녀나 유화와 같은 건국신화의 여신 또한 통과의례를 통해서 신성을 얻는다고 설명하여 모순을 보였다.

이수자⁷⁾는 제주도의 무속신화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나타난 모신상의 신화적 의미를 해명하였다. 여신의 원형과 성격 연구를 통해 여신의 지위가 하락되어 신화에서 전설, 민담으로 수용되는 설화의 전승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경하⁸⁾는 조선후기 여성들의 행위규범과 역할을 규정하고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분석하면서 '가부장제'가 여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노동화소와 혼인 및 출산화소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성의 효를 주제로 삼은 다른 서사작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위규범과 역할에 관련된 여성의식을 도출하였다.

최원오⁹⁾는 전능성의 구현자에서 현실생활인에 이르기까지 여신의 지위 변화를 언급하고 그것이 강제적 윤리기제의 작용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 여신의 지위가 여성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이념화되어 있는 여신의 모습에 대해 언급했다.

김정숙¹⁰⁾은 제주도의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신을 자립적인 여신, 관계지향적인 여신, 대사회적 여신으로 그 유형을 나누었다. 용의 원형 개념을 이용해 자립적인 여신에 속하는 자청비, 가문장아기, 백주또, 관계지향적 여신에 속하는 원강아미, 강림의 큰부인, 노일저대구일의 딸, 대 사회적 여신에 속하는 삼승할망이 하나의 여신 원형을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선행 연구는 무속신화에서의 여성이 여성영웅으로서의 역할, 어떤 여신원형으로서의 역할, 여신의 지위변화와 그 이유, 여성영웅성과 여성의식이라는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몇 가지 아쉬움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현재까지의 연구는 여신이 본풀이의 대상신일 경우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무속신화의 대상신은 아니라도 주요한 기능을 하는 여신들이 있다. 이러한 여신들을 다루지 않고는 여성무속신화를 전반적으로 다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우리나라 여신에 대한 연구가 다른 나라 여신과의 비교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화소와 특징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인류·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여신숭배 사상이나 모계중심의 사회와 같은 동일한 문화를 가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여신들의 성격 규명은 이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선행연구가 안고 있는 이러한 아쉬움을 보완하면서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

7)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_____,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제16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8.
 8) 이경하,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9) 최원오,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 『구비문학연구』 제9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_____,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위계 전변과 윤리의 문제」, 『비교민속학』 제24집, 비교민속학회, 2003.
 10)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난 여신들의 성격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고는 ‘가부장제’에서 실제 여성의 현실이 억압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이경하의 연구에 동의한다. 또 무속신화와 여성이 가지는 친연성으로 인해 오히려 무속신화가 여성 현실을 잘 드러내는 문학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무속신화는 구비·전승 되던 신화이므로 처음의 모습보다 변형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상징성은 남아있을 것이다. 음에 의하면 그러한 원형은 사람들의 무의식적 사고체계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징을 살펴본다면 한국에도 여신 숭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여신의 여성성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의 대상 자료는 12개의 무속신화이다. 이 12개의 무속신화는 서사무가로서 구송된 것으로, 각 지역별로 선정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이성녀 구연의 《성주본가》¹¹⁾를 선정하였다. 경기도 고양군 용인면 아현리에서 구연된 것으로, 다른 지방에서는 일반무가로 불리는 성주 계통 무가가 경기도 지방에서는 서사무가로 불리며, 『조선무속의 연구』가 이른 시기의 채록 자료로 인정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성주본가》에서 황우양씨의 부인은 황우양씨가 천하궁을 짓는 과업 완수를 도와주어 성주신(成造神)이 될 수 있게 하며, 방해자인 소진랑을 징치하여 가정의 평화를 지켜낸다.

평안도에서는 전명수 구연의 《일월노리 푸념》¹²⁾을 선정하였다. 《일월노리 푸념》은 일월신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성격의 신화로는 거의 유일한 것이다.

동해안 별신굿에서는 이금옥 구연의 《맹인거리》¹³⁾, 김복순(김영희) 구연의 《바리데기》¹⁴⁾, 김유선 구연의 《세존(世尊)굿》¹⁵⁾을 선정하였다.

《맹인거리》는 심청굿 계통 무가로 원래 고소설과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는 동해안 세습무 집단에서만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금옥 무녀는 동해안에서 뛰어난 무당으로 인정받았으며 동해안에서만 유일하게 전승되는 심청굿 계통 무가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의 자료는 심청굿 자료로는 가장 믿을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바리데기》는 증서부와 함남, 호남, 동해안 네 지역에서 구연되는데, 함남의 것은 서사적 전개가 다른 편이고, 호남과 동해안이 비슷한 편인데, 그 중에서도 동해안의 것으로 선정하였다. 바리데기를 구연한 김복순(김영희)는 동해안에서 뛰어난 무당으로 인정받았으며, 동해안 무가 특유의 골계미가 드러난다.

《세존굿》은 제석거리 계통 무가로 당금애기는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의 자기멩왕아기씨와 같은 삼신할머니이다. 삼신할머니에 대한 무속 신화의 유형은 크게 셋으로 보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세존굿》은 동북지형 전승유형으로 제주도 전승유형과 서남지역 전승유형에서 분화과정에서 가장 먼저 분화된 것이며 제석거리 계통 무가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¹⁶⁾

11) 아카마스 지조(赤松智松)·아키바 다카시(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12) 손진태, 『靑丘學叢-自第27號 至第30號』, 경인문화사, 1982.

13) 박경신, 『(인문과학연구총서 제2집)울산지방무가자료집(4권)』,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14) 최정여·서대석, 『東海岸巫歌』, 형설출판사, 1974.

15) 위의 책.

16) 제주도 지역 전승유형은 동북지역 전승유형보다도 서남지역 전승유형과 접근되어 있으며, 따라서 삼분형의 분화과정은 공통모형으로부터 동북지역형과 서남지역형이 먼저 분화되고, 뒤에 서남지역형에서 제주도형이

제주도에서는 송기조 구연의 《선문대할망》, 안사인 구연의 《불도맞이》, 《세경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체사본풀이》를 선정하였다. 제주도의 자료를 비교적 많이 채택한 것은 제주도에 다른 지방에는 없는 특징적인 여성 무속신화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며, 섬이라는 지리적 영향으로¹⁷⁾ 우리 민족의 무가의 전형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문대할망》 설화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 9-2』¹⁸⁾에 실린 송기조 구연자료를 대상 자료로 삼았다. 《선문대할망》은 현재 무가로는 남아있지 않으며 현전하는 설화가 무속의 측면이 약하지만 선문대할망이 승양의 대상이었다는 「표해록」의 기록에 근거하여 《선문대할망》을 무속신화로 존재하는 유일한 여성장조신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¹⁹⁾

《불도맞이》, 《세경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체사본풀이》는 『제주도 무속자료사전』²⁰⁾에 실린 안사인 구연본을 대상 자료로 삼았는데, 이 책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주도의 서사무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인정받은 것이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농경을 담당하는 중세경신이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사랑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과업을 완수하고 그에 대한 권능을 인정받아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아미는 서천꽃밭의 꽃감관인 원강도령의 아내이자 신산만산할락궁이의 어머니로, 두 남성이 꽃감관으로 좌정하는 데 큰 공헌을 한다.

《삼공본풀이》는 여인발복 설화와 유사하며, <내복에 산다>형의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비교적 앞선 시기의 것으로²¹⁾ 전상신(前生神)의 내력을 밝힌 것이다.

《체사본풀이》의 강림도령은 열여덟 명의 처를 가지고 있다. 강림이 부인은 첫날밤에 소박을 맞았던 강림이의 큰부인을 말한다. 강림의 큰부인은 전형적인 조강지처(糟糠之妻)이자 양처(良妻)로 강림이가 저승차사로 좌정하는 데 큰 공헌을 한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위의 대상 자료에 나오는 여신들이다. 12개의 무속신화에는 그 곳 제사의 대상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목해야 할 여신들이 있다고 보고 이 12개의 무속신화에 나타난 20명의 여신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이 20명의 여신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서사단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2개의 신화들의 대상신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성신의 신격에 따라 분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20명의 여신들은 반인반수형이 없으며 모두 인간의 형상을 띄고 인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2장의 여신들을 인생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가정에는 진 시노다 불

문화되었다고 본다.(서대석, 『韓國巫歌의 研究』, 문학사상사, 1980, pp.195-196).

17) 문화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섬 지방에 고문화가 잔존한다는 이수자와 현용준의 논의가 있다.(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pp.22-23. 현용준, 『濟州道 巫俗研究』, 집문당, 1986, pp.40-58).

18) 현용준, 『韓國口碑文學大系 9-2 濟州道 濟州市 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9) “이같이 위급한 처지를 당하였을 때 무의식중에 백록선자나 선마고를 부를 만큼 전설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깊었음을 또한 알 수 있는 터이다.”라고 하여 선문대신앙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정병욱, 「표해록에 대하여」, 『韓國古典의 再認識』, 흥성사, 1979, p.252. 강진욱,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제25집, 한국민속학회, 1993에서 재인용).

20)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21) 여인발복 설화는 신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무속제의에서 제사를 받는 <삼공본풀이>의 경우는 신화시대에 형성된 이야기로 감은장아기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나타나있다는 것도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김대숙, 「女人發福 說話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p.86-117).

린의 연구가 참고 되었다. 진 시노다 불린은 그리스 여신들이 각각 여성 원형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녀-어머니-노파[할머니]’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²²⁾

본고는 여성의 입장에서 인생의 세 단계를 ‘딸-어머니-할머니’로 규정하고 여신들도 이와 같은 단계로 분류한다. ‘처녀’보다 ‘딸’이라는 용어가, ‘노파’보다는 ‘할머니’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신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에서 여신을 말할 때 ‘할머니’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여성이 아닌 여신으로서의 속성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딸신-어머니신-할머니신’의 속성을 규정한다. 그래서 ‘성장하는 딸신’, ‘성숙한 어머니신’, ‘젊은 할머니신’으로 인생의 단계와 속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그 여신들을 살핀다. 여신들은 ‘딸’에서 ‘성장’하여 ‘성숙한’ ‘어머니’가 되며, ‘할머니’가 되어서는 늙지 않는다.

‘딸신’의 속성인 ‘성장하는’은 어떤 단계를 향해 나아가간다는 의미로 지향점을 갖고 움직이고 있음을 뜻한다. 지향점은 어머니신의 성숙함이다.

‘어머니신’의 속성인 ‘성숙한’은 무언가를 이루거나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성숙함은 현모양처와 그에 대비되는 악처악모의 두 유형 즉, ‘착한’과 ‘나쁜’으로 구분된다. 이 개념은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머니 원형에서 나쁜 어머니, 착한 어머니를 참고하였다. ‘좋은’은 이 어머니신의 성숙함이 자식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나쁜’²³⁾은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영웅으로 만드는 측면에서는 ‘착한’ 어머니는 희생함으로써 자식이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으며, ‘나쁜’²⁴⁾ 어머니는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준다.

‘할머니신’의 속성인 ‘젊은’은 불사의 존재로서 늙지 않음을 뜻한다.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로 불리는 것이 아닐 뿐더러 할머니라고 불린 후에도 어머니로서의 창조성과 생산성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인 할머니가 아니라는 뜻이다.

‘성장하는 딸신’에는 바리데기, 자청비, 당금애기, 가문장아기, 심청이가 해당된다. 딸신들의 성장은 주로 가정과 분리되면서부터 시작되며, 이 성장은 다음 단계인 성숙한 어머니신이 되기 위한 과정을 뜻한다.

‘성숙한 어머니신’에는 길대부인, 당금애기의 어머니, 저승할망의 어머니, 심청이의 어머니, 원강아미, 여산부인, 노일제대귀일의 딸, 과양생이 각시, 명월각시, 황우양씨 부인, 강림이 큰부인, 김치원님 부인이 해당된다. 어머니신들의 성숙함은 대개 가정이 파괴된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는 지혜로움을 뜻하며, 가정의 실질적 가장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다.

‘젊은 할머니신’에는 이승할망과 저승할망, 선문대할망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단편적으로

22) 진 시노다 불린은 융이 말한 여성 원형(archetype)을 그리스 여신들로 의인화하고, 여신들을 처녀, 어머니, 노파로서의 삼중적인 여신의 일대기로 분류했다.(진 시노다 불린, 이경미 역, 『우리 속에 있는 지혜의 여신들』, 또 하나의 문화, 2003. 진 시노다 불린, 조주현·조명덕 역,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또 하나의 문화, 2003). 본고는 진 시노다 불린이 말한 ‘처녀-어머니-노파[할머니]’ 개념에는 동의하면서도 한 여신이 하나의 여성 원형을 상징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23) 분석 심리학에서는 대극의 합일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선과 악의 대립, 여성과 남성의 대립,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대립, 본능과 양심의 대립 등 우리 심성 속에는 매우 다양한 대립이 항상 일어나지만, 그 대립이 해결되고 변화하는 과정 중에 보다 더 성숙하고 큰 진짜 자기를 만들어 가게 된다.(이나미, 『융, 호랑이 탄 한 국인과 놀다』, 민음인, 2010, p.134).

24) 이나미의 설명에 따르면 나쁜 어머니가 꼭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양극이 있어야 서로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양극이 합일되어 보다 완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로 가는 융 심리학에서는 양극이 대극의 합일(the coincidence of the opposites)을 지향하는 하나의 과정(enantiodromic process)이라고 말한다.(위의 책, p.142).

등장하는 청태국 마고 할머니라든가 청태산 할머니, 주모할망 등의 할머니신도 대상 자료에 나타나는 여신이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만 있을 뿐 그와 관련된 서사단락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간단하게 언급만 할 것이며, 주논의는 이승할망, 저승할망, 선문대할망 셋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할머니신들의 젊음은 앞으로 있을 새로운 창조에 대한 강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생명 또는 국토의 창조와 관련된 할머니신은 창조주적 면모를 드러낸다.

3장에서는 각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여성성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성성 상징이란 융이 말한 여성 원형과도 일치하는 개념이며 엘리아데가 말한 상징이란 용어와도 일치하는 개념이다. 융은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어떤 원형이 있으며 그것이 꿈을 통해서 발현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징이라고 말한다.²⁵⁾ 본고에서는 여성성 상징을 길쌈과 옷, 불과 술, 물과 꽃, 대식(大食)과 배설, 우주목과 땃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그 각각은 이미 많은 원형 상징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 것인데, 우리 무속신화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4장에서는 보편적 여성성과 특수한 여성성으로 나누어 한국 여신들이 가진 여성성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보편적 여성성에서는 3장에서 말한 여성성 상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신 숭배의 한 흔적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특수한 여성성에서는 2장에서 말한 여신의 세 단계에 따른 특수한 여성성에 대해서 논하게 될 것이다.

25) 융이 말하는 원형(原型:archetype) 혹은 원시심상(primordial images)은 하나의 모티프를 어떤 표상으로 형성시키는 경향이다. 본능이라는 생리적인 충동이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이 <나타남>을 원형이라 말한다.(칼 G. 융, 이윤기 역, 『무의식에의 접근』,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2004, pp.20-103).

2.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신들

2.1. 성장하는 딸신

‘성장하는 딸신’에는 가문장아기, 자청비, 당금애기, 심청, 바리데기가 해당된다.

2.1.1. 가문장아기

가문장아기는 전상신(前生神)으로, 신격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호한 면이 있지만 인간의 생업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문장아기를 주체로 《삼공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강이영성이서불과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납의 셋째 딸로 탄생한다.
- 2) 차차 발복하여 집안의 살림이 불고 천하거부가 된다.
- 3) 열다섯 살이 되자 부모로부터 누구 덕에 사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 4) 자기 복에 산다고 대답해 집에서 쫓겨난다.
- 5) 언니들이 거짓말을 하자 벌레와 버섯으로 변하게 한다.
- 5) 검은 암소에 먹을 균량을 싣고 집을 나가 신산만산 굴미굴산에 마통이집에 가게 된다.
- 6) 마통이 형제 중에서 가장 착한 막내 마통이와 결혼한다.
- 7) 막내 마통이가 마를 파던 자리에서 보석을 발견해 부자가 된다.
- 8) 부자가 되자 부모가 판 땅과 집을 사서 모은다.
- 9) 부모를 만나기 위해 절인잔치를 한다.
- 10) 장님이 된 부모를 만나고 부모가 눈을 뜨게 된다.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자식들의 효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장아기와 늦장아기, 가문장아기에 게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는 질문을 한다. 은장아기와 늦장아기는 하늘님과 지하님, 아버님과 어머님 덕에 먹고 산다고 대답하지만 가문장아기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배꼽 밑에 선금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한다.

“죽은딸아기 이레 오라. 가문장아기, 너는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우발신(行爲發身)하느냐?”

가문장아기 말을 하되

“하늘님도 덕이웨다. 지에님(地下-)도 덕이웨다. 아바님도 덕이웨다. 어머님도 덕이웨다마는 나 배또롱 알에 선그릇 덕으로 먹고 입고 행우발신(行爲發身) 흠네다.”

“이런 불효막심(不孝莫甚)하 예즈식(女子息)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빨리 나고 가라.”²⁶⁾

가문장아기는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는 부모의 질문이 효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인 것과 관련된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먹고 산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부모는 가문장아기의 대답에서 불효를 읽었기 때문에 그녀를 집에서 내쫓는다. 이러한 내쳐 짐은 가문장아기가 가정의 질서에서 벗어나 본인의 질서를 세워야하는 자립의 시기가 왔다

26)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194-195.

는 것을 의미한다. 가문장아기에게 이러한 질문이 던져진 것이 실제 삶에서 자립의 시기가 되는 15세라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

가문장아기를 내쫓은 뒤 부모는 맹인이 되어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다. 부모가 맹인이 된다는 것은 가문장아기를 내쫓은 것이 무지와 판단능력의 부재였음을 뜻한다. 그 실수로 인해 그들은 거지가 되는 벌을 받게 된다. 가문장아기의 능력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노력한 것인데 반해 가문장아기의 두 언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동생을 경쟁자로 여겨서 내쫓으려고 다음과 같이 거짓말을 한다.

“큰딸아기 나고 보라. 설운 딸아기 식은 밥에 물즙이라도 먹엉 가랭굴으라.”

설운 큰성 은장아긴 뭇광돌 우테레 올라사명

“설운 아시야 흐저 가불라. 아방 어멍(父母) 늘 따리레 나왓짜.”

가문장아기 말을 흐뵈

“설운 큰성님 뭇광돌 알로 느려사긴 청주넝이 몸으로나 환싱(還生)흡서.”

(중략)

가문장아기 말을 흐뵈

“설운 셋성이랑 걸음 알레레 느려사난 용달버섯 몸으로나 환싱흡서.”

설운 셋성은 걸름 알레레 느려사난 용달버섯 몸으로 환싱(還生)허여 간다.

강이영성과 홍운소천은 앓았다네. 큰딸아기 소식(消息) 엇고 셋딸아기 소식 엇어가난 “이 게 어떤 일일런고” 문 밧것테레 내든다가 문 옷지방에 눈이 걸린 안맹천지(眼盲天地) 되옵데다. 강이영성이서불 홍운소천궁예궁은 앓아뉘서 먹고 입고 써가난 재산(財産)이 탕진(蕩盡)허여 게와시로 나사간.²⁷⁾

가문장아기를 집에서 빨리 내쫓기 위해 거짓말을 한 두 언니는 가문장아기가 말한 대로 청지네와 용달버섯이 된다. 가문장아기는 언니들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에게서 먹고 살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듯, 악행을 한 그들을 징치할 능력이 있음도 알고 있었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말하는 순간 그러한 전능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

가문장아기는 검은 암소를 타고 집을 떠나는데, 이 검은 암소가 뜻하는 바가 매우 크다. 소는 예로부터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으며 이는 곧 부와 직결된다. 그 중에서도 검은 소는 검고 기름진 토양의 색을 가진 것으로 비옥한 풍요를 뜻한다.²⁸⁾ 가문장아기가 집에서 그 부의 상징인 검은 암소를 끌고 나왔으니 천하거부였던 가문장아기의 부모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가문장아기는 무엇이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직관은 남편을 고르는 데도 적용된다. 가문장아기는 마통이 삼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착한 막내 마통이와 결연한다. 가문장아기는 남편인 막내 마통이가 마를 캐는 밭에서 금덩이와 은덩이를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 가문장아기가 남편으로 삼은 막내 마통이의 밭에서 금이 나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잠재된 비범함을 알아보는 가문장아기의 지인지감(知人之鑑)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마통이가 알아보지 못한 금덩이를 가문장아기가 알아본 것²⁹⁾ 역시 일반인에게는 없는 비범한 능력의 상징인 것이다.

27) 위의 책, pp.195-196.

28) 검은 소의 상징성은 고희경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고희경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도덕경에서는 검은 소가 신비로운 여성, 여성성의 기본 원리, 하늘과 땅의 원천을 의미한다고 한다.(고혜경,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 한겨레출판, 2006, pp.74-75).

가문장아기는 부자가 되자 부모가 걸인이 되었으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부모가 잃어버린 재산을 모으고 걸인잔치를 하여 부모를 찾는다. 걸인잔치에서 부모를 만난 가문장아기는 다음과 같이 부모의 눈을 뜨게 해준다.

가문장아기가 청감주(淸甘酒) 든감주를 지리님님 비와 들고
“이 술 흔 잔 들읍서. 천년주(千年酒)우다. 만년주(萬年酒)우다. 설운 어머니님 아바님아, 나
가문장아기우다. 나 술 흔 잔 들읍서.”
“이! 어느 거 가문장아기!”
들렀단 술잔 탈랑 놓은 게 설운 아바님 설운 어머니님 눈이 팔롱하게 붉아졌구나. 계명천지
(開明天地)가 됐었구나.³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가문장아기의 부모가 가문장아기가 집을 나가면서 맹인이 되었다가 가문장아기가 주는 술을 마시고 눈을 뜬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리판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의 상징적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눈을 떴다는 것은 가문장아기를 만나 다시 세상을 바로 보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문장아기가 부모의 눈을 뜨게 하고 재산을 되찾아주는 행위는 부모가 자식을 불효녀로 판단하여 집에서 추방한 행위와 대조적이며, 이를 통해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관해나가는 권능을 보여준다.

2.1.2. 자청비

자청비(自請妃)는 세경신 중에서도 농경을 담당하는 중세경이다. 《세경본풀이》에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된 자청비가 아니라 문도령이 상세경이 된다는 것에 의문³¹⁾을 가지기도 하지만 중세경의 ‘중’을 두 번째라는 의미보다는 중심이 되는 가운데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실제로 세경신 중에서 자청비를 제일 중요한 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무녀의 사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청비가 문도령을 거느리고 인간세상에 내려온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자청비를 주제로 《세경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부모의 수륙제로 탄생한다.
- 2) 성장하여 연하못에 빨래를 하러 갔다 상제의 아들 문도령을 만난다.
- 3) 남장을 하고 문도령과 삼년동안 글공부를 한다.
- 4) 문도령이 장가가려고 떠나려하자 여자임을 밝히고 사랑을 나눈다.
- 5) 겁탈하려던 남자종 정수남을 죽여 집에서 추방당한다.
- 6) 남장을 하고 꽃감관의 사위가 되어 환생꽃으로 정수남을 살린다.
- 7) 베짜는 할머니의 수양딸이 되어 문도령을 만나지만 곧 헤어진다.
- 8) 하늘에 올라가서 문도령 부모의 시험을 거쳐 정식으로 며느리가 된다.

29) 금을 안다는 것은 고귀한 신분의 상징으로 많은 여성발복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소이다. 가문장아기에서부터 이러한 화소가 사용되어 후대의 설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추측은 김대숙의 연구 결과에도 보인다.(김대숙, 「女人發福 說話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30)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203-204.

31) 현용준, 「상세경 문도령의 직능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pp.119-121.

- 9) 문도령을 자기 대신 꽃감관의 사위로 살게 한다.
 10) 독주를 마시고 죽은 문도령을 환생꽃으로 살리고, 천자국의 난리를 멸망약심꽃으로 막는다.
 11) 중세경신으로 좌정하고, 문도령과 정수남도 상세경과 하세경(마블립)이 되게 한다.

자청비는 15세가 될 때까지 공단클(貢緞機), 즉 베틀에서 베를 짜면서 컷 컷 컷 던 자청비는 빨래를 하러 처음으로 집밖으로 나갔다가 문도령을 만나게 된다. 자청비는 물을 달라고 하는 문도령에게 버들잎을 띄워주며 문도령을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시한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동생이 있다며 문도령에게 글공부를 같이 가자고 제안한다. 집에 돌아와서는 여자가 무슨 글공부냐며 반대하는 부모를 여자라도 제사에 지방은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설득한다.

결국 삼천선비들과 함께 글공부를 하게 된 자청비는 그 중에서도 장원이 됨으로써, 남성들과 겨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질투를 느껴 오줌갈기기 내기를 제안하는데, 심지어 남성성의 상징인 오줌 내기에서조차 자청비는 왕대죽순을 이용한 지략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문도령에 비해서 모든 능력이 우위에 있는 자청비는 정이 든 문도령을 그냥 하늘로 보내지 않는다.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문도령을 열다섯 미만의 남자라고 부모님을 속여서 자신의 방에 자고 가게 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자청비는 마음을 먹으면 실행에 옮기는 확고한 의지의 소유자이며 적극적인 여성이다.

문도령이 하늘로 올라간 뒤 혼자가 된 자청비는 겁탈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지략을 이용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오히려 자신을 겁탈하려던 정수남을 죽인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모로부터 시집가면 그만인 딸보다 늙었을 때 대신 노동해줄 종이 중하다는 지탄을 받게 되고, 정수남을 살리려 한다. 여성인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을 감독하는 황세곤간의 사위가 되어, 황세곤간의 딸로부터 다부사리꽃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알아와 정수남을 살리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였다가 살리는 능력을 갖게 된 것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계건 아바님 어머님아, 정수남의 흐는 행실(行實)이 고약하여 굴미굴산 돌안 간 죽여두고 왔수다.”

“이 년아, 저 년아 남도 났저. 지집년이 사름을 죽이다니 너넨은 놈의 집의 씨택(媿宅)가 민 그만이며, 그 종은 살려두민 우리 두 늙은이 먹을 오뎡은 허여 준다.”

(중략)

즈청비가 아바님, 어머님안티 들어가

“즈식(子息)보다 아까운 종 살려왔음네다.”

그 말 끝데 부모님이 말을 흐뵈

“지집년이 남도 났저. 사름을 죽이곡 살리곡 흐는 년 이런 년 놓았당 집안 망칠 년이로다. 어서 바빠 나고가라.”³²⁾

자청비의 내치짐은 앞의 가문장아기의 경우와 유사하다. 자청비의 부모 역시 자청비의 자신들의 노동을 해줄 종을 죽인 것에서 불효를 읽었으며, 자청비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였을 때는 그것이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 마치 아기장각했전설에 나오는

32)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345-350.

부모와 같은 반응이다. 인간으로서 용납되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었으므로 자청비의 부모는 자청비를 내쫓았지만 어리석게도 자신의 딸이 가진 능력이 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 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무지한 부모가 있는 집을 나온 자청비는 베 짜는 능력을 인정받아 주모할망의 수양딸이 되고, 문도령과 재회하게 된다. 그러나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문도령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다음과 같이 주모할망의 노여움을 사서 다시 집을 떠나게 된다.

주모할망이

“응 버런흐난 원부모(元父母) 눈에도 굴리 시찌났구나. 나 눈에도 굴리 시찌 나다.”

후욕 만발(詬辱滿發)하는구나.³³⁾

이렇게 주모할망의 집에서도 쫓겨난 자청비는 선녀들을 만나 자신이 목욕하던 물을 가르쳐주고 노각성자부줄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문도령과 재회하여 옥황상제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숯불을 피운 칼날 위를 걷는 시험을 거친다.

“이놈 저놈 죽일놈아, 이게 무슨 말이나? 나 메누리 켈 ㄹ심은 쉬은자(五十尺) 구멍이 파 놓고 숯(炭) 수니섬을 문영 불을 살라놓고 불 우회 칼쓴드리 노아그네 발아나고 발아들어서 나 메누리 ㄹ심이 췌다.”

(중략)

문도령 부모가 들려들어

“이러흐 아끼씨가 어디 이시리야. 나 메누리 ㄹ심이 넉넉하다. 어떤 일로 치멧꼭조름은 버물었느냐?”

자청비가 말을 흐뵈

“어머님아, 아바님아, 나도 인간에서 본메본짱이나 마련흐오리다.”³⁴⁾

자청비는 옥황상제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본메를 마련하는데 이것이 여성의 월경이 된다. 자청비는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신으로 문도령과의 애정을 성취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자신이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결혼했던 황세곤간의 딸에게 자신의 대리모 문도령을 보내고, 서천꽃밭의 환생꽃(還生花)과 멸망꽃(滅亡花)을 이용하여 죽은 문도령의 목숨을 살리고 천자국(天子國)의 난리를 진압한다. 그 공으로 왕에게 가을에 거뒀다는 모든 곡식(五穀十二新萬穀)을 달라 하여 문도령을 거느리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오고, 인간세상에 내려와서 다시 만나게 된 정수남도 하세경이 되게 한다.

자청비는 다부사리꽃을 이용해 죽은 정수남과 문도령을 살려내는 치병의 권능을 발휘하고, 멸망꽃을 이용해 나라의 변란(變亂)을 진압한다. 자청비는 옥황상제에게 스스로 청하여 중세경신이 되면서 문도령과 정수남을 각각 상세경신과 하세경신으로 좌정시키는 능력을 보인다. 자청비의 신격은 자청비가 발휘한 치병, 변란의 진압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큰 의미에서 농경신의 큰 의미를 보자면 대지의 여신, 땅의 어머니 그 자체를 상징한다. 서천꽃밭 역시 그 땅에서 피어나는 신의 꽃으로 자청비는 이 꽃을 통해 신의 권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아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청비(自請妃)는 ‘스스로 청한다’는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행동한 여신

33) 위의 책, p.353.

34) 위의 책, pp.356-357.

이다. 자신의 신격조차도 스스로 요구하여 좌정하였으며, 집 또는 주모할망의 집이라는 보호막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신의 자리에 오른다.

2.1.3. 당금애기

당금애기는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의 자지멩왕아기씨와 같은 삼신할머니이다. 사실 제석거리 계통 무가의 대상신이 당금애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제석거리 계통 무가의 대상신은 삼불제석이 되는 당금애기의 세 아들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서사구조는 당금애기의 일생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당금애기를 주체로 《세존(世尊)굿》의 서사단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당금애기의 부모와 아홉 오라버니가 출타하고 당금애기가 혼자 있을 때 스님이 시주동냥을 온다.
- 2) 아홉 고방의 문이 잠겨서 시주를 못하자 스님이 개문경을 읊어서 연다.
- 3) 당금애기가 먹던 쌀로 시주를 하는데, 스님이 바람을 터서 쌀이 쏟아진다.
- 4) 스님의 말에 따라 개똥나무 젓가락으로 쏜은 쌀을 주워서 시주한다.
- 5) 날이 저물어 자고 가게 된 스님과 동침하고 당금애기가 꿈을 꾸다.
- 6) 스님이 아들 셋을 낳을 꿈이라며 해몽을 해주고 박씨를 심어 찾아오는 법을 가르쳐준다.
- 7) 당금애기가 잉태한 사실을 집에 돌아온 가족들이 알게 되어 뒷산의 돌함에 갇힌다.
- 8) 돌함 안에서 혼자 아들 셋을 낳고 후원 별당에서 아들 삼형제를 키운다.
- 9) 아들 삼형제가 성장해 아버지를 찾자 아들과 함께 스님을 찾아 간다.
- 10) 아들 삼형제가 시험에 통과하자 스님이 아들의 이름을 짓고 당금애기는 삼신, 아들 삼형제는 삼한 세존의 신직을 부여받는다.

당금애기의 시련은 고구려의 건국신화인 주몽 신화에 나오는 유화의 시련과 유사하다. 당금애기는 시련은 부모의 허락 없이 스님과 합방하여 자식을 낳게 된 데서 시작된다. 당금애기에게 이는 예상 밖의 일이었지만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은 다음과 같이 처음부터 당금애기에게 아들 삼태를 점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님 거동 보라
오늘 해를 어찌하여 지울고 아기씨를 보니 국색같이 생겼지 어른들 없다는 소리는 들었지. 삼한 세존을 점지해야 되는데 오늘 해를 어찌 지울고
(중략)
일어나 가지고 가만히 병풍 넘어로 이래 보이 그때는 맘이 곧 죽겠거든. 탐화봉점(探花蜂蝶)이다. 꽃을 보니 잠이 올 리가 있나
이경에 잠을 자다가도 또 넘기다 보고, 삼경에 잠을 자다가 세번만에는 넘기다 보니 아기씨 보니 네 활개를 버들고 자는 거 보니 그때는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떨리 나오는 것처럼 아랫동아리부터 벌벌 떨린다.
(중략)
에이 고약한 이 중아 중이라는 것은 만첩청산에 올라 불도나 닭지 속가에 내려 와서 이런 무례한 행세가 어디있십니까 하니

아이구 아기씨요 중이면 절에 올라가서 중이지 마실에서도 중입니까.³⁵⁾

당금애기는 스님의 행동을 책망하다가 사주책에서 자신의 사주에 중가장(家長)이 있음을 보고는 이내 스님의 행동에 수궁하고 결국 부부가 된다. 스님은 다음날 박씨 세 개를 주며 아들과 자신을 찾아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고, 당금애기는 배가 불러온다. 가족들이 돌아오자 임신한 당금애기는 다음과 같이 허혼 없이 임신한 일에 대한 별을 받게 된다.

양반의 집에 이게 무엇입니까, 당장 저년 데려다가 작두 끝에 놓고 목을 돌려 직입시다.

그러니 소래개 병아리 차 가듯이 달랑 들어다가 작두 끝에 목을 걸쳐 놓고 작두를 놀리면 목이 끊어져 죽을 터인데 작두 끝에 없어 놓은 당금애기씨 곁에는 흠뻑 해가 딱 끝나고 서기가 비추고, 어머님 아번님 아흠 성제 오라번네들이 서 가주구 있는 데에는 청천 하늘에서 흠비 돌비가 박석으로 퍼 붓는다 말입니다.³⁶⁾

당금애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임신한 사실은 가정의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임신의 책임이 당금애기에게만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당금애기의 잘못만을 추궁하며, 잉태한 아이의 아버지인 스님에 대한 추궁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귀하게 자란 당금애기는 예기치 않았던 임신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으며 시련을 겪게 된다. 아흠 오라번네들은 당금애기를 작두로 죽이려 하나 부처님의 도술로 실패한다. 이때 당금애기를 피를 흘려서 죽이면 홍수가 나고 흉년이 든다는 당금애기의 어머니의 말로 돌함 속에 갇히게 된다.

당금애기는 이전에 속해있던 가정에서 분리되어 혼자서 아들 삼형제를 출산하여 키우는 데, 당금애기의 임신은 스님이 세상에 삼한 세준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 즉 하늘의 뜻이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도술 및 하늘의 도움으로 아기는 무사히 탄생하여 성장하게 된다.

어머니, 이게 우젠 일인가 하고 돌함 속을 들여다 보니께, 아들 삼태를 낳아 놓고 하늘 학이 세 마리 내려와 한 애기 한마리씩, 한짝 날개는 깔고 한짝 날개는 덮고 한 애기 한마리씩 부처님 도술로 깔고 품고 있구나.

그런데 흠비 돌비가 올 때는 당금애기가 순산을 하니라고 눈물비가 왔고 무지개 서기공면 할 때는 하늘에 옥황상제가 내려와서 산바라지 하고 올라 가니라꼬 무지개 뵈고 돌함 위로 백학 세 마리는 그 애기를 한 애기 한마리씩 품고 안고 있으라고 보냈고.

(중략)

후원 별당 안에 아들 삼형제 키우는데 부처님 도술로다 야들 삼형제를 키우자.

둥글 둥글 잘도 크다.

세월이 여유하여서 일년 가는 것이가 반년 가는 맞잡이요,

반년 가는 것이 한 달 가는 맞잡이라

한달 가는 것이 하루 가는 맞잡이라.³⁷⁾

당금애기가 낳은 아들 삼형제는 무럭무럭 자라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그 능력이 매우 뛰어나 다른 아이들의 시기를 산다. 다른 아이들로부터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설움을 당하자

35) 최정여·서대석, 앞의 책, pp.89-91.

36) 위의 책, pp.95-96.

37) 위의 책, pp.98-101.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당금애기는 아버지가 중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가르쳐주지 않다가 아들들이 죽으려고 하자 다음과 같이 뒤늦게 박씨를 심어 아버지를 찾아가게 된다.

어머니요 어머니요 우리 아버지 찾아 주시오.

남글 깎아서나마 돌을 깎아서나마 헌신짝도 짝이 있고요.

나무 돌도 짝이 있고요 하늘과 땅과도 합하여 생겼으니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없이 우리를 낳겠소

우리 아버지 찾아 주시오.

차마 중 아버지란 말을 못해서

오냐 너그 아버지 찾아주마.

(중략)

너그 아버지 찾아주마 차마 너그 아버지 중아버지란 말을 못해 그렇다 하고 박씨를 세개 내어 주며

이걸 해 질 녘에 심귀 뒀다가 날 새거든 내다 보라. 날이 새거든 이 줄이 벌을 터이니 줄대로 찾아 가자.³⁸⁾

스님을 만난 아들 삼형제는 스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재주 시험³⁹⁾을 거친다. 동북지역 전승유형에서는 아들 삼형제의 심부담(尋父談) 화소가 유난히 강조되었다. 아들임을 인정받고 태산, 평택, 한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 이름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버지로부터 첫째는 금강산 부처님, 둘째는 태백산 문수보살, 셋째는 골매기 성황님의 신직을 받고 당금애기 역시 신직을 부여받는다.

스님은 처음에 당금애기가 스님을 만났을 때 다른 방에 재우려 했던 양값음을 하려고 당금애기를 부뚜막에 벌레로, 국시서낭으로 좌정시키려고 하다가 아들들의 만류에 삼신(産神) 할머니의 신직을 부여한다.

당금애기가 삼신할머니가 된 것은 아들 삼형제를 혼자 출산하여 양육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스님이 가져다준 시련이자 당금애기의 가족이 가져다준 시련이다. 스님은 당금애기와 같이 사회의 윤리를 어겼으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없고, 가족들도 오직 당금애기의 죄만을 물었다. 이런 부분에서 당금애기의 수난은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당금애기는 돌함에 버려졌다가 아들 셋을 무사히 낳은 것을 보고 당금애기의 어머니에 의해 다시 집의 후원별당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금애기가 사회에 다시 편입된 것의 상징이다. 당금애기는 혼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련 속에서 자연스럽게 출산·양육에 대한 권능을 가지게 되었고, 시련에 의해 강조된 권능은, 비록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어겼으나, 당금애기로 하여금 가정과 사회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든 근거가 된 것이다.

38) 위의 책, pp.103-104.

39) 첫째는 청소(靑沼)에서 명주꾸리에 단 낚시로 삼부어(三鮒魚)를 잡아 회(膾)로 먹었다 다시 토해내는 것이다. 둘째는 종이버선을 신고 한강수 깊은 물에 걸어도 버선을 젓지 않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삼년 묵은 소 뼈다귀(죽은 소)를 산 소를 만들어서 타고 부처님 앞에 들어오는 것이다. 넷째는 짚 북을 차마 끝에 달고 짚 닭을 만들어 지붕 위에 올리면, 짚 북이 소리가 나고 짚 닭이 해를 치고 울음을 울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은바리때에 물을 떠서 단지(斷指)하여 피가 영기는 모양을 보는 것이다.

2.1.4. 심청

무녀는 본격적인 무가의 구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맹인(盲人)거리》의 대상신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눈앓아 춘하맹산 두눈앓아 춘하맹산
피삼 열삼 걷아가주고 가는거는
출천지(出天之) 심소자[沈小姐]백이 없던가 보더라
심소자[沈小姐]는
이 세상에
요왕궁[龍王國]에 들어가 영영 죽고 없었더라면
심소자 역사(歷史)에 옛글에 옛법을 안내버리지마는
(중략)
이 있기 때문에 천추 유만대[千秋累萬代]로 불려서
출천지(出天之) 효녀법(孝女法)을 비리지않고
인당수[印塘水] 땡기는(다니는)
바다 땡기는 여러 선주(船主)들
만경창파(萬頃蒼波) 땡기더라도
심소자[沈小姐] 받들어서 요왕[龍王]님카 받들어서
아무 사고(事故) 없두로 맹그러주고
(중략)
이때에 심소자[沈小姐] 닢이를 불러
한상(床) 잘해 요왕[龍王]굿 풀어줍시다⁴⁰⁾

무녀의 설명에 따르면 심청은 개안(開眼)의 신이자 용왕과 마찬가지로 풍랑을 가라앉히는 바다의 신으로 이해된다. 심청이를 주체로 《맹인거리》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심봉사와 곱씨부인의 기차지성으로 탄생한다.
- 2) 산후조리를 못한 곱씨부인이 죽자 심봉사에 의해 양육된다.
- 3) 성장하여 부친을 잘 봉양하는 효녀가 된다.
- 4) 장승상 부인에게 수양딸 제안을 받지만 거절한다.
- 5) 삼백석 시주를 위해서 선인에게 제물로 팔려 심봉사를 떠난다.
- 6) 인당수에 투신하여 용왕국에서 어머니를 만난다.
- 7) 연꽃 속에 떨어져 인간세상으로 돌아오고 천자를 만나 결연한다.
- 8) 황후가 되어 맹인잔치를 열고 부녀가 상봉하여 심봉사가 눈을 뜨게 한다.

심청은 아버지의 젖동냥으로 성장하지만 삶바느질과 구걸을 해서 아버지를 봉양한다. 효녀인 심청은 장승상 부인의 수양딸 제안도 거절하고 아버지를 모시다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선인들에게 제물로 팔려간다.

심청은 인당수에 투신하여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용왕국에서 어머니 옥진부인

40) 박경신, 앞의 책, pp.4-6.

을 만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심청이가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심청은 용궁의 시녀들과 어머니에 의해서 연꽃에 떨어져 환생하게 된다.

심청이가 탄 연꽃은 송나라 왕에게 바쳐져 심청은 왕비가 되고 맹인잔치를 열게 된다. 다음과 같이 맹인잔치에서 심청은 개안의 신임을 보여준다.

이때에 심천이
우루룩 달라들며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즉껏 눈못떴소 임당수 갔던 심천이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저김마 하늘에 옥진부인이라
오색(五色)안개 약물(藥水)로 내렸는데
여러 못봉사가
여게도 퍼뜩 저게도 퍼뜩
퍼뜩 퍼뜩 퍼뜩 퍼뜩 퍼뜩 퍼뜩
눈을 뜨더니마는
황봉사(黃奉事)는 눈을 못떴다 뺩덕에미 흠치간 죄(罪)로
뺩덕에미도 천벼락을 때려 없애빼리고
이때 심봉사도
눈이 퍼쩍 떨어지니 천지 만물(天地萬物)을 보고
심천이를~
오늘날 그나라 송(宋)나라 왕들이
음습[飮食]을 배빼하고 경사를 이룬다⁴¹⁾

맹인잔치에서 심청이가 아버지 심봉사를 만나자 하늘에서 심청의 어머니인 옥진부인이 약물을 내려 심봉사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맹인들까지도 눈을 뜨게 해준다. 그리고 권선징악의 결말에 맞게 뺩덕어미와 도망간 황봉사는 눈을 뜨지 못하고 뺩덕어미는 하늘의 벼락을 맞는다.

심청전과 심청가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심청이가 살아있는 것에 놀란 아버지 심봉사가 눈을 뜨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심청가에서는 심청이의 효성에 감동한 하늘에 의해 잔치에 온 모든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된다. 하늘을 감동시킨 심청이의 정성은 질병의 치유능력으로 발현되었으며 바리공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녀가 가진 치병의 권능 중 하나를 행한 것이다. 그리고 선을 원조하고 악을 징치한 것 역시 신으로서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심청이가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아버지 및 다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문장아기의 경우에서 잠시 말했듯 ‘눈이 어둡다’는 것이 무지와 판단능력의 부재를 뜻한다고 보았을 때 심봉사는 심청이를 만남으로 해서 자신의 잘못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심청은은 단순히 치병의 권능만을 가진 신이 아니라 용왕과 마찬가지로 바다의 풍랑을 가라앉힐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신으로 표현된다. 《맹인거리》의 주내용인 안질(眼疾)의 치유와 직접적 상관성은 떨어지지만 심청이가 다음과 같이 선인들에게 제물로 팔려서 인당수에 빠지자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진 것에서 그녀가 풍랑을 가라앉힐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1) 위의 책, pp.226-227.

요왕[龍王] 님요 제수(祭需)를 하면
 억취 만금[億數萬金] 티를 내어
 무사히 돌아오도록 점지 하소
 요왕 지[龍王祭]~ 지내는데
 물결이 잔잔하고
 고요하기 잠들었네
 제사를~ 다 지내고⁴²⁾

풍랑이 가라앉은 것이 단순히 제수(祭需)에 의한 것이라 보기보다는 그 희생물이 심청이 었기 때문에 풍랑이 가라앉은 것으로 본다면, 심청이가 용왕을 감동시켜 바다의 풍랑을 조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실제 곳을 할 때 《맹인거리》에서 용왕굿처럼 어선의 풍어과 무사귀환을 비는 것이다. 이것은 심청 이야기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무가만이 가진 독특한 성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유사주술과 접촉주술의 원리⁴³⁾가 작용하여 심청은 안질의 신이자 풍랑을 잠재우는 바다의 신으로 추앙받는 것이다.

2.1.5. 바리데기

바리데기는 무조신(巫祖神)이면서, 여섯 언니들과 함께 하늘에 칠성이 되었다. 바리공주를 주체로 《바리데기》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바리공주가 태어난다.
- 2) 일곱 번째 공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버림받는다.
- 3) 하늘의 선녀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장한다.
- 4) 다섯 살, 여섯 살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그 시절에 나오는 모든 책을 다 배운다.
- 5) 스물한 살이 되어 신령님으로부터 자신이 오구대왕의 일곱 번째 공주라는 것과 아버지를 구할 약물을 길으러 가라는 사실을 듣는다.
- 6) 어머니를 찾아 산을 내려가다 길대부인을 만난다.
- 7) 길대부인에게 속적삼을 보여주어 딸임을 알리고 회포를 풀다.
- 8) 대궐에 가서 아버지를 만난다.
- 9) 목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자 선녀처럼 된다.
- 10) 남장을 하고 서천서역에 약물을 길으러 간다.
- 11) 수미산 팔공사에 들러 하룻밤을 자고, 먹으면 백일동안 배가 고프지 않다는 공양미를 얻어먹는다.

42) 위의 책, p.171.

43) 유사주술과 접촉주술의 원리는 프레이저가 말한 주술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유사주술은 ‘유사가 유사를 낳는다’ 혹은 ‘결과와 원인과 동일하다’는 원리이다. 즉, 하나의 현상을 모방하여 자기가 소망하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접촉주술은 그 전에 서로 접촉했던 사물은 물리적인 접촉이 끝난 뒤 공간을 사이에 두고도 상호적 작용을 계속한다는 원리이다. 즉, 한번이라도 누군가의 신체에 접촉한 사물에 대해서 가해진 행위는 그것과 똑같은 결과를 그 인물에 초래하게 되리라고 결론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청이가 불러온 풍랑을 잠재우는 행위는 선인들에게 적용되며, 사람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그레엄 프레이저, 김상일 역, 「공감주술」, 『황금의 가치(상)』, 을유문화사, 1996).

- 12) 사십팔 고개를 넘다가 한 노인을 만나 서천서역 가는 길을 안내받는다.
- 13) 수양산 높은 산에 선생 세 분을 만나 동두산 동두천에 동수자를 찾아가라고 길을 안내받는다.
- 14) 가장을 살리려 가다 죽은 송나라 부인의 비각 앞에서 길을 묻자 허공에서 천태산 마고 할머니를 찾아가라고 한다.
- 15) 천태산 마고 할머니를 만나 염불공덕으로 검은 빨래를 백설같이 씻어주고 길을 안내받는다.
- 16) 눈 가는 노인을 만나 두더지의 도움으로 대신 큰 눈을 갈아주고 길을 안내받는다.
- 17) 염불 매는 스님을 만나 유사강(流沙江) 백마중을 건너 통도사로 가라고 길을 안내받는다.
- 18) 열두 고개를 넘어서 유사강 백마중을 배를 타고 건너 동두산 동두천 동수자를 찾아가 간다.
- 19) 동두산 동수자로부터 백일기도를 마쳐야 약물을 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 20) 백일기도를 끝내지만 동수자에게 여자임이 들켜 백년언약을 맺는다.
- 21) 일 년에 하나씩 삼년에 걸쳐 아들 삼형제를 낳아주고 동수자로부터 오색도화 다부사리꽃을 얻는다.
- 22) 유사강을 건너 불라국으로 가는 길에 군사들에게 포위당하지만 진언을 쳐서 벗어난다.
- 23) 길을 가다가 목동 아이와 부인들을 만나 오구대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24) 아들 삼형제에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오구대왕의 행상이 나가는 데로 간다.
- 25) 행상이 못 나가게 진언을 치자 여섯 언니들과 형부들이 도망간다.
- 26) 먼지가 되어 관에 있는 아버지를 오색도화 꽃을 꺼내어 살린다.
- 27) 살아난 오구대왕에게 허락없이 동수자와 혼인하여 아들 삼형제를 낳은 죄를 빈다.
- 28)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으로부터 죄가 없다고 인정받으며 외손봉사를 하게 된 것을 치하받는다.
- 29) 오구대왕이 여섯 딸과 사위들을 귀양보내려하자 용서하라고 한다.
- 30) 오구대왕의 명으로 여섯 언니와 함께 칠성이 되고, 아들 삼형제도 삼태성이 된다.

바리테기는 불라국의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이 백일기도를 해서 낳은 귀한 자식이었지만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다. 그러나 버림받은 바리테기는 청학 백학으로 인간세상에 내려온 선녀들에 의해 먹여 키워진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온 모든 책을 읽음으로써 인간세상을 배우고 인간의 도리를 배우게 된다.

바리테기는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이라는 두 신 사이에서 태어난 하나의 신이다.⁴⁴⁾ 게다가 바리테기는 선몽(現夢)을 통해 전생에 서왕모의 딸(선녀)로 별을 받고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바리테기가 무사히 성장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며 그것은 바리테기가 여신이기 때문이다.⁴⁵⁾

바리테기는 오구대왕이 병이 나자 신령님으로부터 부모님을 찾아서 서천서역에 약물을 구하러 가라는 말을 듣는다. 부모를 만난 바리테기는 자신이 부자유친의 도리를 알기 때문에

44) 오구대왕이 신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오구대왕이 신직을 결정하는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다.

45) ‘영웅의 일생’에서 구출·양육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바리테기는 무속의 여신이므로 영웅 대신 여신이라는 당위성을 가진다.

당연히 약물을 길으러 가겠다고 한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포용할 수 있는 도량은 바리테기가 가진 여신으로서의 포용성을 보여준다.

바리테기의 구약(求藥) 결정은 누군가로부터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운 삶의 방식인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본인의 선택이다. 그 점은 바리테기가 수동적인 여신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신임을 보여준다. 자신이 배운 대로 행하기 위해 서천서역으로 가는 것이며 이것은 약수를 구하러 가는 여정이자 여신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방법인 것이다.

집을 떠나 서천서역을 찾으러 가는 노정에서 바리테기는 여러 사람(신)을 만난다. 바리테기가 노정에서 만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노인과 선생님, 부인, 스님이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바리테기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나온 것은 청태산 마고 할머니로 이름이 나와있다는 것은 옛날에는 매우 중요한 여신 중 하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염불공덕으로 이 신들의 시험을 통과한 바리테기는 서천서역에 약물을 지키는 동수자를 만나게 된다. 동수자는 바리테기를 시험하는 마지막 신이다. 동수자는 원래 하늘나라 사람으로 옥황상제의 만제자인데 글 한귀를 잘못 지어 지하땅에 귀양을 왔다. 동수자가 귀양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지하땅 사람과 부부 언약을 맺어 아들 셋을 낳는 것이다.

바리테기는 남장을 하고 서천서역 약수를 찾아 떠났으며, 동수자를 만난 후에는 여자라는 것을 숨긴 채 무사히 백일기도를 드리지만, 마지막에 오줌갈기 내기를 통해 여자임이 밝혀져 동수자와 혼인하여 삼년에 걸쳐 아들 셋을 낳고, 오색도화(五色桃花) 다부사리⁴⁶⁾ 꽃을 얻게 된다. 동수자가 귀양에 풀려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수자는 이때부터 이 무속신화 속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⁴⁷⁾ 그러나 동수자는 엄연히 바리테기에 의해 구원당한 남신임에는 틀림없다.

바리테기는 약수를 구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군사들로부터 포위당하지만 관음보살로부터 받은 책으로 진언을 쳐서 여섯 언니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행상이 나가고 있던 아버지 오구대왕을 약수와 다부사리 꽃을 이용해 살린다. 바리테기가 들고 있는 약수와 다부사리 꽃은 관음보살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여신이 가진 물은 생명수의 이미지로 창조와 모성을 담당하는 여신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⁴⁸⁾

바리테기는 죽은 아버지를 살렸지만 오히려 부모에게 허락 없이 자식을 낳은 죄를 청한다.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은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바리테기의 경우에는 동수자로부터 약물을 얻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테기는 부모의 허락 없이 혼약을 맺고 자식을 낳은 불효의 죄를 청한다.

바리테기에게 죄가 없음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아들 셋을 낳아 외손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바리테기가 공주였기에 축출당한 사회에서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정당성이 부여된다. 이때야 비로소 바리테기가 아닌 바리공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

46) 다부사리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물건이다. 여기에서는 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무가자료에서도 대부분 꽃으로 나타난다.

47) 환웅, 해모수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화에 나타나는 남성 부재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8) 분석 심리학 영역에서 생명수(water of elixir)와 불로초, 혹은 생명수(philosopher's tree)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다. 『주역』에도 언급된 바 있지만 물은 여성성, 혹은 음(陰)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생명을 포함하는 수용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자궁 속의 물, 웅달샘 속의 물, 표주박 속의 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지만 그 핵심은 모두 생명 그 자체에 닿아 있다. 관세음보살을 그린 오래된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 거의 예외 없이 표주박이나 주전자 등을 들고 있거나, 연못, 파도 위에서 있거나 하는 등 물과 관련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이나미, 앞의 책, p.134).

한 것은 바리데기가 공주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지 신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리데기는 처음부터 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여신이 신성을 발휘하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이 부분은 어떤 신직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부모는 불효한 여섯 공주와 사위를 벌주려 하는데, 이때에도 바리데기는 부모를 설득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한다. 바리데기는 약물을 구해 돌아온 자신을 해치려 한 언니들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대신 받겠다고까지 한다. 바리데기가 부모를 위해서 약물을 구하러 간 행위와 언니들을 대신해 벌을 받겠다고 하는 행위는 바리데기의 윤리성을 부각시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한다.

바리데기는 효와 우애라는 인간의 도리, 윤리를 바탕으로 두고 행동한다. 자식을 버린 부모와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여섯 공주들과 비교하여 바리데기의 행동은 윤리적 정당성이 있다. 이러한 정당성은 신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준에서도 몇몇해야 한다는 한국신의 특징적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바리데기 무가를 향유하는 여성들은 바리데기 여신이 겪어야 하는 불합리한 사회적 축출과 고난을 제기하고 여성들이 실제 삶에서 이러한 고통을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2.2. 성숙한 어머니신

‘성숙한 어머니신’에는 길대부인, 당금애기의 어머니, 저승할망의 어머니, 심청이의 어머니, 원강아미, 여산부인, 노일제대귀일의 딸, 과양생이 각시, 명월각시, 황우양씨 부인, 강림이 큰부인, 짐치원님 부인이 해당된다.

2.2.1. 길대부인

길대부인은 바리데기의 어머니이다. 신직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오구대왕의 왕비로 평범한 인간이 아닌 신으로 보인다. 길대부인을 주체로 《바리데기》의 서사단락을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오구대왕과 혼인한다.
- 2) 연이어 여섯 딸을 출산한다.
- 3) 절에 시주하고 백일기도를 드려 선몽(現夢)을 받고, 바리데기를 출산한다.
- 4) 오구대왕의 명으로 바리데기를 버리러 천태산 버드랑산으로 간다.
- 5) 바리데기의 이름을 지어주고 통곡하다 아기를 잃어버린다.
- 6) 오구대왕이 병이 나자 옥녀무당을 찾아가서 단수(短蓍占)를 친다.
- 7) 여섯 딸들에게 서천서역 약물을 구해올 것을 부탁하지만 거절당한다.
- 8) 선몽(現夢)을 받고 바리데기를 찾아간다.
- 9) 바리데기를 만나 회포를 풀다.
- 10) 바리데기를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힌다.
- 11) 약물을 구하러 가는 바리데기에게 남북을 지어주고, 바리데기와 헤어진다.
- 12) 살아 돌아온 바리데기와 손자 삼형제를 만난다.

길대부인은 딸을 낳은 것을 알고 핫김에 외양간이나 마굿간에 버리라고 말하지만, 정작 오구대왕으로부터 천태산 버드랑산에 바리데기를 버리라는 명이 떨어지자 매우 변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아기에게 속적삼에 피로 바리데기라는 이름을 써주고 젖을 물려주고, 통곡한다. 길대부인은 어머니로서의 모정이 잘 드러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길대부인이 신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인간 어머니가 아닌 만물을 품고 포용하여야 하는 신으로서 모성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바리데기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바리데기의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축출될 정도로 바리데기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바리데기도 길대부인에게는 소중한 생명인 것이다.

오구대왕이 득병의 화소 이외에 신화 속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데 비해 길대부인은 선몽(現夢)을 받아 바리데기를 찾으러 간다든지 바리데기를 만나 젖을 물리고 목욕을 시키는 등 바리데기에게 남다른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온다. 또 바리데기가 낳은 아들 삼형제를 만났을 때는 손자를 끌어안고 어르는 장면이 많은 분량에 걸쳐 묘사되어 있다. 길대부인은 바리데기가 외손자 삼형제를 낳은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기뻐한다.

이 궁뎅이가 웬 궁뎅이고 니 궁뎅이는 금궁뎅이고 내 궁뎅이는 은궁뎅이가 이 궁뎅이를 두었다가 받을 살가 논을 살가

(중략)

이 궁뎅이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흔들다 보니 아들 삼형제 거동 보소 마 우루루루 달려 오드니마는 할머니들 치마 꼬리를 잡고 탁 떨어진다.

할머니를 치마 꼬리를 잡고 탁 떨어지니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고 금뎅이가 날아 오나 옥뎅이가 날아 오나 금수야 옥수야 노르개가 날아오나⁴⁹⁾

길대부인의 이런 말은 바리데기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길대부인이 손자들을 보고 노리개라는 말을 하는데 노리개는 부귀장수와 다산을 염원하는 기복적인 호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⁵⁰⁾ 길대부인은 이러한 발언을 통해 바리데기가 생산성을 가진 여신임을 입증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다. 길대부인은 여신의 어머니신으로 많은 딸을 낳은 생산성이 넘치는 여신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포용하는 이미지로 그려진 것이다.

2.2.2. 당금애기의 어머니

당금애기의 어머니는 그 신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의 길대부인과 마찬가지로 여신의 어머니로서 당금애기를 돌보고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여신이다. 당금애기의 어머니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하공사에 간 것으로 보아 역시 일반 인간이 아닌 여신으로 보인다.

당금애기의 어머니를 주체로 《세존굿》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지하공사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 2) 당금애기가 배가 부른 것을 보고 무당에게 물어본다.

49) 최정여·서대석, 앞의 책, p.395.

50) 김영균·김태은, 『땃줄코드』, 민속원, 2008, p.323.

- 3) 임신한 것이라 하자 무당을 옥하다가 당금애기에게 사실을 듣는다.
- 4) 임신한 당금애기를 죽이려하는 아들 아홉 형제를 만류한다.
- 5) 돌함에 갇힌 당금애기를 걱정한다.
- 6) 흠비 돌비가 내리자 돌함에 가서 당금애기를 만난다.
- 7) 당금애기와 외손자 삼형제를 별당으로 데려온다.

지하공사에 다녀와서 당금애기가 배가 불러있는 것을 본 어머니는 딸이 아픈 것이라 생각하고 걱정하며 무당에게 물어본다. 무녀가 임신한 것이라고 하자 당금애기를 의심하지 않고 무녀들을 옥한다. 그러나 당금애기가 임신한 것은 사실이다.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된 당금애기의 어머니는 남편과 의논하려 하지만 그 전에 아들 아홉에 의해 당금애기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

결국 당금애기는 아홉 오라버니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청으로 죽음을 모면하고 돌함에 갇히게 된다. 당금애기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금애기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당금애기가 피를 흘려 죽지 않고 돌함에 갇힐 수 있게 하여 상징적 죽음을 통해 환생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어머니였다.

2.2.3. 저승할망의 어머니

저승할망의 어머니인 서해용궁 어명국을 주체로 《불도맞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동해용궁 아방국이 동해용왕따님을 죽이려 하자 만류한다.
- 2) 동해용왕따님이 무쇠석갑에 갇혀 인간 세상에 나가게 되자 인간세상에 나가 할 일을 가르쳐준다.
- 3) 동해용왕따님에게 인간에 생불을 주는 법을 가르쳐준다.

저승할망의 어머니인 서해용궁 어명국도 앞서 나온 길대부인이나 당금애기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여신인 딸을 돕는 어머니로 나온다. 동해용왕따님은 불효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어머니가 남편을 설득하여 인간 세상에 내보내는 것으로 벌을 바꾼다. 그리고 딸에게는 인간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인간에게 생불을 주고 해산시키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서해용궁 어명국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2.2.4. 심청이의 어머니

심청이의 어머니인 옥진부인을 주체로 《맹인거리》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심봉사와 결혼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심봉사를 지성으로 봉양한다.
- 2) 자식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심청을 잉태하고 출산한다.
- 3) 산바라지를 하지 못하고 일하러 다니다가 중병을 얻어 죽는다.

- 4) 하늘의 선인이 되어 용궁에서 심청이와 만난다.
- 5) 심청이가 심봉사와 만나자 하늘에서 약물을 내려준다.

심청이의 어머니 역시 앞서 나온 길대부인, 당금애기의 어머니, 저승할망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여신인 딸을 돕는 어머니로 나온다. 심청이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현모양처형으로 심봉사를 봉양하며 살다가 딸인 심청이를 낳고 산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찍 죽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심청이가 죽어서 용왕궁에 오게되자 재회하고, 심청이가 심봉사와 만나게 되자 하늘에서 약물을 내려 심청이가 안질의 신이 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심청이의 어머니는 살아서는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죽어서 하늘의 선인이 되어 여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2.5. 원강아미

원강아미는 《이공본풀이》에 나오는 여신으로 서천꽃밭의 꽃감관인 원강도령의 아내이자 신산만산할락궁이의 어머니이다. 원강아미는 두 남성이 꽃감관으로 좌정하는 데 큰 공헌을 하며 본인도 서천꽃밭의 아이들을 돌보는 여신이다. 원강아미를 주제로 서사단락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원강도령과 열다섯 살에 혼인한다.
- 2) 스무살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 원강도령이 서천꽃밭 꽃감관에 제수 되었다.
- 3) 서천꽃밭으로 가는 도중에 발병이 나서 서천꽃밭으로 가지 못한다.
- 4) 자현장자(子賢長者)에게 종으로 팔려 원강도령의 노жат돈을 마련한다.
- 5) 자현장자로부터 고난을 당하면서 아들 신산만산할락궁이를 낳아 키운다.
- 6) 성장한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 행방을 묻는다.
- 7) 할락궁이의 도망으로 인해 장자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 8) 할락궁이가 가져온 다부사리꽃에 의해 살아난다.

임신을 한 원강아미는 서천꽃밭으로 함께 가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자현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린다. 계속 갈 수가 없으니 종으로 팔아 노жат돈이라도 하라고 원강아미가 자청하여 팔린 것이기는 하지만 원강도령은 말리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따른다.

결국 남편인 원강도령과 헤어져 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리면서 원강아미의 수난이 시작된다. 다음과 같이 원강아미를 탐내는 남성인 자현장자 때문에 주어지는 시련이다.

원강도령은 서천꽃밭(西天花田)으로 이별(離別)하여 나가고 원강아미는 종하님 사는데, 그 날 처낙부며 초이경(初二更)이 당하난 제인장제가 원강아미신디 ‘몸허락을 허라’ 하여 간다.

“이 고을 풍습(風習)은 어찌하나 모르쥬 우리 믈을 풍습은 벤 아기가 나사 몸허락을 허는 법입네다.”

“어서 걸랑 그리허자.”

벤 아기가 나고 보니 아들즈식 솟아나니 ‘신산만산할락궁이’로 일름을 지와두고, 그날 밤부며 제인들어 제인장젠 몸허락을 허라 하니,

“이 고을 풍습(風習)은 어찌하나 모르쥬 우리 믈을 풍습은 나온 아기 열다섯 십오세가 쥬

여사 몸허락을 하는 범입네다.”⁵¹⁾

원강아미는 피를 내어 자현장자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난다. 원강아미는 자현장자의 요구로부터 겨우 벗어나지만, 다시 아들 할락궁이가 다음과 같이 시련을 준다.

“어머님아 어머님아, 이제도 바른말 못하쿠가? 우리 아버지 간 딜 곶아줍서.”
“이 손 노라, 곶아주마.”
손을 노난 어머님이 말을 하네,
“너의 아버지는 서천꽃밭(西天花田) 꽃감관 꽃생인(花監官 花聖人)이 돼여진다.”
“어머님아 계건 내 아바질 좃아가커메 어머님이 죽는 혼(限)이 셔도 나 간 딜 이르지 맘 서. 어머님아 장계칩(長者家)의 모뎀장막이나 털엉 모뎀뎀뎀 식 탕이만 허여 줍서.”⁵²⁾

아들인 할락궁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가르쳐달라고 조르다가 원강아미가 자현장자라고 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자 콩을 볶고 있던 솥에서 손바닥을 떼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인 원강도령을 찾아가겠다고 어머니에게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장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 원강아미는 할락궁이를 혼자 키운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할락궁이는 신이 되어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⁵³⁾

결국 원강아미는 자현장자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원강아미의 이 죽음은 서천꽃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난 할락궁이가 환생꽃을 이용해서 원강아미를 살리고 멸망꽃(또는 악심꽃)을 이용해서 장자에게 원수를 갚으며 할락궁이가 신으로서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남편 때문에 증으로 팔리고 아들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원강아미의 희생은 무속신화의 다른 여성에 비해서 그 시련의 정도가 크다. 눈물과 핏물로 강을 이루어 아들이 서천꽃밭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인신공희적, 희생양적인 성격은 어머니가 가진 모성 안에 희생이 숨어 있음을 보여준다.

2.2.6. 여산부인

여산부인은 조왕신(竈王神)이다. 여산부인을 주체로 《문전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남편 남선비와 아들 일곱을 낳고 간곤(艱困)하게 산다.
- 2) 남선비에게 무곡장사(貿穀商)를 권유한다.
- 3) 무곡장사를 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선비를 찾으러 가려고 아들 일곱 형제에게 배(前船 獨船)를 만들어달라고 한다.
- 4) 아들 일곱 형제가 만들어준 배로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간다.

51) 현용준, 『濟州道 巫俗資料事典』, p.126.

52) 위의 책, pp.127-128.

53) 물론 심부담(尋父談)이 어머니의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장성하여 아버지를 찾아가는 구조를 뜻하는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가는 것은 그가 영웅이 되거나 신의 업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모신에게 ‘죽는 한이 있어도’라는 강력한 언사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그 말처럼 실제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드물다.

- 5) 기장밭(黍田)에서 새 쫓는 아이들의 노래를 듣게 된다.
- 6) 새 쫓는 아이들에게 영초(英納)뎡기를 주고 길을 물어 남선비를 찾아간다.
- 7) 자신을 몰라보는 남선비에게 부엌을 빌린다.
- 8) 나주영산(羅州靈山) 은옥미(銀玉米)로 저녁밥을 지어 남선비에게 준다.
- 9) 밥을 먹고 우는 남선비에게 자신이 여산부인임을 밝힌다.
- 10)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꾀임에 빠져 주천강에 함께 목욕 갔다가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죽임을 당한다.
- 11) 일곱 아들의 꿈에 선몽(現夢)하여 산에서 내려오는 노루를 잡으라고 가르쳐준다.
- 12) 일곱 형제가 주천강에서 신체를 찾아 도환생꽃으로 살린다.
- 13) 누웠던 자리의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위의 여섯 아들이 주먹으로 짚고, 막내인 녹디생인이 한번 더 짚어 시룻 구멍이 일곱 개가 된다.
- 14) 막내 녹디생인의 말에 의해 부엌의 삼덕조왕신이 된다.

여산부인은 초반에 매우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남편에게 무언가를 제시하고 남편은 그것을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집안이 간곤하였기 때문에 먹고 살 수단이 필요했고 여산부인은 남편에게 무곡장사를 제안한다. 남편은 여산부인의 말대로 무곡장사를 하러 떠나게 된다. 남편이 오동고을로 무곡장사를 가서 돌아오지 않자 배를 만들어 찾아가는 것에서도 여산부인의 능동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오동마을까지 남편을 찾아갔지만 정작 남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여산부인이 지은 밥맛을 보고 자신도 예전에는 이런 밥을 먹었다며 운다. 남선비가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눈이 어둡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무지와 무능력을 뜻한다.⁵⁴⁾ 사실 남선고을에서도 남선비가 크게 어떤 역할을 한 내용이 없다. 남선비는 부인에 의해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수동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산부인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에 의해 물에 빠져 죽게 되면서 가정을 빼앗기게 된다. 지금껏 이 가정은 여산부인의 보호 또는 질서 아래에 놓여있었지만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넘어가게 된다. 결국 아들들에 의해 노일제대귀일이 죽고 나서야 여산부인은 환생꽃으로 다시 살아나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된다. 막내 녹디생인이 어머니는 추운 곳에 계셨으니 따뜻한 부엌의 조왕신이 되라고 말하여 부엌의 삼덕조왕신이 되는데, 녹디생인이 어머니를 생각하여 그러한 신직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원래 하던 일을 생각하여 그러한 신직을 부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산부인이 원래 하던 일은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집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은 불이며 이는 곧 화덕, 부엌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산부인이 조왕신으로 좌정한 것은 그녀가 가정을 보호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2.2.7. 노일제대귀일의 딸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측간(廁間)의 신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주체로 《문전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54) 심청곳의 심봉사나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의 부모들과 같이 맹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눈이 어둡다, 눈이 멀었다’는 의미에서는 통하는 부분이 있다.

- 1) 남선비에게 내기바둑을 제안한다.
- 2) 남선비의 배(前船獨船)를 차지한다.
- 3) 남선비가 다른 여인과 있는 것을 보고 욕을 한다.
- 4) 다른 여인이 여산고을 큰부인이라는 것을 듣고 목욕을 제안한다.
- 5) 여산부인을 물에 빠뜨려죽이고 여산부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
- 6) 남선비에게 여산부인인 척 하여 남선고을로 같이 간다.
- 7) 집을 찾아가려고 골목을 헤매고, 밥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다.
- 8) 거짚으로 복통을 일으켜 남선비에게 문복을 하라고 제안한다.
- 9) 지름길로 가서 문복쟁이로 변장하여 남선비에게 일곱 아들의 간을 먹이라고 말한다.
- 10) 막내 녹디생인이 가져온 간 여섯을 먹는 척 한다.
- 11) 마지막으로 녹디생인의 간을 먹으려 하자 녹디생인과 여섯 형들이 달려든다.
- 12) 뒷간에 가서 목을 메어 죽자 일곱 형제가 양다리를 뜯어 드릴팡을 만들고, 머리는 돛도고리로 만든다.
- 13) 머리카락은 해조류가 되고, 손톱 발톱은 조개가 되고, 배꼽은 굽벙이가 되고, 하문은 전복이 되고, 육신은 바람에 날려 각다귀와 모기로 환생한다.
- 14) 녹디생인이 정한 바에 따라 측간의 신이 된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사악한 악인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⁵⁵⁾ 그러나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주체로 서사단락을 살펴봤을 때는 의외로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전형적인 악인만은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오동고을에서의 남선비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 남선비는 내기바둑을 통해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재산을 뺏겼으며, 재산을 잃은 남선비를 비조리초막에 두는 것으로 보아 남선비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관계가 단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랬기에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남편이 다른 여인과 말을 하는 것을 보고는 질투를 하며 따지지만, 남편이 여산부인이 큰부인이라고 하자 그제서야 자신이 처가 아닌 첩임을 알게 된 것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 역시 남선비와의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초반부의 여산부인처럼 능동적인 인물이다. 남선고을에서 남선비가 여산부인에 의해 삶의 방식이 결정되었듯 오동고을에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에 의해 남선비의 삶의 방식이 결정된다.

능동적인 두 여신,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만난 순간부터 이 두 여신의 성격은 변화된다. 한 집안에 두 명의 주부가 있을 수는 없고, 능동성이 강했던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처가 아닌 첩이 된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여산부인을 죽이고 자신이 여산부인의 옷을 입어 변장하는 것으로 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집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 밥상도 제대로 차릴 수도 없으므로 남선고을에서는 집안의 주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게다가 여산부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어린 아들이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되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처지였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눈이 어두운 남선비 대신 장성한 아들 일곱이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대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치는 전설 자식과 계모 사이의 대결

55) 이지영, 「〈문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상징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는 자식과 나쁜 어머니⁵⁶⁾의 대결로 볼 수 있겠다. 일곱 형제는 계모의 질서에서 벗어날 기회를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위기감을 벗어나기 위해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문복장으로 변장하여 남선비를 속이고, 눈이 어두운 남선비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들 일곱을 죽이려 한다.

일곱 형제의 죽음을 막는 것은 이웃에 살던 불을 얻으러 온 청태산 마고할미⁵⁷⁾이며, 마고할미는 일곱 형제에게 사정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막내인 녹디생인은 아버지인 남선비와는 대조적으로 능동적인 남성으로 나오며 어머니 여산부인을 되살리는 데 크게 기여한다. 녹디생인에 의해 모든 것은 제 위치를 찾는다. 그것이 신직의 결정이며,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측간의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그리고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공존할 수 없듯이 부엌과 측간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부엌과 변소의 존재양식상 제약은 처첩의 관계에 있는 조왕신과 측간신의 상호관계로 설명된다.

2.2.8. 과양생이 각시

과양생이 각시는 짐치원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장을 내어서 결과적으로 강림이가 염라대왕을 잡아오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과양생이 각시를 주체로 《체사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물 말은 밥을 얻어먹으러 온 버무왕 아들 삼형제를 박대한다.
- 2) 원래 중이 아니라는 셋째의 말을 듣고 개가 먹던 바가지에 물 세 술, 밥 세 술을 준다.
- 3) 버무왕 아들 삼형제가 보답으로 명주를 주자 재물을 탐내서 삼형제를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연못에 빠뜨린다.
- 4) 연못에 핀 꽃 세 송이가 너무 예뻐서 꺾어오지만 그 꽃이 자신을 화나게 하자 화로에 집어던져 태워버린다.
- 5) 화로에서 삼색의 구슬 세 개를 발견하여 입에 물었다가 잉태를 한다.
- 6) 한 날 한 시에 아들 삼형제를 낳아서 키운다.
- 7) 아들 삼형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집으로 오지만 절을 하다가 까닭없이 일시에 죽는다.
- 8) 짐치원님에게 아들이 죽은 이유를 밝혀내라고 뉘달한다.
- 9) 염라대왕에 의해 버무왕 아들 삼형제를 죽인 죄상이 드러난다.
- 10) 모기와 각다귀로 환생한다.

과양생이 각시는 악인형 인물로 남의 아들 삼형제를 스님이라고 박대하다가 재물을 탐내서 죽이게 된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 삼형제가 한 날 한 시에 죽자 짐치원님에게 이런 일

56) 분석 심리학에서는 대극의 합일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선과 악의 대립, 여성과 남성의 대립,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대립, 본능과 양심의 대립 등 우리 심성 속에는 매우 다양한 대립이 항상 일어나지만, 그 대립이 해결되고 변화하는 과정 중에 보다 더 성숙하고 큰 진짜 자기를 만들어 가게 된다.(이나미, 『용,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 민음인, 2010, p.142).

57) 이 청태산 마고할미 역시 다른 신화 속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로 이름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에는 특별한 신앙의 대상이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할머니 원형에 대해서 논의할 때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이 어디 있느냐며 소장을 낸다. 과양생이 각시의 아들 삼형제는 원래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가 환생한 것이다. 과양생이 각시의 아들 삼형제가 죽은 것은 과양생이의 죄를 벌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슬픔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과양생이 각시는 악인형 인물로, 사람을 죽이는 등 악독한 모습을 보이지만 버무왕 아들 삼형제가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환생하여 결국은 명을 연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또 강림이가 염라대왕을 잡아와 저승차사가 되게끔 하는 인물이다. 과양생이 각시는 이야기 진행에 필수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남편인 과양생이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악행을 저지른다.

2.2.9 명월각시

명월각시는 이름 그대로 밝은 달의 신이다. 여성이 달을 상징한다는 문화적 상징을 생각하면 이 이름 역시도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 명월각시를 주제로 《일월노리 푸념》의 서사 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궁산이와 결혼한다.
- 2) 궁산이가 나무를 하러가지 않자 밥을 굶게 된다.
- 3) 궁산이에게 자신의 화상을 그려주며 나무를 해오라고 한다.
- 4) 궁산이가 식음을 전폐하자 그 이유를 묻는다.
- 5) 궁산이의 내기장기 얘기를 듣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 6) 배선비에게 끌려가게 되자 닷새의 말미를 얻는다.
- 7) 닷새동안 포육을 만들고, 궁산이의 바지·저고리에 솜을 넣고 명주실과 바늘 한쌍을 옷깃에 이어놓는다.
- 8) 배선비가 궁산이를 섬에 내려와 궁산이와 헤어지게 된다.
- 9) 배선비네 집에 간 뒤 말을 하지 않는다.
- 10) 걸인잔치 사흘을 해주면 말을 하겠다고 한다.
- 11) 걸인잔치 사흘동안 못얻어먹은 궁산이를 보고 단상을 지어 따로 먹인다.
- 12) 구슬옷을 던지며 입는 사람을 낭군으로 삼겠다고 한다.
- 13) 궁산이가 구슬옷을 입었다 벗고 배선비는 벗는 법을 몰라 궁산이와 다시 살게 된다.
- 14) 죽은 뒤 혼령이 일월신이 된다.

다음과 같이 남편인 궁산이가 배선비의 내기장기에 지면서 명월각시의 수난은 명월각시를 탐내는 남성인 배선비로부터 오게 된다.

할수없어명월각씨// 주계되여집에도라가
자리를피고니지못하여// 밥두아니먹는고나
명월각씨가무려보되// 어더래서진지를안이잡소
내기장기두었는데// 아랫턱헤배선비가
생금한배섯구와서
배선비가지면// 생금한배나를주고
내가지면마누래를// 주마하여내가젓네⁵⁸⁾

명월각시는 피를 내어 계집종을 자신으로 치장하고 자신은 계집종으로 위장하지만 배선비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집종으로 꾸민 명월각시를 데려가려 한다. 결국 궁산이와 헤어질 수밖에 없음을 안 명월각시가 다음과 같이 닳새 말미를 얻어 궁산이가 혼자 남았을 때를 대비한다.

명월각씨가하는말이
다섯수만주면// 다섯만에가갓소
배선비가그러시오하고
배선비가가서다셋후에
소를자바포육을떼서// 땡글네서말니위스
궁산이바디저고리에// 소음을만히두고
명디꾸리한나바늘한쌈// 옷깃에니어주니
배선비가또대리러왔네⁵⁹⁾

명월각시는 헤어진 동안 궁산이가 굶지 않도록 말린 옥포와 바늘, 명주실꾸리, 솜을 바지저고리에 숨겨두었으며, 궁산이가 거지가 될 것을 미리 알아서 배선비에게 걸인잔치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 명월각시의 이런 예지에 의한 행동들은 현실 속에서 주부가 옷을 만들고 식사 준비를 하는 것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또 다음과 같이 궁산이가 온 것을 알자 궁산이만 입고 벗을 수 있는 구슬옷을 내밀어 그것을 입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한다.⁶⁰⁾

명월각씨가말하기를
구슬옷을내티면// 이웃을깃을잡아고돌추어
입어면거랭이래두// 내낭군이러하니
거렁이들이모도// 입을나니못넘는다
궁산이가고돌추어// 깃을잡아입어노니
배운동턴에나뻐다가// 도루내려왔네⁶¹⁾

궁산이는 구슬옷을 입고 백운중천에 뻐다가 내려오게 되지만 배선비는 입는 법만 알고 벗는 법을 몰라서 내려오지 못하고 하늘에 솔개가 되었다. 명월각시가 궁산이에게 준 구슬옷은 보통 옷이 아니라 백운중천에 떠오를 수 있게 하는 태양신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구슬옷을 자유자재로 입고 벗을 수 있는 궁산이가 태양신이 된다.

명월각시는 구슬옷을 제공함으로써 궁산이가 배선비에게서 아내를 되찾고 본인의 신적인 권능을 갖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으로 보아 <삼국유사>에서 비단을 짜서 일월의 빛을 찾게 한 세오녀처럼 명월각시 역시 구슬옷을 통해 궁산이와 함께 일월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궁산이는 구슬옷을 입는 그 순간 태양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월각시는 남편 궁산이가 갖지 못한 신적인 권능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⁶²⁾ 그러나 명월각시

58) 손진태, 앞의 책, p.143.

59) 위의 책, pp.145-146.

60) 구전설화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주로 우렁각시 이야기의 변이형으로, 《일월노리 푸념》과 거의 유사하지만 구슬옷이 아니라 새 깃털옷이 등장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61) 손진태, 앞의 책, p.149.

62)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와 유사한데 연오랑이 일본에 갔을 때도 무사하던 일월의 빛이 세오녀가 일본으로 가니 빛을 잃었다는 것으로 세오녀가 연오랑보다 더 위력이 큰 신으로 추측하는 것처럼 명

의 신적인 면모에 대한 이야기는 부각되지 않고 공산이가 가진 태양신의 면모만이 강조되어 있다.

2.2.10 황우양씨 부인

황우양씨 부인을 주체로 《성주본가》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황우양씨가 식음을 전폐하자 그 이유를 묻는다.
- 2) 황우양씨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 3) 소지를 지어 천하궁에 올려 연장을 마련하고 의복을 짓는다.
- 4) 천하궁으로 떠나는 황우양씨에게 말대척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 5) 시녀들과 꽃구경을 갔다가 말발굽 소리에 대문을 걸어잠근다.
- 6) 소진랑이 던져준 속적삼바지를 보고도 땀내가 다르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 7)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온 소진랑에게 잡히게 된다.
- 8) 소진랑에게 시아버지 제사를 핑계로 시간을 번다.
- 9) 명주한삼소매에 피로 글을 써서 주춧돌 밑에 넣고 소진뜰로 끌려간다.
- 10) 몸에 귀신이 들었다 하여 구메밥 삼년을 핑계로 시간을 번다.
- 11) 찾아온 황우양씨와 힘을 합쳐 소진랑을 징치한다.
- 12) 천하궁에 소지를 올려 받은 애기누에로 베를 짜고 옷을 지어 재주를 자랑한다.
- 13) 황우양씨에 의해 지신(地神)이 된다.

황우양씨의 부인은 황우양씨가 얻은 사흘말미 동안 남편이 천하궁을 짓는 공사를 하러 갈 수 있도록 연장과 의복을 마련해준다. 그 방법은 소지를 하는 것으로 황우양씨의 부인이 하늘에 기도하니 하늘이 필요한 것을 들어준다. 소지 역시 가정에서 여성이 다루는 불과 관련이 있으며, 소지를 하는 모습은 불이 재가 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이다. 이것이 하늘에 연결되는 임시적 우주목 역할을 하고 있다. 소지는 불과 우주목이라는 두 가지 원형을 묶어서 표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불이라는 것은 여성이 가정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황우양씨 부인은 예지의 능력을 보이면서 황우양씨에게 말대답을 하지 말라는 금기를 준다. 그러나 황우양씨는 소진랑의 꾀에 넘어가 말대답하지 말라는 부인의 말을 어기고 심지어 옷을 바꾸어 입게 된다.

결국 부인의 미모를 탐내는 남성 소진랑으로부터 황우양씨의 부인의 수난이 시작된다. 소진랑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유혹하지만, 황우양씨의 부인은 시아버지의 제사나 일곱 귀신이 썩인 것을 핑계로 소진랑의 요구를 거부한다.

지혜로운 황우양씨의 부인은 남편에게 찾으러 올 것을 부탁하는 징표를 남겨놓았다. 흉몽을 꾸고 돌아와서 징표를 본 황우양씨는 소진뜰로 가서 부인과 재회하고, 소진랑을 행인들의 침이나 받아먹는 서낭신(城隍)이 되게 하여 원수를 갚는다. 그리고 재회한 황우양씨 부부는 각각 성주와 지신으로 좌정한다.

황우양씨의 부인은 남편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연장과 의복을 마련해주는 능력을 받

월각시 또한 공산이보다 더 큰 위력을 갖고 있던 신격임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여신이 가지는 생산과 재생의 특성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휘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기다리고 정조를 지킴으로써 윤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2.2.11 강림이 큰부인

강림이 큰부인을 주제로 《체사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도고방아를 찼다가 강림이가 오는 것을 보고 원망하는 말을 한다.
- 2) 강림이가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밥상을 차려서 들어간다.
- 3) 강림이가 식음을 전폐하자 이유를 물어본다.
- 4) 소지를 하고 시루떡으로 집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 저승 가는 법을 알아내고 강림이의 의복을 마련한다.
- 5) 강림이를 저승으로 보내고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제사를 지낸다.
- 6) 돌아온 강림이를 만나고 본메인 귀없는 바늘 한쌍을 확인한다.
- 7) 강림이가 짐치원님의 선택 때문에 죽게되자 짐치원님에게 달려들어 화를 낸다.
- 8) 강림이 큰부인이 한 대로 제사법이 마련된다.

강림이의 큰부인은 강림이가 저승차사가 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강림이는 무능력한 인물로, 짐치원님으로부터 죽는 대신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라는 명을 받는다. 강림이는 죽을 때가 되어서야 첫날밤에 소박을 놓은 큰부인이 생각났고, 큰부인의 집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한다.

무능력한 강림이에 비해 강림이 큰부인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인물로, 강림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강림이 큰부인은 소지를 올리고 나주영산 은옥미를 이용해 시루떡을 만들어 조상에게 제사를 올린다. 옛날 여성들이 큰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조상을 섬기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것을 강림이 큰부인이 가진 능력으로 한 것은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며, 가정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2.2.12 짐치원님 부인

짐치원님 부인을 주제로 《체사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짐치원님이 과양생이 각시로부터 모욕을 당하자 짐치원님 부인이 피를 낸다.
- 2) 소속된 관장을 시켜 염라대왕을 잡아오기로 한다.

짐치원님 부인은 강림이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게끔 만드는 인물이다. 결정은 짐치원님의 명이었지만, 그것은 사실상 짐치원님 부인의 피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체사본풀이》에 등장하는 모든 남성들은 여성의 지략에 의해 임무를 완수한다고 볼 수 있다. 악행이지만 과양생이와 과양생이 각시가 그러했고, 강림이와 강림이 큰부인, 짐치원님과 짐치원님 부인이 그러한 관계를 가진다.

2.3. 짧은 할머니신

‘짧은 할머니신’에는 저승할망과 이승할망, 선문대할망이 해당된다.

2.3.1 저승할망

저승할망은 동해용궁따님이다. 동해용궁따님을 주체로 《불도맞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구월 초아흐렛날 동해용궁 아방국과 서해용궁 어명국 사이에서 태어난다.
- 2) 열다섯 살이 되자 한, 두 살 때 부모에게 불효한 죄로 죽이기로 한다.
- 3) 서해용궁 어명국에 의해 무쇠 석갑에 갇혀 동해바다에 띄워지게 된다.
- 4) 서해용궁 어명국으로부터 인간세상의 생불왕이 되어 생불 주는 법을 배운다.
- 5) 아버지의 성화에 의해 행복시키는 법을 못 배운 채로 인간 세상에 나가게 된다.
- 6) 임박사에 의해 무쇠 석갑이 풀리고 임박사의 아내에게 환생을 시킨다.
- 7) 해산하는 법을 몰라 임박사의 아내와 아기가 죽어가자 도망간다.
- 8) 수양버드나무 아래에서 울다가 멩진국따님애기를 만난다.
- 9) 멩진국따님애기가 생불왕이라고 하자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
- 10) 멩진국따님애기의 제안으로 옥황상제의 분부대로 하기로 한다.
- 11) 생불왕 자리를 두고 옥황상제 앞에서 꽃피우기 대결을 한다.
- 12) 꽃피우기 결과에 따라 저승할망이 된다.

저승할망은 열다섯 살이 되어서야 한, 두 살 때 불효한 죄로 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벌받음은 일종의 ‘내쳐짐’의 모티브로 보인다. 갑자기 쫓겨난 듯 한 상실감을 부여함으로써 자립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쇠석갑에 갇힌 채로 바다를 통해서 인간에 나오게 된다. 이 무쇠석갑에 갇혔다 풀린 것은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죽음과 재생이라는 모티프를 실현하고 있음이다.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어머니로부터 인간에 가면 생불왕이 되라는 말을 듣고 환생시키는 법은 배우지만 아버지로 인해 행복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아직 미숙한 동해용궁따님애기는 결국 생불왕의 자리를 두고 멩진국따님애기와 싸우게 된다.

여신들은 꽃피우기 경쟁을 통해 싸우게 되는데 결국 시든 꽃이 피는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저승할망이 된다. 동해용궁따님애기가 화를 내려하자 다음과 같이 이승할망이 저승할망을 화해로 유도하여 경쟁이 평화롭게 끝난다.

인간할망이 말을 하네

“그리 말고 우리 조은 믿음하기 어찌하겠느냐? 내 인간에 노력상 생불(生佛)을 주민 저승 걸레 아홉자도 저인정(人情) 걸어주마, 걸레삼승 업게삼승 저인정 걸어주마. 아기에머령 현페 머리 뚫든 적삼 뚫든 치매 저인정 걸어주마.”

“어서 걸랑 그리하자”⁶³⁾

63)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115.

동해용왕 따님과 맹진국 따님애기의 인세차지 경쟁은 《창세가》나 《천지왕본풀이》에 각각 나타나는 ‘미륵:석가’, ‘대별왕:소별왕’의 인세차지 경쟁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꽃피우기 시험은 둘 중에 누가 이승의 생명을 관장할만한가를 알아보는 자격시험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남신들의 경쟁과 달리 여신들의 경쟁에서는 속임수로 인해 승부가 뒤집히지 않으며, 억울하게 승부에서 진 저승의 신이 인간 세상에 저주를 퍼붓지도 않는다.

2.3.2 이승할망

이승할망은 맹진국따님애기이다. 맹진국따님애기를 주체로 《불도맞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금부도사에 의해 노각성자부줄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
- 2) 옥황상제의 마음에 들어 환생을 주고 행복시켜 생불을 주는 법을 배운다.
- 3) 인간세상에 내려와 울고 있는 동해용왕따님을 만난다.
- 4) 자신이 옥황상제의 분부를 받은 인간생불왕이라 밝혔다가 동해용궁따님애기에게 머리채를 잡혀 싸우게 된다.
- 4) 동해용궁따님애기에게 옥황상제에게 분부를 받을 것을 제안한다.
- 5) 생불왕 자리를 두고 옥황상제 앞에서 꽃피우기 대결을 한다.
- 6) 꽃피우기 결과에 따라 이승할망이 된다.
- 7) 저승할망에게 좋은 마음을 먹자며 인정을 주겠다고 한다.
- 8) 번성꽃과 환생꽃을 들고 인간 세상에 내려간다.(여기까지가 <할망본풀이>이다).
- 9) 서천강다리에서 대별상에게 얼굴에 곱게 호명하여 줄 것을 공손히 빈다.(여기부터가 <마누라본풀이>이다).
- 10) 대별상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자손들의 얼굴이 마마로 인해 험하게 만든다.
- 11) 대별상의 부인인 서신국마누라에게 유태를 시키고는 행복을 시키지 않는다.
- 12) 대별상으로부터 잘못을 시인받고 서천강 연다리를 요구한다.
- 13) 대별상이 놓은 서천강 연다리를 밟고 서신국에 가서 마누라를 행복시킨다.

맹진국따님애기는 인간에 노각성자부줄을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 두 여신이 세상에 나오는 방법은 다르다. 그러나 이 두 여신이 결국은 하나의 여신임을 상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너이덜 얼굴 보긴디는 어느 누게 구별홀 수 엇어지고, 생불(生佛) 환생(還生) 주는 디도 어느 누게 구별홀 수 엇어진다. 천계왕을 불르라. 벽계왕을 불르라. 꽃씨 두 방울을 내여주건 서천서약국(西天西域國) 계모살왓디 꽃씨(花種) 두 방울을 싱경 꽃번성(花繁盛)흐는 대로 생불왕을 구별호리라.”

계모살왓디 꽃씨를 드렸더니 고장(花) 번성호는 것이 동이용궁 따님애기 꽃은 보난 불리(根)도 웨불리(單根) 가지고 웨가지 송애(筍)도 웨송애(單筍) 금뉴울꽃 꿩고 맹진국 꽃은 보난 불리는 웨불리요, 가지 송앤 스만 오천 육백 가지 번성웨난 옥황상저이 꽃빈장을 가니, 옥황상저이 말을 호웨

“동이용궁 꽃은 보난 금뉴울꽃이 되니 저승할망으로 들어사곡, 맹진국 꽃은 보난 번성꽃

이 웨니 인간할망으로 들어사라.”⁶⁴⁾

옥황상제가 얼굴을 보고는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두 여신이 같은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것은 한 여신의 두 인격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삼신할망이라는 용어가 산신(産神)을 뜻하는 것이므로, 삼신할망은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다. 출산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순간이며, 곧 성과 부정이 공존하는 순간이다.⁶⁵⁾ 여성이 월경을 통해 성과 부정을 함께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의 표상은 이승할망이, 부정의 표상은 저승할망이 맞는 것이다. 융 심리학에 대비해보자면, 착한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의 동양식 표현이라 할 수도 있다.

여신들이 조화롭게 좌정하고 난 뒤 이승할망은 대별상이라는 신과 대결하게 된다. <마누라 본풀이>에서 삼승할망은 생불을 준 자손을 곱게 호명(=호명정구. 마마)해줄 것을 마마신인 대별상에게 부탁하지만 대별상이 오히려 삼승할망을 여성이란 것은 꿈에만 보아도 사악한 것인데, 남성이 지나가는 데 붙잡는다며 모욕한다. 대별상의 모욕을 받은 삼승할망은 바로 대별상의 징치에 들어간다. 대별상의 부인 서신국마누라에게 생불을 주고 출산은 시키지 않자, 결국 삼승할망의 능력이 필요해진 대별상은 스스로 찾아와 잘못을 빌게 된다. 대별상이 서천강연다리를 놓고 뉘우치자 삼승할망은 대별상 부인을 해산시켜준다.

삼승할망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인 남신 대별상에게 본인의 능력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 주어 굴복시킨다.

2.3.3 선문대할망

선문대할망은 제주도를 창조했다는 신화 속 여신으로, 선문대할망, 선마고, 설문지할망 등으로 불린다. 앞서 말한 《표해록》의 기록에 의하면 선문대할망은 실제로 제주도 사람들에게 백록선자, 선마고 등으로 불리는 제주도의 수호신격이었다.

선문대할망을 중심으로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선문대할망은 키도 크고 힘도 세다.
- 2) 밭을 각각 사라봉과 물장오리에 디디고 빨래를 하다가 족두리가 떨어져 족감석이 생겼다.
- 3) 하늘과 땅이 붙어있을 때 하늘과 땅을 떼어버리고 물을 파서 제주도를 만든다.
- 4) 흙으로 길을 메우려하다가 흙이 떨어져 오름이 되고 한라산과 도두봉이 되었다.
- 6) 허리⁶⁶⁾만 주면 목포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사람들에게 제안한다.
- 7) 사람들이 명주를 다 구하지 못해 허리를 만들지 못해서 다리를 놓지 않는다.
- 8) 어느날 선문대하르방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한다.
- 9) 선문대하르방이 한라산 꼭대기에 가서 대변과 소변을 보게 해 산뿔(산돼지)과 노루를 잡으라 한다.
- 10) 도망치는 산뿔과 노루를 다리를 벌려 잡고 일년 반찬으로 먹는다.

64) 위의 책, p.114.

65) 성과 부정이라는 개념은 최길성의 견해를 따랐다. 최길성은 이렇게 성과 부정이 공존하는 순간을 속이라고 하였다.(최길성, 『韓國巫俗論』, 형설출판사, 1981, pp.197-199).

66) 치마 같은 옷의 허리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다산의 상징이 되는 치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선문대할망》 설화는, 무당이 구연한 무속신화가 아니라, 일반인 구연자로부터 채록한 설화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단락의 순차적 구조에 따라 매끄럽게 구연된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없는 몇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루어세화의 분량루어 많지 않피소드여섯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선문대할망은 거인신(巨人神)의 면모와 천지개벽신(天地開闢神) 및 있형창조신(地形創造神)의 직능을 보여준다. 선문대할망이 신이 되는 과정은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신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선문대할망은 태초의 거인신이라 볼 수 있다. 거인설화의 핵심적 화소인 거구(巨軀), 대의(大衣), 대식(大食), 거근(巨根), 배설(排泄)의 화소⁶⁷⁾는 선문대할망이 거인신이라는 것의 증명에서 더 나아가 신으로서 과업을 완수하는데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선문대할망은 거구였기 때문에 천지개벽신으로서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고 제주도를 만들 수 있었다. 또 지형창조신으로서 족두리 하나가 떨어져 바위가 되었다는 족감석을 생기게 하고, 제주도의 많은 오름과 한라산, 도두봉을 만든다. 또 제주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를 놓을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구라는 특성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선문대할망의 옷⁶⁸⁾은 일반인이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명주가 든다. 일반인이 신의 옷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그로 인해 선문대할망이 육지로 연결되는 다리를 놓지 못했다는 것은 제주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의 되었다.

그러나 설화로 그 장르가 바뀌면서 선문대할망의 창조신적 면모에도 불구하고 그 위력을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설화 속에서 선문대할망을 희화화(戲畫化)시키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구연자는 희화화된 부분을 말하기 전에 조사자들에게 녹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으로 구연자 스스로 희화화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희화화는 특히 거식과 거근의 화소와 관련이 있다. 선문대할망이 성기(자궁)로 사냥을 하여 고기를 잡아서 일년 반찬으로 해먹었다는 희화화를 통해 거인신의 원초적인 생산성을 드러냄으로써 여신이 가지는 필수적 조건인 생산신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구연자는 이야기의 중간에 선문대할망이 지형 창조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지적을 제주도를 육지와 바다로 떨어뜨려 섬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비판거리인데, 신의 창조 행위가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 지적을는 것은 선문대할망의 신성성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⁶⁹⁾

다른 지역의 ‘할머니’ 설화 역시 그러한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로 창조형 여신의 신화가 후대로 오면서 희화화된 할머니신이 가지고 있었던 친숙성이 커지고 신성성은 반비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창조형 여신이

67) 김현선은 창세신의 거신적 성격을 밝히면서 무속신화를 비롯한 구전설화의 거인적 면모가 대의, 대식, 배설, 거근 등의 네 가지 화소로 나타난다고 했다. 권태효는 이 네 가지 화소에 거구를 중요 화소로 첨가하였다. (권태효, 「巨人說話의 傳承樣相과 變異類型 研究」,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51. 김현선, 「본토지역의 창세신화」,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52).

68) 이 설화 속에서는 구연자가 속옷이 아니라 ‘허리’라고 하며 특정한 명칭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치마의 일종으로 여신 숭배 원형에서 여신들이 입고 있는 치마와 유사한 점을 보인다.

69) 심지어는 ‘할머니’ 설화는 신성성의 약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신적(惡神的) 기능을 담당하는 식으로 변모하게 된다.(권태효, 앞의 논문, pp.62-66. 강진욱,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제25집, 한국민속학회, 1993).

완수하지 못한 과업이 있기 때문이다.⁷⁰⁾ 이러한 추측으로 보아 선문대할망은 창조형 여신이었지만 후대에 여러 거인형 설화로 변모하게 되는 여신임을 알 수 있다.

70) 선문대할망에서는 제주도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지 않은 것이 그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명주로 허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여신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과업의 미완수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3.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여성성 상징

3.1. 길쌈과 옷

원래 옷을 만드는 것과 길쌈은 여성이 관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심리학적으로 길쌈은 ‘다른 두 요소의 분화 혹은 구분’을 뜻한다. 그리고 무의식에서 의식으로의 전환을 뜻하는데, 길쌈은 하나의 질서의 창조를 뜻한다. 우주를 길쌈하는 것은 신들의 영역이며,⁷¹⁾ 신화에 나타난 여신들은 길쌈과 물레를 통해 세계의 질서를 창조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국 여신들 역시 본업이 길쌈이라 할 만큼 여신들이 길쌈을 하는 모습이나 옷을 장만하는 모습을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성장하는 딸신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길쌈과 가장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은 자청비이다. 자청비는 다음과 같이 15세까지 3층의 누각에 3대의 베틀을 놓고 비단을 짜면서 성장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열다섯 십오세 나는 혜연 아버님이 상다락(上樓) 중다락 하다락(下樓) 별충당(別草堂)을 무어 놓고 상다락에 상(上)단클 중다락에 중(中)단클 하(下)다락에 공단클(貢緞機)에 비단클 걸어주난, 여름(夏)뜩에 민 상단클(上緞機)에 놓고 봄인 중단클에 놓고 동삼절(冬三節) 하단클(下緞機)에서 노는구나.⁷²⁾

그리고 문도령과 3년동안 수학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베틀에 앉아 베 짜기를 계속한다.

문도령을 펑풍(屏風) 안에 앉혀두고 저녁상(夕飯床)을 출려아전 이녁 손으로 들러단 혼 상 출려 저녁밥을 먹어간다. 혼 이불 혼 요 더꺼 잣베게 베와 편(便)히 주무십서 일러두고, 자청비는 방 뱃기 나와네 상다락(上樓)에 올라가고 공단(貢緞)클을 손놀리단 보난 초경(初更) 이경 삼경(三更)이 뉘어간다.⁷³⁾

자청비는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순종하고 효도하는 딸이기보다는 반항하고 불효하는 딸에 속한다. 부모의 노동을 대신해줄 종을 죽이고 살린 이상한 능력의 소유자이며 부모 몰래 남성과 결연하므로, 여성성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길쌈이 여성에게 하나의 부덕으로 여겨져서 그런지 베를 짜는 자청비의 모습에서는 자청비가 여성성이 강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 여성성은 자청비가 문도령이 있는 곳을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수남이 부탁한 옷을 지어줄 때도 느껴진다. 자신이 직접 지은 옷을 해준다는 것은 그 정도의 정성을 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순수 지은 옷은 지극한 정성을 의미한다.

금동쾌상(金銅櫃床) 내여놓고 미녕 토복 전빌(全疋)로 내여놓고 은꺄새(銀鋏)로 솜숨이 꺄 아가뎡 구쟁이 점뎡이 뎡글아네 정수남일 불린 입져놓고⁷⁴⁾

71) 길쌈에 대한 상징성 연구는 고혜경의 연구를 참고하였다.(고혜경,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한겨레출판, 2010, pp.25-40).

72)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319-320.

73) 위의 책, p.329.

74) 위의 책, p.335.

이처럼 자청비는 베를 잘 짜고 옷을 잘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옷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변신을 하기도 한다.

아버님에 앓다 바쳐두고 여입성(女衣服) 벗어 남입성(男服) 둘러 입어, 남즈행착 출려아전 타단 물 둘러타고⁷⁵⁾

자청비가 남장을 하는 것은 문도령과 글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정수남을 살리려고 서천꽃밭에 환생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이다. 남장을 통해 자청비는 일시적으로 남성성을 발휘하여 남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완수한다. 글공부나 황세곤간의 사위가 되는 것은 남성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장을 한 자청비는 자청도령으로 자청비의 아 니마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집을 나온 자청비는 갑자기 들리는 베 짜는 소리에 주모할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베 짜는 능력을 인정받아 옥황에 베를 짜주는 주모할망의 수양딸이 되기도 한다. 주모할망 역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문도령과 재회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주모할망은 하늘에 진상하는 베를 짜는 신이다. 그런 주모할망보다 베를 더 잘 짰다는 것은 자청비가 여신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이 짠 베를 그리움이라는 여성적 정서를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베를 짜는 행위가 가진 여성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즈청빈 비옥(翡翠) 그 뜰 양지에 주충 그 뜰 눈물을 연세지듯 지어가명 아바님 어머니 이별 하고 상단클(上鍛機)에 중단클을 이별하고 눈물로 드릴(橋) 노아 입단 입성(衣服)에 걸어설러 먼 문 뱃기 나아사고 혜(日) 가는 냥 밭 가는 냥 걸어간다.

가단보난 일락서산(日落西山) 혜는 지고 어둑어져 밤 유이(留倚)홀 곳이 엇어지니, 질 윽 (路邊)의 앓안 비새 7짜 울단보난 난디웃인 공단클(貢鍛機)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나는 덜 훗 아간 보난 주모땅 주모할망 공단(貢鍛) 짜는 소리라고나.

(중략)

주모할망 조왕간에 밤흐레 가분 새예 공단클(貢鍛機) 앓아 혼 새 두 새 서꺼가명 공단을 짜가는 게 할마님 손매보단 더군다나 좋아져,⁷⁶⁾

다음으로 당금애기는 아무도 없는 9중으로 대문이 닫힌 집 안에서 다음과 같이 수를 놓는 것을 업으로 한다. 당금애기 역시 어릴 때부터 수예를 하면서 성장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성이 강한 인물로 표현된다. 이는 실제 옛날 규수들의 미덕 중 하나가 수예였으며, 그 결과 이러한 수예 솜씨가 당금애기를 더욱 참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그 때야 세준 아기씨가, 저 부산으로 가면 세준아기씨라 하고 강원도로 가면 당금애기라 하는데, 당금애기씨가 그 때 후원 별당 안에서 공배 간에 수를 놓다 하니 난데없는 대문간에서 윽두소리가 들려 오고 범두소리가 들려 온다.⁷⁷⁾

75) 위의 책, p.345.

76) 위의 책, pp.350-351.

77) 최정여·서대석, 앞의 책, p.87.

뿐만 아니라 심청은 길쌈과 옷을 짓는 능력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심청에게 있어서는 옷을 잘 짓는 것이 여성으로서 부덕을 높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심봉사를 봉양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심청은 순종적이고 효도하는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된다. 게다가 원삼제복을 잘 손질하는 것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닮아서 예의범절이 뛰어났다는 평을 받는 것을 보아 심청이의 어머니 역시 이러한 길쌈과 옷을 짓는 능력을 가진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제는 아버지 공경(恭敬)한다
 온갖 품을 팔아
 아버지 공경 다하고 질삼도 삼고
 배도 짜주고 흥사 대사 가가주구 온갖
 떡도 빚어주고 채소(菜蔬)도 쳐주고
 원삼제복(圓衫祭服)도 잘만져내고 저검마를 닮아서 예절모절[禮儀凡節]이가 부전자전(父傳子傳)이다.⁷⁸⁾

성숙한 어머니신인 길대부인은 다음과 같이 딸의 이름을 적는 데 속옷을 쓴다. 손가락에 피를 내어 이름을 쓴 속옷은 바리데기가 오귀대왕과 길대부인의 딸임을 입증하는 도구가 된다. 길대부인에게는 딸을 버리는 아픔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행위가 바리데기에게는 정체성을 입증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때야 속적삼을 내야 무명지 손가락으로 이름으루 피를 내야 혈서를 쓴다 버렸다가 얻은 자식이라 버리데기 이름을 지어 가슴 속에다 여어 두고 그체서느 애기를 안고 방성통곡 울음을 울다 보니⁷⁹⁾

다음으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다음과 같이 옷을 바꿔 입고 여러 번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노일제대귀일의 딸, 여산부인 입은 입성(衣服) 벗겨 입고 남선비 앞의 들어가서
 “설운 낭군(郎君)님아, 노일제대귀일의 딸 행실(行實)이 꽤쌌흐근데 주청강 연못디 간 죽여두고 오랏수다.”

남선비가
 “하하, 그 년 잘 죽였저. 나 원수 가랏구나. 글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⁸⁰⁾

“설운 남인(男人)님아, 날 살리커건 홀로 요레 가당 보민 대로 노상(大路路上)에 맥을 써 앓앙 문복(問卜)을 허염실거메 문복이나 지어나 줍서.”

남선비가 먼문 뱃기 나아가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뒷담 넘어 소로(小路)로 ㄹ른질 잡아 아전 대로노상(大路路上) 둘러가고 맥을 썬 앓았더니, 남선비가 간 말을 흐뭇
 “문복(問卜)이나 지어줍서.”⁸¹⁾

78) 박경신, 앞의 책, pp.91.
 79) 최정여서대석, 앞의 책, pp.362-363.
 80)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40t4.
 81) 위의 책, p.406.

한 번은 여산부인의 옷을 바꾸어 입고 여산부인으로 변신하고, 또 여러 번 점쟁이로 변장하는데, 그 변신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 여산부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여산부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정체성이 한 가정의 어머니로 바뀌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과 만나면서 본인이 첩임을 처음 알게 되는데, 여산부인을 죽이고 그 옷을 입음으로써 남선비의 처와 일곱 아들의 어머니로 변신한 것이다. 그것은 여산부인이 지키던 가정의 질서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질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점쟁이로 변신한 것은 남선비를 속이기 위한 것으로 남선비는 그 변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의 어두움을 갖고 있다. 남선비의 눈이 어두움은 친아들을 죽이려할 정도로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가정을 수호하고 가족구성원을 보호해야할 주부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가족구성원인 아들들을 해치려고 하자 다른 인격을 나타내는 점쟁이로 변신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명월각시는 남편인 궁산이의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은 명월각시의 예지력을 발휘한 것이다. 궁산이는 원래 처음부터 가장으로서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인물은 아니다. 궁산이는 명월각시와 떨어지기 싫어서 일을 하지 않아 밥을 굶기는 가장이다. 그러나 명월각시는 궁산이에게 나무를 해오라며 자신의 화상을 그려주는 등 궁산이에게 생산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명월각시가 만든 옷 역시 궁산이가 그 옷을 이용해 섬에 떨어져도 혼자 살 수 있도록, 생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는 옷이다. 명월각시가 만든 옷은 여성의 일이었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이 혼합되어 명월각시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궁산이의 무능력을 보여준다.

소를자바포육을떼서// 맹글네서말니워서
 궁산이바디저고리에// 소음을만히두고
 명디꾸리한나바늘한쌈// 옷깃에너어주니
 (중략)
 궁산이가섬동에내려서// 먹을것이제양업서
 옷을뜨더보니/ 소고기포육이잇거늘
 그포육을다먹으니// 그뎌에는또먹을것없어
 명지꾸리 낙수줄을 맹그려고// 바늘로서낙실휘여
 고길낙가먹는구나⁸²⁾

게다가 명월각시가 만든 구슬옷은 신비한 힘이 있다. 입고 벗는 법이 따로 있어서 입는 법을 제대로 아는 궁산이를 백운중천에 떠오를 수 있게 하고, 입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옷이다.

구슬옷을내티면// 이웃을깃을잡아고들추어
 입어면거랭이래두// 내낭군이라하니
 거렁이들이모도// 입을나니못닙는다
 궁산이가고들추어// 깃을잡아입어노니
 배운둥턴에나뎛다가// 도루내려왔네⁸³⁾

82) 손진태, 앞의 책, p.146.

83) 위의 책, p.149.

황우양씨 부인 역시 다음과 같이 명월각시처럼 남편인 황우양씨의 의복과 연장을 마련한다. 특히 황우양씨의 경우에는 천하궁에 공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의복과 연장이 필요한데, 황우양씨 부인은 연장과 의복을 하늘에 소지를 올려 준비하는 등 황우양씨가 하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대산에대풀무,소산에소풀무,대독씨소독씨
대툭소툭,자귀떡통대떡,떡자민들어눅코
사철의복버선신발,모든범절다헌후에
서산나귀술질하야,반부담실너눅코⁸⁴⁾

그리고 앞서 말했듯 옷은 정체성을 상징하므로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 주부가 만든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부가 보호하는 가족구성원이라는 것을 뜻한다. 소진량은 그 옷을 뺏어 입고 남편인 체 하지만 현명한 황우양씨 부인은 땀내를 통해 남편이 아닌 것을 확인한다.

황우양씨허는말이,엇지하면죠평소릿가
옷박굽을하옵시다
황우양씨와소진량(沼津郎)이의복을밧구어입고
(중략)
우리대감님은엇그제가섯는데
이제올리만무허니,쌀이도라가시오
소진량이한참싱각하다가,입엇든속적삼버서
쥬길담넘어로던지며,이겉보고열어주시요
부인이적삼을집어보니,바누질은내숨씨나
쌈늬가달났스니,어서밧비돌아가소⁸⁵⁾

황우양씨 부인은 자신의 한삼 소매를 떼서 손가락의 피로 글씨를 써 위급한 상황을 남편에게 알린다. 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앞서 길대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급박하면 서도 마음이 아픈 상황임을 나타낸다. 황우양씨와 황우양씨 부인이 떠나간 집은 황폐해졌지만 주춧돌 밑에 놓은 이 소매에 쓴 편지 덕분에 황우양씨 부인과 황우양씨는 만날 수 있게 된다.

부인이입고잇든명주한삼소미씨여
음양지장가락을입으로씨물어서
류혈로글을쓰되
죽어서오시거든,황천으로만나보고
살어서오시거든,소진썰로오옵소서⁸⁶⁾

그리고 황우양씨 부인은 황우양씨가 없는 동안 다음과 같이 천하궁에서 애기누예를 받아

84) 아카마스 지조(赤松智松)·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앞의 책, p.133.

85) 위의 책, pp.135-136.

86) 위의 책, p.136.

실고치를 만들고, 베를 짜서 옷을 만드는 재주를 배운다.

부인은그동안에무슨지조를빚웠소
대감님써나가신후로,눈물로세월을보늬옵다
소지한장지여써서,턴하궁에올녓드니
이기누에한점시라
열흘밤뵈여잠지이고,섭헤다올녓드니
청식곳치 빅식곳치황식곳치달말이라
거린대압해놋코
한번잡어늬외치니,나그네명지것명지
두번잡아늬외치니,쥬인네명지속명지
선대자마흔대자나가지고
대감님일습한별지여놋코
동창문을열고보니
점심골이가왔다갓다하옵디다⁸⁷⁾

황우양씨가 칭찬할 정도로 매우 중한 재주를 배운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황우양씨 부인이 베를 짜는 능력으로 신직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녀는 성주신의 부인 자격으로서 지모신이 된 것이다. 베짜기는 성주신의 부인으로서 그녀가 갖추고 있는 하나의 능력인 것이다.

젊은 할머니신인 선문대할망에서는 옷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앞서 자청비가 부탁을 들어달라고 정수남의 옷을 만들어 주었듯 이번에는 선문대할망이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허리라는 치마의 일종을 만들어주면 목포로 연결되는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제안한다.

제주도에서, 속옷이 아니고 허리 허리만 당혀 주면은 목포로 가는 드릴 놔주겠다. 기연디 그걸 흐여 주질 못혀여서 드릴 못 놔고. 기여니 명지가 멧동이 드는지 알 게 뭐야 원, 워낙 커노니까. 기영흐난 못 놔쥬(놓았지).⁸⁸⁾

옛날부터 발견된 여신상, 비너스 상에는 입기 위한 치마가 아닌 보이기 위한 치마가 등장하며 이러한 치마는 여신이 가진 자궁의 생산성과 풍요를 상징한다.⁸⁹⁾ 선문대할망이 사람들에게 만들어달라고 한 것 역시 그러한 여신의 생산성을 나타내기 위한 치마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주가 모자라서 허리를 만들지 못했고 선문대할망은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놓지 않았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신은 큰 체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앞서 말했듯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을 만든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선문대할망이 입을 옷을 사람들이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신화 속에서 길쌈과 옷은 여성성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를 나타낸다.

87) 위의 책, p.140.

88) 현용준, 『韓國口碑文學大系 9-2 濟州道 濟州市 篇』, pp.712-713.

89) 치마가 가진 상징성에 대해서는 고혜경의 연구를 참고하였는데, 고혜경은 바버(『선사시대의 옷감』)의 연구를 근거로 삼았다. 여신들의 치마가 눈길을 모으는 곳은 여성의 성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여기서 성은 제한된 개념이 아니라 땅적인 비옥함과 삶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근원적 생명의 에너지에 가깝다.(고혜경,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pp.49-54).

첫째, 여성 고유의 행위이자 일종의 부덕이므로 이를 통해 순종적인 여성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정의 질서를 주도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길쌈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의 큰 부분이었으며 이 부분에서 능력을 가진 여성은 실생활에서도 생산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삶에서 중요한 의, 식, 주 셋 중에 하나인 옷은 가족의 옷을 담당하는 여성이 가정을 보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여성은 옷을 바꾸어 입음으로써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신한다. 옷을 만드는 능력 자체는 옛날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하던 일과 관련이 있다면 실제로 여성이 할 수 없는 일, 가정을 벗어나는 일은 남장을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또 여성이 가정을 수호하는 역할을 벗어나려 할 때 역시 본래의 정체성이 아닌 다른 인격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셋째, 옷을 만들어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또는 인간과 신 사이의 약속과 부탁의 징표가 된다. 여성이 직접 만든 옷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을 여성이 보호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사람이 지은 옷을 입음으로써 그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인데, 인간과 신 사이에서는 인간이 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간의 신의 옷 만들기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3.2 불과 솔

불과 솔이 있는 부엌은 여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곳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불은 화덕을 통해서 집안 전체에 온기를 주며, 솔은 불을 이용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특히 부엌이라는 공간과 솔은 조왕신이라는 전형적인 이미지로 인해 여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성장하는 딸신인 가문장아기는 집을 나와서 만난 마통이 삼형제의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이 정짓간이라도 좋다고 말한다. 정짓간, 즉 부엌은 사람이 잘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정짓간에서 머무르게 해달라는 것은 그 집의 불, 온기가 있는 곳에서 쉬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집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다.

“방이 옷건 정짓간이란 좋으메 흐를 밤만 유이(留依)하게 허여줍서.”⁹⁰⁾

또 가문장아기는 솔을 빌려 찹쌀로 밥을 한다. 할망과 하르방도 두 형제도 전에 이런 밥을 먹지 않았으며 밥을 먹지 않지만 막내 마통이는 맛있게 먹는다. 가난한 마통이 삼형제의 집은 쌀로 한 밥을 먹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부의 상징인 가문장아기가 들어와 쌀을 이용해 밥을 해먹는다는 사실을 처음 가르쳐준 것이다.

가문장아긴 츠나복솔 잘 일어두고 솟을 빌언 밥을 흐고
“문전(門前) 모른 공스 시명 주인(主人) 모른 나그네 잇소이까.”
밥을 거려 상 출려아전
(중략)

죽은 마통이안티 밥상을 들러가난 서로 성통명(姓通名)흐고 순간만씩 빙에기만씩 무룩무룩 거려 먹나.⁹¹⁾

90)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197-198.

성숙한 어머니신인 여산부인은 겨죽도 제대로 쑤지 못하는 첩 노일제대귀일의 딸과는 다르게 나주영산 은옥미로 밥을 맛있게 지을 수 있다. 눈이 어두워져 여산부인도 알아보지 못하던 남선비가 밥을 먹고는 예전엔 자신도 이런 밥을 먹었다며 운다. 밥은 집안의 주부에 의해 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만들어진단다. 술은 집안을 관리하는 주부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은 것이며, 가족구성원은 주부가 해주는 밥을 먹음으로써 주부의 보호를 받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남선비가 허락(許諾)하면, 여산부인이 정짓간을 들어사고 솥을 올안 보니, 체죽(糠粥)은 빻 짝 놓여시난 솥을 초편(初番) 이편 제삼편(第三番)을 다까놓고 나주영산(羅州靈山) 은영미(銀玉米)쌀을 놔네 저녁밥(夕飯)을 지어아진 남선비아필 가져가난 남선비가 췌술(初匙)를 들르 명 눈물을 다르룩기 흘립테다.⁹²⁾

여산부인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에 의해 주천강 연못에 빠져 죽게 된다. 나중에 아들들에 의해 환생꽃으로 되살아나는데, 다음과 같이 여산부인이 누웠던 자리의 흙을 모아서 일곱 형제가 시루를 만든다. 그리고 일곱 형제가 한 번씩 손바닥으로 짚은 것이 시루구멍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누웠던 흙을 모아 시루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흙은 그 자체가 대지의 여신의 상징으로, 그 흙으로 시루를 만들었으므로 이 시루 역시 술과 마찬가지로 조왕신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여산부인은 다음과 같은 아들 녹디생인의 말로 삼덕조왕으로 좌정하게 된다.

“어머님 누어난 자린털사 내불리야.”

흙(土)을 도리도리 모다놓고 오섯성제(六兄弟) 돌아가명 손주먹으로 혼 번씩 짚은 게 오섯 고망(六孔)이 터지고, 녹디생인 성식을 발딱 내명 뒤치기로 혼변을 짚은 게 상고망(上孔)이 터집테다. 그때에 내온 법으로 시릿고망 일곱을 서련흙테다.⁹³⁾

“어머님을 춘하추동(春夏秋冬) 스시절(四時節) 물에만 살젠 혼 몸인털사 아니 실립네까? 어머님이랑 흐를앗양 삼시번(三番) 더운 불을 초명 삼덕조왕으로 앗양 얻어먹기 서련흙서.”⁹⁴⁾

다음으로 과양생이 각시는 버무왕 아들 삼형제에게 식은 밥에 물 세 술을 주는데, 부엌 근처에서 이를 먹던 삼형제는 아홉 술을 나누어서 먹었더니 산도 넘을 듯하고 물도 넘을 듯하게 힘이 났다. 과양생이 각시가 좋은 마음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과양생이 각시의 음식은 삼형제에게는 힘이 나게 한 생명력을 주는 음식이 되었다. 과양생이 각시 또한 밥을 통해 식구를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 뜻데 과양생이각씨가 정짓간엘 들어가더니 개 먹단 박세기 식은 밥에 물 삼술을 허 연 내여주난 정짓무땡에서 삼성제가 식술씩 아홉술을 누누와 먹었더니 눈이 배롱허여지고 산도 넘고 저라, 물도 넘고저라 흐옵테다.⁹⁵⁾

91) 위의 책, pp.199-200.

92) 위의 책, p.402.

93) 위의 책, p.413.

94) 위의 책, pp.413-414.

강림이 큰부인은 강림이가 저승으로 무사히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상에 게 정성을 드린다. 나주영산 은옥미를 빻아서 시루떡을 만든 다음, 제일 첫 시루는 문전신에게, 둘째 시루는 조왕신에게 바쳐서 축원을 올리고, 셋째 시루는 강림이가 저승에 가서 먹을 수 있게 준비한다. 강림이 큰부인은 직접적으로 신으로서의 위력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직감적으로 문전신과 조왕신을 받들면 저승 가는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판단은 옳은 것이었고 그 결과 강림이는 저승에 무사히 다녀오게 된다.

강림의 큰부인은 그 날부떠 상(上) 고향에 들어가 나주영산(羅州靈山) 은영미(銀玉米)를 내어놓고 열음꺄치 구름꺄치 도고방애에 노안 능거놓고 물 버뜨려 쫄은 봉무니 꺄름(분) 뺏는 것이 가를도 봉모라지고 봉문 꺄름은 체로 치난 체 알(下)에 즘질긴 즘질아, 강남(江南)서 들어온 중시리(中甌) 앓다놓고 췌 징은 문전시리(門前甌餅) 둘췌 징은 조왕(寵王)시리 췌췌 징은 강림이 저승 가명 먹을 시리, 다 치어 놓고, 강림의 큰부인 연주단발(剪爪斷髮) 신영뽕무(身嬰白茄)해야 단단이복(單衣服) 게주심하고 삼덕조왕의 들어간 조왕할마님에 축원(祝願)을 드리웨

“강림이 저승가는 질이나 인도(引導)하여 주옵소서.”⁹⁶⁾

젊은 할머니신은 저승할망, 이승할망, 선문대할망이 해당되지만 그 외에 청태국마구할망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청태산마구할망, 청태국할마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할머니신들은 신격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이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선문대할망과 같이 예전에는 어떠한 신앙의 대상 내지는 신으로 숭앙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그 면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 할머니신은 주로 이웃집에 불을 얻으러 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문전본풀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태산마구할망이 남선비네 집에 불을 담으러 왔다가 남선비가 칼을 가는 이유를 듣고는 일곱 형제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친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일곱 형제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버지인 남선비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곱 형제를 보호해주는 것이 뒷집의 청태산마구할망인 것이다.

남선비가 은장두(銀粧刀)를 실금실금 곱암더니, 뒤집(後家)의 청태산마구할망 불 담으러 오랴다네

(중략)

그 말 들은 청태산할망은 혼겁이 난 먼 올레에 나사네, 스도전거털 브레여 보난 남선비아들 일곱성제가 시난,

“설운 아기덜아, 느네 집의 간 보난 느네 아바진 느네 일곱성제 얼 내젠 칼을 곱암서라.”⁹⁷⁾

체사본풀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태국마구할망이 뒷집에 사는 과양생이 각시에게 불을 얻으러 갔다가 삼색의 구슬을 발견해주는 역할을 한다.

흐쌀 시난 뒤집(後家)의 청태국마구할망 불 담으러 와시난 과양생이각시 말을 흐웨
“사랑방에 정동화리(靑桐火爐) 근영 볍서. 불이 신디 으신디.”

95) 위의 책, p.233.

96) 위의 책, pp.244-245.

97) 위의 책, p.408.

청태국마구할망 정동화리 근언 보난 불은 엇어지고 삼석(三色)백이 구슬(玉)만 오골오골
잇어지니

“과양생이 각시아, 불은 웃고 삼석백이 구슬만 시어지다.”⁹⁸⁾

또 청태국마구할망은 다음과 같이 구슬을 먹고 잉태한 과양생이 각시의 출산을 돕는다. 청태국마구할망은 과양생이 각시의 허리를 쓸어 아기가 나오게 하는데, 이는 마치 삼신할망이 행복시키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청태국마구할망을 삼신할망과 같은 신격이라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 될 수 있고, 집의 주부를 돕는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보면 좋을 듯하다.

흐를날은 과양생이각시 구들 너구석 팽팽 돌명 “아야 베여! 아야 베여!” 죽을 스경(死境)
일러가난 과양생이 청태국마구할망아피 간

“우리 집의 부인님이 죽을 스경 돼여시메 어서 오랑 보아 줍서.”

청태국할마님 드런 오란 과양생이각시 허릴 누리쓸어보난 아기 머린 불씨 돌린 구에문을
열려시니 “흐 맥을 씨라.” 흐 맥을 씨여 보난 아들이 솟아나고, 두 맥을 씨여 보난 셋아들
(次男)이 솟아나고, 식 맥을 씨연 보난 죽은아들(末男) 솟아나 흐를앗아 아들 식성제(三兄弟)
솟아나옴테다.⁹⁹⁾

청태국마구할망은 다음과 같이 체사본풀이에서 강림이의 조왕신으로 다시 한번 등장한다. 청태산 마구할망은 불에 그슬린 행주치마를 입고 강림이 앞을 지나가며 강림이에게 저승 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이때는 강림이 큰부인 집의 조왕신이라고 신격을 밝힌다.

강림이는 나문밖(南門外) 동산을 올라사니, 어느 게 저승가는 질(路)이멍 알 수 엇어, 나문
밖동산 앓아 비새ㄴ찌 울단보난 아니보져 앓을 본 게 청태산이 마구할망 불보뜨단 행기치메
둘러입고 아그랑에작테기 둘러짚어 강림의 앓을 허울허울 걸어감시난 강림이 생각흐웨

(중략)

“이 놈아, 저 놈아, 나를 모르겠느냐? 너 흐는 일은 패썹흐나 너의 큰부인 흐는 지국정성
(至極精誠)이 기특(奇特)허연 너 저승으로 가는 질(路) 인도흐져 오랴노라. 강림이야, 나는
너의 큰각씨집의 삼덕조왕할망이 돼여진다. 강림이야, 울로 요레 가당 보라. 이른으뜸(七十
八) 공거름질이 근당(近當)흐건 이른으뜸 공거름질에 앓아시민 망년간 노인(老人) 하르바님
이 너 눈앞의 근당흐건 아까ㄴ찌 인스(人事)를 드림시민 알 도레(道理) 이시리라.”¹⁰⁰⁾

과양생이 각시의 앞집에 살던 청태국마구할망과 강림이 큰부인의 조왕신인 청태산마구할
망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신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유사한 이름으로 등장할뿐더러 불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태국마구할망이라는 신격이 고유명사처럼 존재했음은 거의 확실하다
고 보아야 할 듯하다. 또 청태국마구할망의 신격은 조왕신으로 가정의 주부와 가족을 수호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신화 속에서 불과 솔은 여성성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를 나타낸다.

첫째, 솔으로 상징되는 부엌은 여성이 주관하는 여성의 영역이다. 삶에서 중요한 의, 식,
주 중에서 식과 주와 관련이 있는 것이 불과 솔이다. 부엌은 불이 있는 곳이며 솔은 여성이

98) 위의 책, pp.236-237.

99) 위의 책, pp.237-238.

100) 위의 책, pp.249-251.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밖에 없으며, 술과 시루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도 여신이다.

둘째, 불은 여성이 가정 또는 가족을 지키는 원리를 보여준다. 부엌을 주관하는 여성은 부엌에 있는 불을 통해서 가정을 지킨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지를 통하여 여성은 하늘에 기원하기도 하고, 화덕에 항상 불씨를 간직함으로써 추위나 배고픔 같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비한다.

셋째, 불을 얻으러 오는 할머니들은 조왕신의 상징으로 모든 여성과 그 가족을 원조하는 신이다. 특히 청태국마구할망은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신화에서 불을 얻으러 오는데, 불을 얻으러 오는 것은 불이 필요한 부엌과 관련이 있는 조왕신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여신이 가진 불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할머니신들은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호해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도 보호하는 여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3.3. 물과 꽃

물과 꽃의 이미지는 동양권에서는 매우 익숙한 상징이다. 한 손에 물병, 한 손에 꽃을 든 관음보살의 이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물과 꽃은 재생과 자애로움을 갖고 있는 듯하지만 우리 신화 속에서는 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미지로서의 물과 꽃도 찾을 수 있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성장하는 딸신인 가문장아기는 다음과 같이 절인잔치에서 만난 부모에게 감주를 들고 축원을 해 맹인이었던 부모의 눈을 뜨게 한다.

가문장아기가 청감주(淸甘酒) 든감줄 지리님님 비와 들고

“이 술 흐 잔 들읍서. 천년주(千年酒)우다 만년주(萬年酒)우다. 설운 어머님 아바님아, 나 가문장아기우다. 나 술 흐 잔 들읍서.”

“이! 어느 거 가문장아기!”

들렀단 술잔 탈랑 놓은 게 설운 아바님 설운 어머님 눈이 팔롱하게 붉아졌구나. 계명천지(開明天地)가 뒤었구나.¹⁰¹⁾

가문장아기가 부모에게 권한 감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약수의 상징이다. 사실 눈을 떴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문장아기를 인정함으로써 그녀를 쫓아냈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부터 눈을 떴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감주의 의미는 부모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약수라고 볼 수 있다.

바리데기도 다음과 같이 아버지 오귀대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서천서역의 약수를 구한다. 백일 기도를 드리고 얻게 된 거북병에다 약수를 받는데, 이 약수 역시 사람을 살리는 재생의 이미지를 가진 물이다.

석달 열흘 백일 기도를 드리다가 보니 거북 입이가 떨어지다보니 거북뺨(거북병)이가 나오는 구나 열록 열록 거북 뺨이를 거머 쥐고 방울 방울 몇 방울을 받는 열 방울을 받는다. 삼흔은 칠백이라 훌어지고 삼흔은 모을 적에 열 방울을 받으니 뺨이가 가득이 차는구나¹⁰²⁾

101)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203-204.

102) 최정여서대석, 앞의 책, p.384.

이러한 약수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심청이의 어머니가 하늘에서 약물을 내려 여러 맹인들이 눈을 뜨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심청이가 황후가 되어 맹인잔치에서 아버지를 만나자 하늘에서 옥진부인이 약물을 내려주는 것이다. 심청이의 정성이 하늘에 있는 옥진부인에게 전해졌고, 그 결과 내려온 약수로 인해 심봉사만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여러 봉사들이 함께 눈을 뜨는 것이 가능했다. 따라서 옥진부인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 역시 재생의 이미지의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저검마 하늘에 옥진부인이라
오색(五色)안개 약물[藥水]로 내뿜는데
여러 못봉사가 퍼뜩 퍼뜩 퍼뜩
눈을 뜨더니마는¹⁰³⁾

그러나 이와 다르게 원강아미에 나타나는 물은 희생의 상징이다. 다음과 같이 아들인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을 찾아가는 와중에 건넌 물은 원강아미가 흘린 눈물과 핏물이다.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이 간 곳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대로 원강아미는 첫 다짐을 받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짐을 받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아 그때 흘린 눈물과 핏물로 이뤄진 강을 할락궁이가 건넌 것이다. 이 물은 남성인 할락궁이에 대한 여성들의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눈물, 핏물 강을 건너는 아들 할락궁이의 모습은 자식이 자립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거치는 희생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물이 여성의 신체의 일부분인 눈물과 핏물로 나타남으로써 여성이 가지는 희생성을 극대화시킨다.

가다보난 독막립 친 물이 잇어저 그 물 넘어가고, 가다보단 준동 친 물이 션 그 물 넘어가고 가다보난 목(脛) 친 물이 잇어전 그 물 넘어가난 서천꽃밭(西天花田)이 근당(近當)혼다.

(중략)

“나 즈식(子息)이 분명흐구나. 나를 좇아올 때에 독막립(膝) 친 물이 었어나?”

“이십데다.”

“그것이 느네 어머님 초대김 받은 물이로다. 준동 친 무리 었어나?”

“이십데다.”

“그것이 느네 어머님 이(二)대김 받은 물이로다. 목 친 물 었어나?”

“이십데다.”

“그것이 느네 어머님 삼대김 받은 물이로다. 느네 어머님 원쉬(怨讐)를 가프커건 수레멜망 악심꽃(滅亡惡心花)을 내여 주커메 느네 어머님 원쉴 가프곡 도환생꽃(還生花)을 내여 주건 느네 어머님 살려오라.(중략)”¹⁰⁴⁾

또 여산부인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에 의해 물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물이 차갑고 음습한 죽음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보통 여성의 죽음은 여성을 탐낸 남성에게 의해 이루어진 것이 보통인데 여산부인은 같은 여성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에 의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그 악인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103) 박경신, 앞의 책, p.226.

104)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128-129.

“아이고, 설운 성님아, 오뉴월 한더위에 우릴 좇아오저 혼 게 언매나 고생을 흠데가? 읍서 우리 시원이 몸모욕(-沐浴)이나 허영 오랑 저녁밥(夕飯)이나 지어 먹어 놀기 어쩍네까?”
 참말로 안 여산부인은
 “어서 걸랑 그리 하자.”
 주천강(酒泉江) 연못(蓮池)디 몸모욕 ㄹ찌 가난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설운 성님아, 옷을 벗읍서. 등에 물이나 놔 드리저.”
 여산부인은 옷옷을 벗인 굽으나네 물 혼 좀 췌여와 미는 책 혼단 앞테레 자락 경밀어부니, 여산부인 감태(甘苔) ㄹ쁜 머리 만제중 허터놓고 주천강(酒泉江) 연못디 수중영장(水中靈葬) 뒤읍네다.¹⁰⁵⁾

젊은 할머니신인 저승할망과 이승할망에게도 물은 죽음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승할망은 생불꽃으로 인간세상에서 생명을 탄생시키지만, 저승할망은 인간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 저승할망은 죽음과 떼어 수 없는 관련이 있으며, 멩진국따님애기가 인간할망이 되고 동해용왕따님이 저승할망이 된 것 역시 그 죽음과 관련이 있다. 멩진국따님애기가 살던 육지는 이승이고 인간이 번영하는 삶의 세계이지만, 동해용왕따님이 건너 온 바다는 상대적으로 죽음의 세계를 의미한다.¹⁰⁶⁾

물은 이와 같이 크게 재생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로 나타나며 죽음과 관련하여 희생이라는 상징도 함께 나타난다. 꽃도 이와 마찬가지로 꽃에 대한 상징도 상반된 이중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성장하는 딸신인 자청비는 다음과 같이 서천꽃밭의 환생꽃으로 문도령을 살리고 멸망꽃으로 천자국의 변란을 평정한다.

즈청비는 알(下)엿 녀 서천꽃밭(西天花田)디 들어가 따시(又) 서천꽃밭 도환생꽃(還生花)을 타단 죽은 낭군 살려두고 나오더니,
 (중략)
 즈청비가 이 말 듣고 알엿 녀 서천꽃밭 수레멜망악심꽃을 거껴아진 천제국(天子國)나라에 들어간 보니, 아닐찌 세벤난이 일어나고 일만명의 제군스(諸軍士) 삼만명의 제군스가 칼을 받고 활을 받아 싸움싸움 허염시난 멜망꽃(滅亡花)을 동서(東西)레레 허졌더니 일만명의 제군스(諸軍士) 삼만명의 제군스가 건삼빳디 녹용삼 녹용삼빳디 건삼 쓰러지듯 동서(東西)레레 쓰러져 세벤난을 막아노니, 천제왕(天子王) 백제왕의서 땅 혼 착 물 혼 착 내어준다.¹⁰⁷⁾

물론 자청비의 입장에서는 환생꽃과 멸망꽃이 모두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만 천자국의 난을 평정할 때 사용한 멸망꽃은 자청비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재생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꽃은 아니다.

꽃이 재생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심청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심청이는 다음과 같이 인당수에 제물로 빠져 한번 죽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연꽃에 떨어져 환생한다. 인당수에 빠진 상태에서 죽은 어머니를 만났으니 실제로 인간에서의 생을 한번 끝내고 새로운

105) 위의 책, pp.403-404.
 106) 현용준은 삼신할망 신화가 <삶-이승-육지-승리-번영>과 <죽음-저승-바다-패배-쇠멸>의 2쌍의 대립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현용준, 『멩진국아기씨가 산육신(產育神)이 된 이유는』,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pp.48-49).
 107)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361.

생을 시작한 것이다. 심청이에게 나타나는 물의 이미지 역시 죽음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꽃의 이미지는 심청이가 연꽃 속에 떨어져 환생하므로 재생을 뜻한다. 동양권에서 연꽃이란 진흙 속에서도 맑고 고운 꽃을 피워내는 재생의 상징이다.

저복판에 연화(蓮花)봉이
저기 심청이 환상[還生]하는 꽃이다.
오기로 하나 뗏을 하나
저꽃을 해놔야 혼백(魂魄)이 들았는다고 합니다.
연화봉 속에다 저검마를 이 용왕국을 보내가주고 심소자를 여게다 여어서
그서인[船人]들 장사 해가져오는 그날로
그 물에다 띄우고 용녀(龍女)들이 용우[擁衛]하고 있으라 하는구나
(중략)
저게 저꽃이 웬꽃이냐?
심청이 빠지던 그자린데
심청이 혼백(魂魄)이 뗏는가~?
용국(龍國)에 꽃이 분명 하는가?¹⁰⁸⁾

뿐만 아니라 바리테기에서 나타나는 꽃의 이미지도 재생이다. 바리테기는 약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다부사리꽃을 얻어 아버지인 오귀대왕을 살린다.

오색동화 다부사리 사람 살리는 다부사리 꽃이가 있는데 그 꽃만을 꺾게 되며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하는구나. 땅 속에다가 뼈도 썩고 살도 썩고 몇십년이 가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하니 그 맘으루 안심을 하고 아들 삼형제를 놓기 시작한다.¹⁰⁹⁾

그즉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서 가지구 이 오색동화 꽃을 아무래도 가지고 아바질 살릴 도리밖에 없다 싶어서루 오색동화 꽃을 가슴에 다 여었던 가슴에 꽃을 내여 밖을 내다 보니 눈에 안개가 자욱하야 여러 수천명이 잠이 들어 자는구나
(중략)
가슴 속에 거북뎡이를 내여서루 방울 방울 일곱 방울을 찌꺼놓고 서루 아버지 입안에다가 시방울을 찌끼니
숨터지는 소리가 발 끝에서부터 시작하야 맥이 오기 시작한다.¹¹⁰⁾

성숙한 어머니신인 원강아미에게서 나타나는 꽃의 이미지는 자청비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음과 같이 원강아미는 죽어서 대나무밭에 묻혀 있는데 할락궁이가 환생꽃을 이용하여 어머니를 살린다.

머리 그찬 청대왓(靑竹田)디 데껴불고 준동 그찬 흑대왓(黑竹田)디 데껴두고 독막립(膝)
그찬 청새왓디 데껴시난 어머님 뼈를 도리도리 묻아놓고 도환생꽃을 노난 ‘아이 봄잠(春眠)
이라 오래도 잤저.’ 머리 글겨, 어머님이 살아온다.¹¹¹⁾

108) 박경신, 앞의 책, pp.215-218.

109) 최정여, 서대석, 앞의 책, pp.382-383.

110) 위의 책, pp.392-393.

111)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130-131.

이처럼 원강아미에게 나타나는 꽃의 이미지는 재생이지만, 아들인 할락공이가 자현장자와 그의 가족을 징치할 때 사용한 멸망약심꽃은 죽음의 이미지이다.

과양생이 각시에게 나타나는 꽃의 이미지는 역시 죽음과 재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이 과양생이 각시가 주천강 연못에 빨래를 하러 가자 삼색 꽃이 과양생이 각시를 따라온다. 과양생이 각시는 삼색 꽃을 따서 집으로 가져오지만 이 꽃은 과양생이 각시가 죽인 버무왕 삼형제의 환생으로 버무왕 삼형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생의 이미지이지만, 과양생이 각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의 복선이다. 나중에 이 꽃이 불타서 구슬이 되는데 그 구슬로 인해 낳은 아들 삼형제가 한 날 한 시에 죽는 비극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꽃이 아기를 잉태시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주술성을 갖게 되는 것은 꽃이 식물의 생식기관으로 꽃이 피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씨가 자라나 다시 꽃을 피우는 순환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¹¹²⁾ 이러한 순환 작용은 여성성의 원리와도 상통한다.

흐를(一日) 이틀 칠일이 지나가니, 거동(舉動)이나 보저 서대구덕 연서담 담아아전 주천강(酒泉江) 연내못(蓮花池)디 연서담 가고 보니 난디웃인 삼색백이 고장(花)이 앞의 오는 고장은 병실병실 웃는 고장(花), 가운데 오는 고장 비새 ㄴ찌 우는 고장, 메말짜이 오는 고장 꽃죽 ㄴ뜨 용심을 내는 고장(花). 과양생이각시,

“이 고장(花)아, 저 고장아 나신디 테운 고장이건 나 앞테레 어서 오라.”

물막개로 물을 앞테레 등기여가난 삼색(三色)백이 고장이 과양생이각시 앞테레 들어오난, 서담 바구리에 오독독 거꺼놓고

(중략)

과양생이각시가

“이 고장(花) 저 고장 곱기는 곱다마는 행실(行實)이 패쌌흔 소장이어.”¹¹³⁾

젊은 할머니신인 이승할망은 다음과 같이 석가여래와 석가모니의 딸로서 부모에게도 효성스럽고 깊은 물에 다리를 놓은 월천 공덕도 있고, 한쪽 손에는 번성꽃과 환생꽃을 거느린 것으로 나타난다. 이 번성꽃과 환생꽃을 거느렸기 때문에 삼신할망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보스천왕이 말을 흐뵈

“예, 인간이 이실 듯흐오리다. 아방국(父)은 서카여리(釋迦如來) 어멍국(母) 서카무니(釋迦牟尼)롭서 인간에 멩진국뜨님아가가 솟아나 탄생일(誕生日)을 보건데 멩인년(丙寅年) 멩인월 멩인일 멩인시 삼진(上辰) 정월(正月) 초사흘날 솟아나 부모에 효심흐고 일가방답(一家親戚) 화목(和睦)흐고 지픈 물에 다리(橋) 노아 월천(越川) 공덕(功德)흐고 흐착 손엔 번성꽃(繁盛花) 흐착 손엔 환생꽃(還生花) 거느려, 이 아기씨 생불왕(生佛王)으로 들여세우기 어찌 흠네까?”¹¹⁴⁾

삼신할망은 산모를 보호하고 아기를 무사히 탄생시키는 것을 업으로 삼기 때문에 재생을 뜻하는 꽃과 뿔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것은 삼신할망의 신격을 정하는 꽃피우기 경쟁에서도 드러난다. 이승할망과 저승할망의 신직을 결정하기 위해 옥황상제는 다음과 같이 꽃피우

112) 현용준은 꽃의 생식기관에 대해 말하면서 꽃의 주력(呪力) 모티프가 농경문화에서 발생했다고 추정한다.(현용준, 「꽃은 어째서 주술성을 띠는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pp.58-65.)

113)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235-236.

114) 위의 책, p.111.

기를 제안하고, 여기에서 시든 꽃을 피운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저승할망이, 번성한 꽃을 피운 멩진국따님애기는 인간할망이 되게 한다. 번성한 꽃은 풍요와 생산력의 상징인 것이다.

계모살았디 꽃씨를 드렸더니 고장(花) 번성하는 것이 동이용궁 따님애기 꽃은 보난 불리(根)도 웨불리(單根) 가지도 웨가지 송애(筍)도 웨송애(單筍) 금뉴울꽃 튀고 멩진국 꽃은 보난 불리는 웨불리요, 가지 송애 스만 오천 육백 가지 번성웨난 옥황상저이 꽃빈장을 가니, 옥황상저이 말을 하네

“동이용궁 꽃은 보난 금뉴울꽃이 되니 저승할망으로 드령사곡, 멩진국 꽃은 보난 번성꽃웨니 이승할망으로 들어사라.”¹¹⁵⁾

신화 속에서 물과 꽃은 여성성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물과 꽃은 죽음과 재생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다. 물과 꽃은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 이미지도 갖고 있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죽음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둘째, 물은 여성의 희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물이 여성 신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희생성은 극대화되며 여성의 희생으로 인해 남성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물이 여성이 죽는 장소로 죽음의 이미지가 나타날 때에는 여성이 불이나 꽃으로 인해 재생한다. 여성은 죽음을 겪고 불이나 꽃으로 재생한 뒤 더 왕성한 생산력을 갖게 되며 여신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 꽃과 불이 번성할수록 풍요와 생산성 역시 커짐을 알 수 있다.

3.4. 대식(大食)과 배설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한다는 것은 거신 설화와 관련하여 다산과 풍요와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¹¹⁶⁾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배설은 향문출산과 관련하여 창조적인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 향문출산이란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배설이라는 행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행위로 인식된다는 것이다.¹¹⁷⁾

성장하는 딸신인 바리테기는 서천서역에서 동수자를 만나 백일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다음과 같이 배가 고파서 많이 먹게 된다. 밥을 많이 먹고 난 뒤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결국 밤새도록 오줌을 누러 다니는데, 이때 남장한 바리테기를 여자로 의심한 동수자는 오줌갈기 내기를 제안한다. 오줌갈기 내기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남성성의 상징이다. 바리테기는 이 남성성을 건 내기에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

배 곱흔 차에 자꼬 마 밥을 퍼 먹다보니 밥 한 그릇 다 먹었데이 밥 한 그릇 다 먹고나니 물이 맥혀 전딜 수가 있나? 밤새도록 물 퍼 먹고 나니 오줌이 마려와 전딜 수가 있나 밤새도록 오줌 누다 보니 잠 한숨 못 자고 아침에 자고 나서루

아무래도 당신이 소변을 보는 것을 보니 여자가 불명(分明) 한데

(중략)

그러면 당신이 밤새도록 잠 한숨 안자고 오줌 누러 쫓아 다녀씨니까에 오줌 줄기가 어디 얼마나 신지 나하고 오줌 내기를 하자 하는구나

115) 위의 책, p.114.

116) 권태효, 앞의 논문,

117) 고희경,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pp.65-84.

동수자는 열두 담장 안에 밖에 서고 담장 안에는 베리데기가 서고 오줌을 누니 납작부러 양발 아래 다 흘러 버려 하나도 없고 동수자 오줌 줄기는 열두 담장안으로 휘떡 넘어간다 아무리 봐도 여자 불명하고 아무리 봐도 밑에 말씨도 여자요 얼굴 맵씨도 여자라.¹¹⁸⁾

그러나 자청비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다음과 같이 문도령은 한 날 한 시에 공부를 시작하여 한 방에 자면서도 삼천선비 중에 장원을 하는 자청비를 질투하여 오줌갈기기 내기를 제안한다.

“그리 말고 우리 오줌(尿) 굴길낙 허여 봄이 어찌겠느냐?”

“어서 걸랑 그리 하자.”

문도령이 찻짜이 굴기는 게 으쓱 축 반을 굴기난, 즈청도례는 예즈(女子)의 몸이라 어찌할 수 었어지고 미릇 왕대왓(王竹田)디 들어간 왕대 죽심(竹筍) 졸라단 바짓굴에 담아네 혼 맥을 썬 오줌을 내굴기난 열두 축 반을 나아간다. 문도령은 그 제주아올라 지고 보니 무엇이엔 할 수 웃고 황복(降服)을 허여가는구나.¹¹⁹⁾

이 내기에서 자청비는 왕대죽순을 이용한 지략으로 문도령을 이기게 된다. 앞서 바리데기의 경우에는 오줌갈기기 내기가 남성성의 증명으로 쓰인 것이었기에 바리데기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으나 자청비의 경우에는 남성성의 증명이 아닌 지략에 대한 증명이었기 때문에 자청비가 이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설은 남성성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여성성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젊은 할머니신인 선문대할망은 설문대하르방이 대변과 소변을 봐서 쫓아내린 산뿔과 노루를 잡는다. 놀라서 도망하는 산뿔과 노루를 할망의 음부로 잡아서 일년 반찬으로 먹는다는 데서는 선문대할망의 대식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구연자는 희화화되었다고 인식하여 말할 때 부끄러워하였지만, 이것은 오히려 구비문학적 성격이 잘 드러난 것으로 선문대할망의 원초적 거신의 면모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라 할 수도 있다. 선문대할망의 배설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특히 생산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다.

“당신이랑 한라산 꼭대기에 가서 대변 보명(보면서) 그것으로 낭(나무)을 막 패어 두드리 명(두드리면서) 오줌을 작작 굴집서(갈기십시오). 굴기면은 산뿔(멧돼지)이고 노루고 다 잡아 질 탱쥬(터이지요).”

아닌게 아니라, 이영했더니(이리했더니) 산뿔이고 노루고 막 도망가. 할망은 자빠전 누워 잇엇덴(있었다고). 비브람 피흐젠(피하려고) 흐단 그것들은 할망 그디(그곳, 陰部) 간 문딱(모두) 곱안(숨었어). 곱으니(숨으니) 이젠 그것들 잡아단(잡아다가) 혼 일년 반찬 흐연 먹엇덴(먹었다고) 흐여.¹²⁰⁾

신화 속에서 대식(大食)과 배설은 여성성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대식과 배설은 여신의 풍요와 다산의 생산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하는 행위는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여성의 대식과 배설을 통해 세계가 풍요로워짐을 의미한다.

둘째, 배설 중에서 오줌갈기기 내기는 남성성의 상징도 되지만 여성성의 상징도 된다. 오

118) 최정여서대석, 앞의 책, pp.380-381.

119)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325.

120) 현용준, 『韓國口碑文學大系 9-2 濟州道 濟州市 篇』, pp.713-714.

쭈글기 내기는 오줌발이 멀리 날아가는 것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통은 남성성의 상징이다. 그러나 여성의 지력을 증명하기 위한 때나 배설로 작용할 때는 오줌발이 세다는 것 역시 여성성의 상징으로 풍요와 생산성을 뜻한다.

3.5. 우주목과 탯줄

우주목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무를 뜻하며, 하늘과 인간이 소통하는 연결고리이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하늘, 땅, 지옥이라는 우주 삼계의 개념을 알고 있는 문화에서 “중심”은 삼계의 접합을 이루며 각 차원간의 분리가 가능한 동시에 이 세 영역간의 소통이 가능한 곳이며, 우주목이라는 것은 이 중심의 우주적인 상징이다.¹²¹⁾

탯줄은 어머니와 아기가 연결되는 것으로 큰 의미에서 어머니신과 인간이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신을 대지로 본다면 우주목 역시 탯줄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성장하는 딸신인 자청비는 다음과 같이 시녀에게 자신의 목욕한 물을 알려주는 대가로 노각성자부줄을 얻어 옥황으로 올라가게 된다. 노각성자부줄은 문도령이 옥황에 갈 때도 쓰였던 것으로 인간과 옥황을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설운 아기야, 나가 즈청비 돼여진다. 나 몸모욕허여난 물 거려주건 느네덜광 꺾 노각성
즈부줄로 옥황(玉皇)의 올려줄티야?”

“어서 걸랑 그림소서.”

즈청빈 몸모욕허여난 물 거려주고 궁네광 꺾 옥황(玉皇)일 올라사니 날이 정그라져 월
출동경(月出東嶺)에 보롬들 올라온다.¹²²⁾

당금애기는 다음과 같이 집에서 쫓겨나 돌함에 갇혀 아들 삼형제를 출산하는데, 이때 하늘에서 당금애기의 출산을 돕기 위해 선녀들이 내려오게 된다. 그때 선녀들은 하늘에서 인간세상으로 내려올 때 백학으로 변신하여 내려온다.

나날이 다달이 울음을 비치다가 하루 아침에는, 가만히 아침상을 받고 저 산천으로 처바
라보니 흠비 돌비가 박석으로 퍼붓고 하늘에 무지개 서기공명 하고 백학이 세마리 그 돌함
우으로 춤을 추구 내려 온다.¹²³⁾

하늘에서 선녀가 학으로 변신하여 내려오는 것은 당금애기의 경우만이 아니다. 바리데기의 경우에서도 다음과 같이 하늘의 선녀는 학을 타고 내려온다거나 선녀로 상징되는 청학백학이 춤을 추며 내려와서 버려진 바리데기를 돌보는 부분이 나타난다. 하늘의 사람인 선녀가 인간세상에 내려올 때 선녀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 백학과 청학으로 변신하여 내려오는 것은 우주목의 변형된 상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석달열흘 불공을 마치고 그 질로 돌아와야 그날 밤에 꿈을 꾸니 하늘에 서기가 반공한다.
천지일월이 명랑하드니마는 하늘에 올라 옥녀 선녀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¹²⁴⁾

121)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 2007, pp.46-47.

122)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354.

123) 최정여·서대석, 앞의 책, p.97.

124) 위의 책, p.357.

서천서역에서루 청학 백학 훨씬 한마리 날아오드니마는 머리말에 빙글빙글 돌더니마는 화
락같은 바람을 호통을 치도록 마련하야 안고 있는 애기를 땅에 떨어트려 버렸구나.

(중략)

하늘에 내려 올 적에는 청학 백학이 되었건마는 지하 땅에 내려와여 삼일만에 무슨 선녀
가 되어서 (생략)¹²⁵⁾

성숙한 어머니신인 황우양씨 부인은 다음과 같이 황우양씨가 천하궁에 목수 일을 하러 가
기 위해 필요한 연장을 소지를 하여 얻어낸다. 소지라는 것은 불과 우주목이 연결된 것으로
불로 인해서 태워져 올라가는 연기가 임시적으로 우주목의 역할을 한다. 집은 우주와 상응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집은 세계의 중심이며, 그 집 안에서도 중심이 되는 화덕, 불이
있는 부엌은 집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부엌을 주관하는 것은 여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에게 의해 발생한 연기가 우주목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¹²⁶⁾

이러한 우주목을 통해 천하궁에 황우양씨 부인의 바람이 전해졌고, 천하궁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연장을 내린 것이다.

황우양잠들여놋코,소지(燒紙)한장지여너여
턴하궁에치첫드니
가로쇠땃말,놋쇠땃말,편쇠땃말
열땃말을나리시고¹²⁷⁾

젊은 할머니신인 이승할망 역시 노각성자부줄을 통해서 옥황에 올라가고 인간에 내려올
때는 또 다시 노각성자부줄을 통해서만 내려온다.

맹진국뜨넘아기 노각성즈부줄로 옥황상저(玉皇上帝)에 올라가니, (중략)
어덧 영(令)이라, 거역할 수 없어, 옥황상저의 분부대로 생불왕으로 임명받아 할마님 행차
출리웨, 만산족도리에 남방스주(藍紡紗紬) 저구리 북방스주(白紡絲紬) 봉에마지 대홍대단(大
紅大緞) 훗단치메 물멧지 단속곳에 아방국(父) 도업(都邑)하던 스월(四月) 초과일날 인간으로
노각성즈부줄로 신느려 맹진국을 가다보니, (중략)
노각성즈부줄로 옥황상저에 올라가니 옥황상저이 말을 하웨¹²⁸⁾

심청의 경우에는 텃줄의 상징이 나타나는데 심청이 다음과 같이 아버지 심봉사의 공양
미 시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건구를 띄워 비는 장면이 나타난다. 건구는 금줄의 와음으로
금줄은 인줄이라고도 하는데 제를 지낼 때에 부정을 꺼리어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
록 쳐놓는 줄이다.¹²⁹⁾ 이 금줄은 출산과도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와 자식을 연결하기도 하지
만 끊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심처[沈淸]이 깜짝놀래도 아버지인데 놀랜티를 안하고 아부지요

125) 위의 책, pp.363-364.

126) 미르치아 엘리야데, 이재실 역, 앞의 책, pp.54-55.

127) 아카마스 지조(赤松智松)·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앞의 책, p.133.

128)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112-114.

129) 박경신, 앞의 책, pp.113-114. 각주 781번 참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데가 있으이 걱정하지 마옵소서
황토(黃土)흙을 모아가주고
이개가주고 칠성단(七星壇)을 모아놓고 건구를 떠와놓고
석달열흘 백일(百日)로
도우 물을 여다놓고¹³⁰⁾

신화 속에서 우주목과 텃줄은 주로 여성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이며, 우주목과 텃줄은 신의 세계인 하늘과 인간의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이다. 여성이 주관할 때 소지(연기)나 건구(새끼줄) 역시 이러한 우주목과 텃줄의 다른 표현이다.

130) 위의 책, pp.113-114.

4. 무속신화에 나타난 한국 여신의 여성성

4.1. 보편적 여성성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성성 상징은 여신 숭배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상징으로 본 길쌈과 옷, 불과 술, 물과 꽃, 대식(大食)과 배설, 우주목과 텃줄이라는 이미지는 융의 분석심리학이나 엘리아데의 상징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우리 무속신화에 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신화나 고대 민속사적으로도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각 상징들은 다음과 같은 여성의 성격을 나타낸다.

4.1.1 죽음과 재생을 통한 모성성의 발현

여성은 죽음과 재생을 통해서 모성성을 발현한다. 이 모성성을 통해 여성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정의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한다. 죽음과 재생은 여성에게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달이 기울었다가 다시 차는 것처럼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여성성의 원리를 보여준다. 3장에서 말한 물과 꽃 역시 죽음과 재생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물과 꽃을 통해 모성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성장하는 딸신의 죽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리데기는 다음과 같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서천서역으로 떠난다.

바리데기 서천 서역을 떠나는 구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서천 서역을 나는 간다
아부지요 잘 계시수요 어머니요 잘 계시소
이별하구야 떠나는 구나¹³¹⁾

심청이는 다음과 같이 아버지의 공양미 시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당수에 제물로 팔려간다.

아부지요 아부지요 여적껏 죽인거느
죄(罪)가 많지만은 아부지요
고양미[供養米] 삼백석(三百石)을 누가 줄까
인당수[印塘水] 깊은 물에
몸이 팔려 갑니다¹³²⁾

가문장아기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덕에 산다는 말 때문에 부모의 눈 밖에 나서 쫓겨나게 된다.

“이런 불효막심(不孝莫甚)헌 예즈식(女子息)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빨리 나고 가라.”
어멍(母) 눈에 굴리나고 아방(父) 눈에 시찌 나 입단 입성 거더설러 검은 암웨예 시꺼 놓고 먹을 군량(軍糧)을 시꺼놓고 나고 간다.¹³³⁾

131) 최정여, 서대석, 앞의 책, p.373.

132) 박경신, 앞의 책, pp.134-135.

자청비는 다음과 같이 죽었던 종을 되살려오자 부모의 눈 밖에 나서 쫓겨나게 된다.

“지집년이 남도 낫져. 사름을 죽이곡 살리곡 흐는 년 이런 년 놓았당 집안 망칠 년이로다.
어서 바빠 나고가라.”¹³⁴⁾

당금애기는 부모의 허락 없이 허신하여 임신하였기 때문에 그 별로 다음과 같이 돌함에
간히게 된다.

어머니요 잘 있시오 나는 가오 나는 가오.
이제 내가 떠나가면 죽어 올라는지 살어 올라는지
어느 시절에 돌아 올라는가.¹³⁵⁾

딸신의 죽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실질적 죽음이고 하나는 상징적 죽음
이다. 바리데기나 심청이는 서천서역에 가거나 용궁에 가는 등 이계(異界)로 이탈하면서 실
질적 죽음을 겪고, 감은장애기나 당금애기, 자청비는 가정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상징적 죽음을
겪는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을 겪은 뒤 재생을 하게 되며, 이러한 재생은 가정으로 돌아
가 부모와 화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장하는 딸신의 재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바리데기를 버렸지만 바리데기는 자신을 버린 아버
지마저 포용하는 여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바리데기는 다음과 같이 서천서역에서 불라국으로 아버지의 약을 구해서 돌아온다.

행성망틀 부여잡고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여
베리데기 약수 삼천리 약물 지러 왔나이다 아버지여
정신을 차려 소녀를 보옵소서¹³⁶⁾

심청이는 다음과 같이 연꽃에 담겨져 인간 세상에 환생한다.

저복판에 연화(蓮花)봉이
저기 심청이 환상[還生]하는 꽃이다.
(중략)
저게 저꽃이 웬꽃이나?
심청이 빠지던 그자린데
심청이 혼백(魂魄)이 떴는가~?
용국(龍國)에 꽃이 분명 하는가?¹³⁷⁾

가문장아기도 다음과 같이 아버지에게 술을 올려 눈을 뜨게 한다.

133)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195.

134) 위의 책, p.350.

135) 최정여, 서대석, 앞의 책, p.96.

136) 위의 책, p.391.

137) 박경신, 앞의 책, pp.215-218.

감은장아기가 청감주(淸甘酒) 든감주를 지리님님 비와 들고
 “이 술 혼 잔 들읍서. 천년주(千年酒)우다. 만년주(萬年酒)우다. 설운 어머니님 아바님아, 나
 감은장아기우다. 나 술 혼 잔 들읍서.”
 “이! 어느 거 감은장아기!”
 들렀단 술잔 탈랑 놓은 게 설운 아바님 설운 어머니님 눈이 팔롱하게 붉아졌구나. 계명천지
 (開明天地)가 됐었구나.¹³⁸⁾

자칭비는 다음과 같이 며느리가 되는 시험에 통과하여 문도령의 부모로부터 며느리로 인정받게 된다.

문도령 부모가 들려들어
 “이러흐 아끼씨가 어디 이시리야. 나 메누리 ㅁ심이 넉넉하다. 어떤 일로 치멧꼭조름은 버
 물었느냐?”¹³⁹⁾

당금애기는 다음과 같이 아들 삼형제를 낳고 나서 어머니에 의해 다시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랬는데, 어머니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았지 외손자를 삼형제를 봤지 얼마나 좋노.
 애야 당금아가 니 크던 후원 별당으로 가자. 내 구매밥을 먹여 주드라도 이 세것들 삼형
 제는 키워 줄 터이니 가자.¹⁴⁰⁾

딸신의 재생 역시 죽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재생, 상징적 재생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재생을 통해 딸신들은 부모에게 통합을 제시하며, 딸신들이 자신의 세계 또는 질서를 창조한 뒤 부모의 세계 또는 그 질서와 통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딸신의 성장은 성숙함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이 성숙함은 세계의 어머니로서의 포용성을 의미한다. 죽음은 딸신이 어머니의 성숙함을 가지기 위해 거쳐야 할 일종의 성년식(initiation)인 것이다.

성숙한 어머니신은 모성성과 희생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성숙한 어머니신인 길대부인, 당금애기 어머니, 심청이 어머니는 각각 딸이 훌륭한 신이 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역할을 하며, 강림이 큰부인, 원강아미, 명월각시, 황우양씨 부인은 무능력한 남신들과 그 남신들의 과업 완수를 위해 가정에서 분리되는 상징적인 죽음을 겪어야 했다. 가장 큰 수난을 당한 것은 원강아미인데, 원강아미는 임신하여 서천꽃밭에 가기 힘들자 자신을 종으로 팔아 원강도령의 노잣돈을 마련한다. 게다가 자현장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혼자 아들 할락궁이를 키운다. 특히 원강아미는 실질적 죽음을 통해서 남신인 아들 할락궁이가 아버지인 원강도령의 뒤를 이어 서천꽃밭의 꽃감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데, 우리 신화 속에서 가장 희생양적인 캐릭터라 할 수 있다.

성숙한 어머니신의 죽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길대부인은 다음과 같이 딸인 바리데기를 버림으로 인한 상징적 죽음을 겪는다. 당금애기

138)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203-204.

139) 위의 책, p.357.

140) 최정여서대석, 앞의 책, p.98.

의 어머니, 저승할망의 어머니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가마를 타구서 산중을 들어간다.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아이구우 내 딸이야
반짝반짝 눈 뜬 자식을 어디다가 버릴소냐
죽은 자식을 버리러 가두요 일천에 간장이 다 녹아지는데
반짝반짝 산 자식으루 어디 갖다가 버릴소냐¹⁴¹⁾

당금애기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딸인 당금애기가 돌함에 갇히게 되자 절규한다.

아들을 아홉을 낳고 딸을 못 낳서 원을 하다가
너를 낳아 가지고 돌함 속에다가 보낸단 말이야
가도 같이 가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
아이구 너를 못 보내네¹⁴²⁾

명월각시, 황우양씨 부인, 강림이 큰부인, 노일제대귀일의 딸, 과양생이 각시는 남편과 헤어지거나 가정이 분리되는 상징적 죽음을 겪는다. 이승왕의 아내인 김치원님 부인은 그 신성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적 죽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명월각시는 다음과 같이 궁산이가 배선비와의 내기장기에서 지는 바람에 궁산이와 헤어지게 된다.

내기장기두었는데// 아랫턱헤배선비가
생금한배섯구와서// 배선비가지면
생금한배나를주고// 내가지면마누래를
주마하여내가젓네// 마누래를일캣스니¹⁴³⁾

황우양씨 부인은 다음과 같이 소진랑에게 잡혀서 황우양씨와 헤어지게 된다.

네아모리난다긴다할지라도
바람가비라비상턴하며
두더지쌍속으로들어갈가
황우양씨첩의부인매게잡힌똥이되고
개게물닌닭이로다,할수업시똥을내여¹⁴⁴⁾

강림이 큰부인은 다음과 같이 강림이가 염라대왕을 잡으러 가게 되면서 강림이와 헤어지게 된다. 후에 강림이가 저승차사가 되는 바람에 이 상징적 죽음이 재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신 강림이 큰부인이 제사법을 마련하는데, 이것으로 보아 비교적 보조자적 입장으로 나타나는 강림이 큰부인 역시 다른 여신들과 같이 본메를 마련할 수 있는 신적인 면모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1) 위의 책, pp.361-362.

142) 위의 책, pp.96-97.

143) 손진태, 앞의 책, p.143.

144) 아카마스 지조(赤松智松)·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앞의 책, p.136.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다음과 같이 여산부인의 옷을 입음으로써 상징적인 죽음을 겪는다. 이전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존재하지 않으며 여산부인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후에 아들 칠형제에게 죽임을 당할 때는 실질적 죽음을 겪게 된다.

노일제대귀일의 딸, 여산부인 입은 입성(衣服) 벗겨 입고 남선비 앞의 들어가서
“설운 낭군(郎君)님아, 노일제대귀일의 딸 행실(行實)이 괘씸하군데 주청강 언뫼디 간 죽
여두고 오랴수다.”
남선비가
“하하, 그 년 잘 죽었저. 나 원수 가랴구나. 글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¹⁴⁵⁾

과양생이 각시는 아들 삼형제를 한 날 한 시에 잃으면서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으로 상징적 죽음을 겪게 된다. 또 남편인 과양생이가 아들 삼형제가 죽은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 과양생이 각시가 가정의 분리라는 상징적 죽음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적 죽음과 상징적 죽음을 모두 겪는 것은 심청이의 어머니와 원강아미, 여산부인이다.

심청이의 어머니는 직접적 죽음과 상징적 죽음을 함께 겪는다. 다음과 같은 직접적 죽음으로 인해 심청이의 어머니는 더 이상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생사 간(生死間)에 무삼 지[罪]고
심천아
내젓 망중[亡終] 마즈막으로 많이 목어라
인지~ 이젓 먹으면
언제 내젓을 또먹으리
젓으로 물레~ 빨리면서
널하야 황천(黃泉) 가는 몸이
눈물 겨워서 못가겠네
앞이젓어 어이갈고 뒤가젓어 어이갈고
갈길~이 막연(漠然)하고¹⁴⁶⁾

원강아미는 다음과 같이 남편과 서천서역으로 가다가 발병이 나서 가지 못하게 되자 장자의 집에 중으로 팔려 남편의 노잣돈을 구한다. 또 후에 아들인 할락궁이가 자현장자네 집에서 도망친 뒤 실질적 죽음까지 겪게 된다.

“남인(男人)님아 남인님아, 난 이제 더 걸을 수가 없이메 저 득 소리 나는 장제침(長者家)이 강 날 풀아 똥 가기 어찌흡네까?”¹⁴⁷⁾

여산부인은 다음과 같이 노일제대귀일의 딸에 의해 물에 빠져 죽게 되면서 실질적 죽음과 함께 상징적 죽음을 겪게 된다.

여산부인은 옷웃을 벗인 굵으나네 물 혼 줌 퀘여나 미는 책 흥단 앞테레 자락 경밀어부

145)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404.

146) 박경신, 앞의 책, pp.43-44.

147)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124.

니, 여산부인 감태(甘苔) ㄱ뜯 머리 만제중 허터놓고 주천강(酒泉江) 연못디 수중영장(水中靈葬) 뉘옵네다.¹⁴⁸⁾

성숙한 어머니신은 이러한 죽음을 겪은 뒤 스스로 살아나거나 가정이 통합되는 것으로 재생을 하게 된다. 강림이 큰부인, 원강아미, 명월각시, 황우양씨 부인은 돌아온 남편들로 인해 가정을 복구하게 된다. 특히 원강아미와 여산부인은 아들이 다부사리꽃을 이용해 실질적 죽음이 실질적 재생에 이르면서 더욱 그 희생성에 대한 보상을 강하게 나타낸다.

성숙한 어머니신의 재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길대부인은 딸 바리데기를 만나게 되어 상징적인 재생을 하게 된다.

아이고 내 딸이야 역역히 죽으라고 버린 자식 부모 만나 상봉할 줄 누가 알고 내 딸이야
어서 가고 바빠 가자 그제서는 딸의 손을 잡고 허둥지둥 달려 온다.¹⁴⁹⁾

당금애기의 어머니와 심청이의 어머니도 길대부인과 마찬가지로 딸과 상봉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저승할망의 어머니에게서는 이러한 재생을 볼 수 없는데, 그것은 딸인 동해용왕따님이 가정의 질서를 넘어서 위력이 큰 신, 저승할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원강아미는 다음과 같이 아들 할락궁이에 의해 환생꽃으로 살아난다.

머리 그찬 청대왓(靑竹田)디 데껴불고 존동 그찬 흑대왓(黑竹田)디 데껴두고 독막립(膝)
그찬 청새왓디 데껴시난 어머니뉘 뼈를 도리도리 모아놓고 도환생꽃을 노난
“아이, 봄잠(春眠)이라 오래도 잤저.” 머리 글겨, 어머니뉘 살아온다.¹⁵⁰⁾

여산부인 역시 다음과 같이 아들들에 의해 환생꽃으로 되살아난다. 그녀는 되살아난 뒤 아들들에 의해 조왕신으로 모셔지면서 실질적인 재생과 동시에 상징적인 재생을 하게 된다.

주천강 연못이 삼시에 좇아지난, 어머니뉘 죽은 뼈(骨)는 슬그랑 허여시니 뺨 도리도리 모다
난 도환생꽃(還生花)을 놓고 금풍채(金扇)로 후리니, 감태(甘苔) ㄱ뜯 머리 허봉치명
“아이고, 봄잠(春眠)이라 늦게 잤저.”¹⁵¹⁾

명월각시는 다음과 같이 궁산이와 만나게 되어 상징적인 재생을 하게 된다.

궁산이와명월각씨// 다시모혀살다가
죽은혼녕이일월마울로// 돌려노앗습네다¹⁵²⁾

황우양씨 부인도 다음과 같이 황우양씨와 만나게 되어 상징적인 재생을 하게 된다.

부인이이론말이,내무엇이라하옵씩까

148) 위의 책, pp.403-404.

149) 최정여, 서대석, 앞의 책, p.369.

150)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130-131.

151) 위의 책, p.413.

152) 손진태, 앞의 책, p.150.

못는말대답하야,나까지고싱하얏스나
그놈과오날까지상관업시피하야왔시오니
원슈갑고갓치가서,질거웁게사옵시다¹⁵³⁾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다음과 같이 측간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지만 아들들에 의해 측간신으로 모셔짐으로써 상징적인 재생을 하게 된다.

노일제대귀일이 똥 칩도(廁道)에 간 죽어시니, 칩도부인(廁道夫人)으로 마련하고, 그 때 내은 법으로 벤소(便所)왕 조왕(寵王)이 맞사민 좋지 못하는 법이라, 조왕윗거 벤소에 못가고 벤소엿 거 조왕의 못가는 법입네다.¹⁵⁴⁾

과양생이 각시는 결국 아들 삼형제가 되살아나기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아닌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임이 밝혀지면서 어머니로서의 상징적인 재생을 하지 못한다.

젊은 할머니신은 모성성을 드러내는데, 성장하는 딸신이나 성숙한 어머니신처럼 가정 내에서의 모성성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모성성을 보여준다. 저승할망과 이승할망은 신으로 좌정하기 이전에 본인이 살던 가정, 사회와 단절되어 상징적인 죽음을 겪게 되며, 인간 세상의 신으로 좌정하는 것으로 상징적인 재생을 겪는다.

젊은 할머니신의 죽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승할망과 이승할망의 죽음은 전에 살던 세계에서 분리되어 하늘나라인 옥황에 올라가는 것이다. 상징적인 죽음으로 인해 동해용궁따님과 맹진국따님애기는 각각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대상자료로 본 선문대할망에게서는 죽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선문대할망 설화에서는 선문대할망이 물장오리에 빠져죽었다는 부분이 나와있다. 이것은 선문대할망이 가진 창조신적 면모가 약화되면서 일부 설화에서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할머니신의 재생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재생이며 죽음과 동시에 재생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저승할망과 이승할망은 할망이라는 호칭을 갖게 되면서부터 실질적인 나이와 관계없이 할머니라 불리게 되며, 신성한 시간 속에서 영원불멸하게 된다. 선문대할망 역시 창조신적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생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성장하는 딸신과 성숙한 어머니신에 비해 죽음을 통한 희생성은 약화되어 있다. 그것은 이 신들이 가지는 전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승할망, 이승할망이 인간 세상 전체의 탄생과 죽음을 주관하거나 선문대할망처럼 국토를 형성하고 창조주적 면모를 보이는데, 이것은 대지가 어머니신 자체를 상징하듯이 원형적인 의미에서의 모성성을 가진 것이다. 삶과 죽음은 서로 순환하며 끊임없는 생산성을 상징하며, 국토 역시 변하기는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산성이다. 즉, 젊은 할머니신은 태초의 원초적 여신으로서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남신들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나타나는 청태국마구할망 역시 가정을 넘어선 범위에서 모성성을 발휘하므로 젊은 할머니신의 모성성은 그 차원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153) 아카마스 지조(赤松智松)·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앞의 책, p.139.

154)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414.

4.1.2 탐색과 획득을 통한 신성성의 발현

여성은 탐색과 획득을 통해서 신성성을 발현한다. 이 신성성을 통해 여신은 일반적인 영웅 내지는 문화영웅이 아닌 무속신화의 여신임을 입증한다. 탐색물과 획득물은 주로 재생을 의미하는 물과 꽃이다.

탐색과 획득을 하는 것은 성장하는 딸신이다. 그것은 탐색과 획득을 위한 시련이 딸신이 성숙한 어머니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죽음이 뜻한 성인식의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 성숙한 어머니신은 주로 탐색물과 획득물로 인해 재생된다.

성장하는 딸신의 탐색과 획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리데기는 다음과 같이 아버지를 살릴 약을 찾는다.

오색동화 꽃이 피어서구 그 꽃을 꺾어주되 흰 꽃은 어데 씨오 흰 꽃을 씨담게 되면 사람이 죽어 뼈도 없고 살도 없이며는 뼈두 생겨 나구 붉은 꽃을 씨담게 되면 피가 생겨나구 푸른 꽃을 씨담게되면

(중략)

만학천봉 같은 밑에루 내려다 보니 억바우야 덕바우야 거북이가 앉았구나 거북이 입정이 떨어져야 약물이 나오거날 거기 앉아서 석달 열흘 백일 기도를 드린다.¹⁵⁵⁾

심청이도 바리데기처럼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 죽음을 겪으며, 어머니가 약물을 내리게 해 아버지 심봉사를 비롯하여 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다.

가문장아기는 다음과 같이 막내 마통이와 결혼하여 그의 밭에서 많은 보물을 찾게 된다. 가문장아기는 부의 획득을 통해 자신의 덕에 잘 산다는 것을 입증했고, 그 부를 바탕으로 부모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파는 재산을 모두 사들였다가 나중에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 주었다.

죽은 마통이영 가고 보니, 큰마통이 마 파난딘 누릿누릿흔 거 잇영 “이거 무스건고” 웨여 보민 똥만 몰락몰락 웨여지고, 셋마통이 마 파는딘 “이거 무스건고” 허영 보민 주냉이 베염 중성만 탕천(撐天)흐고 죽은 마통이 마 파난 딴 자같이엔 좃어 데겨분 게 봉강 흑(土) 쓸영 보민 금(金)뎡이곡 봉강 보민 은(銀)뎡이곡 둥글둥글 나아온다. 감은 암췌(黑牝牛)에 시겨 오니 똥무쉬(牛馬) 나와 간다. 유기전답(鑰器田畝) 나와 간다. 가제 높은 와개집(瓦家) 풍경(風磬) 들고 와라치라 잘 살아 간다.¹⁵⁶⁾

자청비는 다음과 같이 환생꽃을 찾아서 정수남을 살린다. 이때 획득한 환생꽃은 후에 문도령을 살리고, 천자국의 난리를 평정할 때도 쓰인다.

모릿날 꿩는 날은 서천꽃밭(西天花田) 구경이나 시겨도렌 부인에게 소원흐난 서천꽃밭 들어가 구경을 허여 가명

“요건 살(肉) 오를 곳이우다. 그거 피(血) 오를 곳이우다. 저건 죽은 사름 도환승꽃(還生花)이우다.”

부인이 곧바로 다 꺼꺼아전 줌치에 담아놓고,¹⁵⁷⁾

155) 최정여, 서대석, 앞의 책, pp.383-384.

156)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201.

157) 위의 책, p.349.

당금애기는 다음과 같이 아들 삼형제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 박씨를 심어 스님을 찾는다.

너그 아버지 찾아주마 차마 너그 아버지 중아부지란 말을 못해 그렇다 하고 박씨를 세계를 내어 주며
이결 해 질 녘에 심귀 났다가 날 새거든 내다 봐라 날이 새거든 이 줄이 번을 터이니 줄대로 찾아가자.¹⁵⁸⁾

성숙한 어머니신에게는 탐색과 획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길대부인, 당금애기 어머니, 심청이 어머니는 보조적인 인물로서 스스로 탐색하거나 획득하지 않기 때문이며, 원강아미, 과양생이각시, 명월각시, 황우양씨 부인, 강림이 큰부인 역시 스스로 쟁취하기 보다는 남신의 보조자적 인물로 등장하여 주로 남신의 탐색과 획득을 돕는 역할을 한다.

성숙한 어머니신의 탐색과 획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길대부인은 다음과 같이 남편 오구대왕을 구할 약을 찾는다. 그러나 그 약을 자신이 구할 방법이 없자, 2차적으로 그 약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바리테기를 찾는다.

그때야 길대부인은 하룻날은 혈수 혈수 전혀 없어서루 옥녀무당을 찾아간다. 옥녀무당을 찾아 가서루 단수를 치니 이승에 약은 아무리 써도 약소리가 전혀 없이니 약수 삼천리 서천 서역국 약물을 써야 고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다 하는구나¹⁵⁹⁾

꼬박꼬박 잠이 들드니마는 꿈에 선물을 얻을 적에 백발노인이 꿈에 어연히 나타나서 대비마마 그대 부인은 깊은 잠이 들었오 내일 오시가 되어서루
그런데 그날 오시가 되어서루 딸 애기를 찾아간다.¹⁶⁰⁾

당금애기의 어머니와 저승할망의 어머니, 심청이의 어머니는 비교적 탐색과 획득이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당금애기의 어머니, 저승할망의 어머니, 심청의 어머니, 원강아미, 여산부인은 자식들이 무사히 죽음에서 재생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조하고 있으며 자식의 재생이 어머니신들의 획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명월각시는 다음과 같이 남편인 공산이를 만나기 위해 소진랑에게 절인잔치를 요구한다.

배선비가말하기를// 어더래서마누래가// 말을아니하오
내소원을푸러주소// 무슨소원이오
거랑잔체사흘만허여주면// 말을하겟누란다하니¹⁶¹⁾

황우양씨 부인, 강림이 큰부인, 짐치원님 부인 역시 명월각시와 마찬가지로 남편과의 회를 획득하려 하는데, 그러한 획득을 위해서 남편의 과업 성취를 원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과양생이 각시는 어머니라는 역할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나, 이들이 가진 악인적 면모 때문에 그 획득이 완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 나쁜 어머니

158) 최정여서대석, 앞의 책, p.104.

159) 위의 책, p.364.

160) 위의 책, p.367.

161) 손진태, 앞의 책, pp.147-148.

니가 있음으로 해서 분리되었던 다른 가정이 다시 회복되므로, 오히려 다른 신들의 탐색과 획득을 돕는 인물이라 볼 수도 있다.

젊은 할머니신인 저승할망, 이승할망, 선문대할망은 탐색하는 인물은 아니다. 저승할망과 이승할망은 이미 어떠한 운명에 의해 삼신할망이 되도록 정해졌으며, 특히 이승할망은 세상에 날 때 번성꽃을 지니고 난 존재로 나타나 있다. 선문대할망 역시 창조신의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탐색하고 획득하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4.1.3 탄생을 통한 전능성의 발현

여성은 탄생을 통해서 전능성을 발현한다. 이것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가정을 수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풍요, 다산, 치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무속신화 속의 여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탁월한 능력을 타고 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발현한다.

성장하는 딸신인 가문장아기, 당금애기, 자청비, 바리데기, 심청이는 불공을 들여 낳은 귀한 집안의 자식들로 가문장아기와 당금애기, 자청비는 풍요와 다산, 바리데기와 심청이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장하는 딸신의 탄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리데기는 다음과 같이 절에 백일동안 불공을 드려 낳은 귀한 자식이다.

석달 열흘 불공을 드리러 올라가는구나
돈도 올라가고 시주도 올라가고 초도 올라가고 미역도 올라가야 석달열흘 불공을 마치고
그 길로 돌아와야 그 날 밤에 꿈을 꾸니
하늘에 서기가 반공한다. 천지일월이 명랑하드니마는 하늘에 올라 옥녀선녀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¹⁶²⁾

심청이도 바리데기와 마찬가지로 정성을 들여서 낳은 자식이며, 자청비, 당금애기도 마찬가지이다. 불공을 드려서 낳은 귀한 자식이라는 것은 바리데기, 심청이, 자청비, 당금애기가 고귀한 혈통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가문장아기도 다음과 같이 많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아 탄생하게 된다. 그것은 가문장아기가 가진 복 때문이며, 가문장아기가 막내인 셋째 딸로 태어났다는 것도 그러한 귀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셋차 딸은 포태(胞胎)되니 아방(父) 몸에 흰 피 석 달 어명(母) 몸에 검은 피 석 달 아홉 달 열 달 준삭(準朔) 체와 예궁녀(女宮女) 애기 솟아나니 동벚 사름 모다들어 남박새기에 그를(粉)을 카단 백여 살려 주난 가문장아기로 일름 삼제 지와간다.¹⁶³⁾

성장하는 딸신의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리데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서기를 갖고 있어서 소나 말과 같은 짐승도 함부로 다치지 못하게 했으며, 탐색과 획득을 통해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능력을 갖게 된다.

162) 최정여·서대석, 앞의 책, p.357.

163)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193.

공드려 낳은 자식 딸이란 말이 웬 말이고
소 마구간에나 갖다 버려라 소짐승이나 잡아 먹게로
말 마구간에나 갖다 버려라 말짐승이나 잡아 먹게로
짐승 마구간에 갖다 놓니 애기한테서 서기가 반공하니 눈을 뜨지 못하고 그래서 아기를
다치지 못하는가 부드라¹⁶⁴⁾

아부지요 뼈 생겨나소 아부지요 살 생겨나소
아부지요 심줄 생기고 아부지요 일신이 생기소
삼혼은 칠백으나 칠백은 흩어지고 삼혼은아 모아주소
이리 씨담구 저리 씨 담고
아부지 만 일신이 생겨 나는구나
(중략)

가슴 속에 거북벵이를 내어서루 방울 방울 일곱 방울을 찌꺼니고 서루 아버지 입안에다가
시방울을 찌끼니
숨터지는 소리가 발 끝에서 부터 시작하여 맥이 오기 시작한다. 매기가 퍼떡 퍼떡 사방을
돌아 다니며 맥을 전할 적에 매기가 궁그렁궁 도는구나¹⁶⁵⁾

심청이는 다음과 같이 하늘을 감동시켜 아버지인 심봉사를 비롯하여 여러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안질의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저검마 하늘에 옥진부인이라
오색(五色)안개 약물[藥水]로 내뿜는데
여러 못봉사가
여게도 퍼떡 저게도 퍼떡
퍼떡 퍼떡 퍼떡 퍼떡 퍼떡 퍼떡
눈을 뜨더니마는¹⁶⁶⁾

가문장아기는 다음과 같이 부를 통제하고 앞일을 내다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은장아기 늦장아기 가문장아기 석성제(三兄弟)가 솟아나 혼두설이 뉘여가니, 츄츄이츄 발
복(發福) 뉘여 유기전답(鎡器田畝) 좋아지고 뭇뭇쉬 좋아지고 가계 높은 와개집(瓦家) 뉘 귀
예 풍경 돌아 천아거부(天下巨富)가 뉘여간다.¹⁶⁷⁾

“우린 응 잘 살아도 날 나아준 설운 어머님 설운 아바님 틀림없이 게와시(乞人)되연 이
올레 저 올레 돌암실거여 아바님 어머님이나 훗아 봐사 홀로고나. 게와시 잔치나 허여 보
저.”¹⁶⁸⁾

자청비는 다음과 같이 솟불로 달군 칼날 위를 건너는 능력뿐만 아니라 천자국의 난을 진
압하는 능력을 보인다.

164) 최정여서대석, 앞의 책, p.360.

165) 위의 책, pp.392-393.

166) 박경신, 앞의 책, pp.226-227.

167)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193-194.

168) 위의 책, p.202.

즈청빈 비옥(碧玉) ㄹ쁜 얼굴에 주층 ㄹ쁜 눈물을 연세지듯 허여가 발에 신었던 백녹(白綾)보선 벗어두고 꼭씨 ㄹ쁜 발로 칼쓴드리 우(上)의 올라산다. 앞데레 흐 자국 뒤으로 두 자국 열자국은 칼쓴드리 발아들어 뒤으로 열자국 발아날 때, 흐 발은 땅에 놓고 흐 발은 칼 쓴드리 우(上)의 이실적이 술착하게 발뒤치기가 베여지난 즈청비가 땅 알레레 느려사명 속치 멧깎으로 싹기 쓸었더니 속치메가 버물어지는구나.¹⁶⁹⁾

즈청비가 이 말 듣고 알엿 녀 서천꽃밭 수레멜망악심꽃을 거꺼야전 천제국(天子國)나라에 들어간 보니, 아닐씨 세벤난이 일어나고 일만명의 제군스(諸軍士) 삼만명의 제군스가 칼을 받고 활을 받아 싸움싸움 허염시난 멸망꽃(滅亡花)을 동서(東西)레레 허졌더니 일만명의 제군스(諸軍士) 삼만명의 제군스가 건삼밧디 녹용삼 녹용삼밧디 건삼 쓰러지듯 동서(東西)레레 쓰러져 세벤난을 막아노니,¹⁷⁰⁾

당금애기는 다음과 같이 아들 삼형제를 낳아서 키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 이게 우편 일인가 하고 돌함 속으로 들여다 보니께, 아들 삼태를 낳아 놓고 하늘 학이 세마리 내려와 한 애기 한마리씩, 한짝 날개는 깔고 한짝 날개는 덮고 한 애기 한마리씩 부처님 도술로 깔고 품고 있구나!¹⁷¹⁾

성숙한 어머니신인 길대부인, 당금애기 어머니, 심청이 어머니는 풍요와 다산,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강아미, 과양생이각시, 명월각시, 황우양씨 부인, 강림이 큰부인은 치유와 창조 능력도 가지고 있다. 무능력한 남신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치유의 능력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연장과 의복을 마련해주는 것에서는 창조의 능력이 보인다.

대부분의 성숙한 어머니신에게는 탄생이 나타나 있지 않다. 유일하게 그 탄생이 나타나 있는 것은 원강아미다. 원강아미는 다음과 같이 천하거부 임진국의 딸로 절에 불공을 들여 낳은 귀한 자식이다.

옛날 옛적 올라 집진국도 상시당(上試堂) 느려 임진국도 상시당, 집진국은 가난하고 서난 하게 살고 임진국은 천아거부(天下巨富)로 잘 살 때 집진국도 즈식이 웃고 임진국도 즈식이 어신, 영급(靈及)조은 동개남절당(東觀音寺堂)에 들어간 원불수륙(願佛水陸) 드린 즈식(子息)을 낳는 게, 집진국은 아들을 나고 임진국은 딸을 나난 집진국과 임진국이 양사돈(兩查頓)을 무어 구덕혼스를 지네테다.¹⁷²⁾

본풀이의 대상신일 경우 외에 많은 신이 어머니신에 해당되므로 능력이 특수하게 부각된 여신들은 많이 없지만, 대체로 길쌈과 옷을 짓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식을 잘 낳고 기르거나 밥을 잘 짓는거나 하는 집안일에 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산부인 역시 다음과 같이 밥을 잘 짓는 능력을 보이며, 남편에게 먼저 장사를 권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169) 위의 책, pp.356-357.

170) 위의 책, p.361.

171) 최정여서대석, 앞의 책, p.98.

172)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123.

흐를날은 여산부인이 말을 하네
 “우리가 응 허영은 즈식(子息)덜토 하지고 살 수가 엇이니 무곡장스(貿穀商)나 허여보기
 어쩍네까?”
 “어서 걸랑 그리 하라.”¹⁷³⁾

남선비가 허락(許諾)하난, 여산부인이 정짓간을 들어사고 솥을 올안 보니, 체죽(糠粥)은 보
 짝 놓어시난 솥을 초판(初番) 이편 제삼판(第三番)을 다까놓고 나주영산(羅州靈山) 은영미(銀
 玉米)쌀을 놔네 저녁밥(夕飯)을 지어야전 남선비아필 가져가난 남선비가 췌술(初匙)를 들르
 명 눈물을 다르룩기 흘립데다.¹⁷⁴⁾

명월각시도 다음과 같이 지략으로서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아랫너케배선비가날대리려오면
 우리집으큰종년을// 내티레를맨드러놋코
 낭군님이호롱하고// 나는한다리를절면
 눈에풍지하고헌치매넝고
 물을길너댕기면속아슬낭
 종년을개갈테니밥잡수시오¹⁷⁵⁾

황우양씨 부인도 다음과 같이 소지를 통해 남편의 연장과 의복을 마련해준다. 또 길쌈과
 옷을 짓는 능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황우양잠들여놋코,소지(燒紙)한장지여너여
 텃하궁에치컷드니
 가로쇠닷말,놋쇠닷말,편쇠닷말
 열닷말을나리시고
 (중략)
 사철의복버선신발,모든범절다헌후에
 서사나귀술질하야,반부담실너놋코¹⁷⁶⁾

부인은그동안에무슨지조를빅윗소
 대감님셔나가신후로,눈물로세월을보너옴다
 소지한장지여써서,텃하궁에올넛드니
 이기누에한접시라
 열흘밤백여잠지이고,섭혜다올넛드니
 청식곳치 빅식곳치황식곳치닷말이라
 거린대압해놋코
 한번잡어너외치니,나그네명지것명지
 두번잡아너외치니,쥬인네명지속명지
 선대자마흔대자나가지고
 대감님일습한벌지여놋코

173) 위의 책, p.399.

174) 위의 책, p.402.

175) 손진태, 앞의 책, p.144.

176) 아카마스 지조(赤松智松)·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앞의 책, p.133.

동창문을 열고보니
점심골이가왔다갔다하옵디다¹⁷⁷⁾

이처럼 여신들은 한국 여성들이 실제로 생활현장에서 하는 노동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부덕을 갖춘 긍정적인 인물로 나타나며 그러한 기초적인 능력을 극대화시켜 다산, 양육, 풍요,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다.

젊은 할머니신은 저승할망, 이승할망, 선문대할망이 있는데, 이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머니신으로서 풍요, 다산, 치유, 창조 이 모든 능력을 포괄하여 가지고 있다. 젊은 할머니신의 탄생은 그 시간이 앞서 말한 죽음과 재생과 동일하다. 이것은 이 할머니들이 초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의 시간을 넘어선 신화 속에서의 신성한 시간에 존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상징적인 탄생에서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며 구체적인 시간을 구분할 수가 없다.

우리 무속신화에서 여성은 모성성과 신성성, 전능성을 고루 가지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격은 모성성이다. 이 모성성은 희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 신화 속의 여신은 자애로운 모신성을 추구한다. 그 자애로움 속에는 사람들과의 친숙함과 조화를 지향하고, 모신성을 통해 모두를 보살피는 여신의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것이다. 한국 여신의 자기 역할은 주로 가정과 관련해서 이루어지지만 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무속신화 전반을 보았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전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신보다 여신의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융 분석심리학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어머니 여신 원형과 유사하다.

4.2. 특수한 여성성

본고에서는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성을 성장하는 딸신과 성숙한 어머니신, 젊은 할머니신 각자가 가진 여성성으로 보았다. 여기서는 딸신의 성장과 어머니신의 성숙함, 할머니신의 젊음이 앞서 살펴본 상징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2.1 성장하는 딸신의 반항과 순종

성장하는 딸신의 성장은 반항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반항은 불효를 뜻하는 것으로 반항하는 딸신에는 가문장아기, 자청비, 당금애기 등이 있으며 이들 딸은 추방되는 것으로 가정과 분리된다. 즉, 자립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심청, 바리데기는 가정과의 분리가 추방이 아닌 스스로 떠남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떠남은 효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반항하는 딸신은 길쌈과 옷 만들기에 능한 여성으로서의 부덕을 갖춘 인물이었으나 부모의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능력을 넘어 신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경우이다.

딸신의 성장이 '반항'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문장아기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랐으나 다음과 같이 하늘과 땅, 아버지와 어

177) 위의 책, p.140.

머니의 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덕에 먹고 산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부모로부터 추방당한다.

“죽은뜰아기 이레 오라. 가문장아기, 너는 누계 덕에 먹고 입고 행우발신(行爲發身)하느냐?”

가문장아기 말을 하네

“하늘님도 덕이웨다. 지애님(地下-)도 덕이웨다. 아바님도 덕이웨다. 어머니도 덕이웨다마는 나 베포롱 알에 선그릇 덕으로 먹고 입고 행우발신(行爲發身)하네다.”¹⁷⁸⁾

자칭비는 다음과 같이 사람을 죽였다가 살린 능력 때문에 부모로부터 추방당하게 된다.

정수남이 매방석(驚方席) ㄹ픈 머리 박박 긁으멍

“아이고 봄잠(春眠)이라 오래 잤수다.”

와들랭이 일어나

“상전(上典)님아 어서 물을 타옵소서.”

물무제밀 심어아전 하던 행실(行實)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간다.

즈칭비가 아바님, 어머니안티 들어가

“자식(子息)보다 아까운 중 살려왔읍네다.”¹⁷⁹⁾

당금애기는 다음과 같이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하여 임신했기 때문에 집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어머님요 어머님 그런기이 아니라 천하공사 지하공사 마을공사 글공사 가시고 없을 때에 어떤 한 시님이 와 갖고 하룻밤을 자고 간 것이라 내 배가 차츰 부르다 이라지요.

그러니 자식 난장한 어머님은 하마 당장 안다 이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를 다 하고 참 우리 성한 딸자식을 놔 두고 갔드이마는 여사 사람은 여기 별당 안에 못 들어 오는데 도사 시님이 와서 자고 갔구나. 혈사 혈 수 없이 삼신이 구어봤다.¹⁸⁰⁾

이 이유들은 여신들을 집에서 쫓겨나게 하는 이유가 되는 한편 여신으로서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게 한다. 여신들은 자립하여 자신의 능력이 신의 능력으로 발현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되어 거지가 되고 눈이 먼 부모를 봉양하고, 자칭비는 문도령을 살리고 천자국의 난리를 평정하여 세경신이 된다. 당금애기는 아들 삼형제를 낳아서 삼한 세준이 되게 키워서 삼신할머니가 된다. 이들 여신은 추방에 의해서 자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본인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현한다.

순종하는 딸신 역시 길쌈과 옷 만들기에 능한 여성으로 부덕을 갖춘 인물이다. 그리고 이 인물들은 어려서 부모와의 이별을 겪은 바가 있으며, 오히려 그런 이별로 인해 부모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여성이다.

딸신의 성장이 ‘순종’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리데기는 다음과 같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병이 들어서 걱정하자 약을 구하러 가는 데 망설임이 없다.

178)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194-195.

179) 위의 책, pp.349-350.

180) 최정여서대석, 앞의 책, p.95.

야야 그런 말을 말어라 심 찬 너의 언니들이 약물 지르러 못 가는데 나이 어린 네가 약물 지르러 보낸단 말이야

아부지요 그 말하지 마옵소서 자식의 도리로서 약물 질어 부모한테 봉양하옵는 것은 몇몇한 일이옵고 부모가 자식한테 몇몇이 효를 받는 것은 몇몇한 일이옵고

옛날에 괘가라는 사람도 찬수공경하려고 눈비 오는 날에 죽순을 얻어다가 부모 공경한 일도 있어옵고 옛날에 제정이는 아버지 옥에 갇혀 있는데 제 몸을 팔아 속죄한 일도 있어온데 옛 효자만치 못 할망정 불효 소녀 자식을 말리지나 마옵소서 약물 질러 가겠니더¹⁸¹⁾

심칭이는 다음과 같이 아버지 심봉사가 약속한 공양미 삼백석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게 된다.

답아 답아~ 우지 말어라
니가 울면 날이 샌다
날이 새면 내죽는다
이때여 심칭이는
아부지 자는데 절에 가서
아부지 손으로 김치 쥐며~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늘밤만 모시오면
언제 언제 모시겠노¹⁸²⁾

여신의 떠남은 여신이 가부장적 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자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칭이는 결국 아버지 심봉사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해주며, 바리데기 역시 죽은 아버지를 다부 사리꽃과 약수를 이용해 살리는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다.

4.2.2 성숙한 어머니신의 선함과 악함

어머니신의 성숙함은 선함과 악함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어머니신의 성숙함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착한 어머니신에는 길대부인, 당금애기의 어머니, 저승할망의 어머니, 심칭이의 어머니, 원강아미, 여산부인, 명월각시, 황우양씨 부인, 강림이 큰부인, 김치원님 부인이 있으며, 나쁜 어머니신에는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과양생이 각시가 있다.

착한 어머니신은 길쌈과 옷 만들기에 능하고, 불과 술을 이용해서 가족구성원을 보호하는 우호적인 역할을 한다. 또 물에 의해 희생되지만 불과 꽃에 의해 재생되며 생산력을 상징한다.

어머니신의 성숙함이 ‘선함’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길대부인은 다음과 같이 바리데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딸을 찾으러 간다.

베리데기 죽지 않고 살았다니 산천초목 새벽바람 찬바람에 어연이두 넘어간다.
어연이두 넘어간다.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살었느냐 죽었느냐

181) 위의 책, pp.369-370.

182) 박경신, 앞의 책, pp.128-129.

살았거들랑 대답을 하고 죽었거들랑 대답을 마리라
 내 딸이야 내 공주야 얼마만큼 찾는구나
 아무리 울어도 대답이 없구 울어봐두 대답이 없네
 얼어지며 자빠지며 돌에 채여 넘어져서 장강이가 깨여가지고 피가 나도 아픈 줄을 모르고
 까시에 치마가 걸려 찌져도 찌진 줄을 모르고¹⁸³⁾

당금애기의 어머니도 길대부인과 마찬가지로 딸이 살아있음을 알고는 그 딸을 집으로 데려온다. 즉, 이들 어머니신은 가정의 수호자로서 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정에 재편입된 딸들은 이 어머니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저승할망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딸을 죽이는 대신 인간세상에 내보내자고 남편을 설득하며, 딸에게는 인간세상에 가서 할 일을 알려준다. 이 때문에 저승할망은 인간세상에 와서 생불왕을 자처하게 되며, 결국 저승할망으로 좌정하게 된다.

“이 내 속으로 난 즈식을 어찌 이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으리까. 그리 말고 동이용궁 췌쳐 리 아들 불러당 무췌설갑을 맹글아그네 죽으랴 동이와당테레 띄와불미 어찌호오리까?”
 (중략)
 “인간의 생불왕이 엇이메 생불왕(生佛王)으로 들어상 얻어먹기 설연하라.”¹⁸⁴⁾

심청이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하늘의 선인이 된 뒤에도 딸 심청이를 잊지 못해 용궁에 간 심청이를 만난다.

심소자[沈小姐]~야 심소자
 니가 나를 모르리라
 칠안에 놔두고 갔던 너검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심청이 깜짝놀라 엄마인데 와르르 달라들어
 엄마 가슴속에 손이들어 간다¹⁸⁵⁾

여산부인은 다음과 같이 죽어서도 자식이 걱정되어 자식들의 꿈에 선몽(現夢)하는 모습을 보인다.

칼을 내여주니 설운 성님네 돌아아전 짚은 굴산 올라가단 시장에도 물러지고 혜남석 앞안
 졸단 보난 맹왕(冥王) 가던 어머니가 꿈에 선몽(現夢)을 드리웨
 “설운 아기덜아, 어서 바빠 눈을 텅 브레여 보라. 산중(山中)으로 노리(獐) 혼 머리가 느려
 오랍시니 그 노릴 심영 죽일 팔로 들림시민 알 도례(道理) 이시리라.”¹⁸⁶⁾

명월각시는 다음과 같이 배선비에게 간 뒤 궁산이를 그리워하다가 걸인잔치에서 거지가 된 궁산이를 만나는데, 궁산이만이 입고 벗는 법을 아는 구슬옷을 던지며 이 옷을 입는 사람이 내 낭군이라고 한다.

183) 최정여, 서대석, 앞의 책, p.367.
 184)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108-109.
 185) 박경신, 앞의 책, p.191.
 186)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409.

명월각씨가배선비네집에가서// 말도아니하고웃디도안흐니
(중략)
명월각씨가말하기를// 구슬옷을내티면
이웃을깃을잡아고들추어// 입어면거랭이래두
내낭군이러하니¹⁸⁷⁾

황우양씨 부인은 소진랑에게 끌려가게 되자 다음과 같이 소매자락에 피로써 글을 남겨 남편이 자신을 찾아올 수 있게 한다.

자세히펼쳐보니,유혈로글을씻스되
죽어서오시거든,황천으로만나보고
살어서오시거든,소진썰로보옵시다
만단설화하였거라¹⁸⁸⁾

뿐만 아니라 황우양씨 부인은 남편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연장과 의복을 준비해준다. 강림이 큰부인과 김치원님 부인도 황우양씨 부인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보조자로서 남편이 과업을 완수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놓는다.

길대부인, 당금애기의 어머니, 저승할망의 어머니, 심청이의 어머니는 각각 딸신들을 원조하는 역할을 한다. 원강아미, 여산부인, 명월각시, 황우양씨 부인, 강림이 큰부인, 김치원님 부인은 남편의 의복과 연장을 장만하고 남신들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나쁜 어머니신 역시 불과 술을 이용해서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 인물들은 보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가족구성원에게 비우호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나쁜 어머니신의 비우호적인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 된다.

어머니신의 성숙함이 ‘나쁨’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을 죽이고 아들 칠형제의 새어머니가 되지만 다음과 같이 아들 칠형제까지 죽이려고 한다.

“설운 낭군(郎君)님아, 경호건 일곱성제(七兄弟) 엘 내여주민, 나가 살아냥 흐 베(一腹)에 셋(三)씩 쇠번만 나민 성제(兄弟)가 더 부명 아홉성제(九兄弟)가 뻐 게 아니우까?”¹⁸⁹⁾

과양생이 각시는 다음과 같이 버무왕 삼형제의 재물을 탐내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를 죽인다.

맹(命)과 복(福)이 있어진덴 흐는 뉘름에 석 잔씩 아홉 잔을 눈누와 먹었더니 공복(空腹) 옛 술이라 술이 돛뵙 취허연 동(東)테레도 빗씩 서(西)테레도 빗씩, 쇠성제가 머리 간 디 발 가고 발 간디 머리 가, 동서(東西)테레 자빠져시단, 과양생이각씨가 상고팡에 둘러들인 삼년 묵은 춤지름을 비와단 정동화리(靑銅火爐) 은단숫불에 오송오송 즈꾸와단 웅귀(左耳)로 느단 귀(右耳)레 소로록 질어가난 쇠성제(三兄弟)가 얼음산(氷山) 구름 녹듯 어명(母) 아방(父)옛

187) 손진태, 앞의 책, pp.147-149.

188) 아카마스 지조(赤松智松)·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앞의 책, p.138.

189)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pp.407-408.

말도 못허언 죽음데다.

“아니 보던 제물(財物)이여. 아니 보던 물건이여!”¹⁹⁰⁾

이들 나쁜 어머니신의 비우호적인 행위는 아들 칠형제에게는 친어머니를 죽인 새어머니를 벌하고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며, 버무왕 삼형제에게는 짧은 명을 길게 이을 수 있는 재생의 계기가 된다.

4.2.3 짧은 할머니신의 원초적 여신상

할머니신의 젊음은 가정을 넘어서서 인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저승할망과 이승할망은 인간 세상에 나와서 인간의 출생과 죽음을 담당하고, 선문대할망은 국토의 창조신으로서 원초적인 여신의 모습을 보인다.

할머니신의 젊음이 끊임없는 생산성을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승할망과 이승할망은 서로 다른 여신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옥황상제마저도 둘의 얼굴은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앞서 이 두 여신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다른 인격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저승할망의 꽃은 시든꽃이므로 저승할망이 인간의 죽음을 담당하고 이승할망의 꽃은 번성꽃이므로 이승할망이 인간의 삶(탄생)을 담당한다. 그러나 시든꽃이든 번성꽃이든 두 할망 모두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꽃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의미하므로 할망들의 꽃피우기 내기는 인간을 얼마나 잘 살게 하는가에 대한 내기이다. 때문에 할망들의 생산성은 전 인류적이라 할 것이다.

선문대할망도 마찬가지로 국토를 생성할 정도로 넘치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도 다음과 같이 선문대하르방의 배고프다는 주문에 지혜와 큰 음부를 이용해 1년 동안 먹을 정도의 고기를 구하는 것에서도 그 끊임없는 생산성을 드러낸다.

아닌게아니라, 이영했더니(이리했더니) 산툃이고 노루고 막 도망가. 할망은 자빠전 누워 잇엇덴(있었다고). 비벼름 피흐젠(피하려고) 흐단 그것들은 할망 그디(그곳, 陰部) 간 문딱(모두) 곱안(숨었어). 곱으니(숨으니) 이젠 그것들 잡아단(잡아다가) 흐 일년 반찬 흐연 먹엇덴(먹었다고) 흐여.¹⁹¹⁾

짧은 할머니신은 인간의 삶과 국토의 생성에서 시작과 종말이라는 가장 위대한 일을 담당하는 신이다. 저승할망의 죽음은 이승할망의 삶(출생)이 있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선문대할망의 희화화될 정도로 넘치는 생산성은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신의 풍요로움과 생산성이다. 할머니신의 젊음은 지속적인 생명의 출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90) 위의 책, pp.234-235.

191) 현용준, 『韓國口碑文學大系 9-2 濟州道 濟州市 篇』, p.714.

5. 결론

본고는 12개의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20명의 여신들을 대상으로 그 여신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2장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20명의 여신들을 성장하는 딸신, 성숙한 어머니신과 젊은 할머니신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여신들을 분석하였다.

성장하는 딸신에는 가문장아기, 자청비, 당금애기, 심청, 바리데기가 해당되었다.

가문장아기는 전상신이다. 가문장아기는 자신이 타고난 복으로 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앞일을 예견하고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능력은 신화 속에서 노력할 줄 모르는 여섯 언니와 어리석은 부모의 무능력에 대비된다.

자청비는 세경신이다. 문도령과의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애정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난리를 평정하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지상의 곡식을 돌보는 영농의 신이 된다. 이러한 능력은 그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모와 문도령의 무능력함, 정수남의 어리석음과 대비된다.

당금애기는 삼신할머니이다. 스님에 의해 임신한 뒤 아홉 오라버니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아들 삼형제를 무사히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스님과 재회한 뒤 삼신할머니가 된다. 당금애기에 대한 아홉 오라버니들의 횡포는 여성에게 가해진 가부장제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었다.

심청은 개안(開眼)의 신이자 풍랑을 가라앉히는 신이다. 심청은 무능력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인당수에 제물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희생물로서 풍랑을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눈을 비롯하여 모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다. 이는 심청이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다.

바리데기는 무조신이다. 바리데기는 서천서역으로 가서 아버지를 살릴 약을 무사히 구해올 뿐만 아니라 아들 삼형제를 낳아 배우자인 동수자의 인간 귀양을 풀어주기도 한다. 바리데기는 자신 밖에 모르는 여섯 언니와 형부들, 그리고 자식을 버린 무정한 부모와 대비되는 윤리적 정당성을 가진다.

성숙한 어머니신에는 길대부인, 당금애기의 어머니, 저승할망의 어머니, 심청이의 어머니, 원강아미, 여산부인, 노일제대귀일의 딸, 과양생이 각시, 명월각시, 황우양씨 부인, 강림이 큰부인, 김치원님 부인이 해당된다.

길대부인은 신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하세계의 왕비이므로 여신으로 볼 수 있다. 길대부인은 남편의 명령에 의해 딸을 버리지만, 결국 딸을 되찾아오고 딸이 성숙한 여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당금애기의 어머니는 신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하공사를 갔다는 표현으로 보아 여신으로 볼 수 있다. 당금애기의 어머니는 아홉 아들이 딸을 죽이는 것을 만류하고 돌함에 가두는 것으로 벌을 대체시킨다. 결국 딸이 아들 삼형제를 낳고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다시 집으로 데려와 그 손자들을 무사히 기를 수 있도록 원조한다.

저승할망의 어머니는 신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서해용궁 어멍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용왕의 부인이므로 여신으로 볼 수 있다. 저승할망의 어머니는 불효한 딸을 죽이는 것을 만류하고 무죄석감에 가두어 인간 세계로 보내는 것으로 벌을 대체시킨다. 또 딸에게는 생불을 주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인간 세계에 나가 할 일을 가르쳐준다.

심청이의 어머니는 신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하늘의 선인이므로 여신으로 볼 수 있

다. 심청이의 어머니는 하늘의 선인이 된 뒤에도 심청이를 잊지 못해 인당수에 빠져 죽은 심청이를 만나러 용궁으로 간다. 뿐만 아니라 심청이가 심봉사를 만난 뒤에는 하늘에서 약물을 내려주어 심청이가 개안의 신이 되는 것을 원조한다.

원강아미는 신직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남편인 원강도령과 아들인 활락궁이가 모두 신이며 이들을 좌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신으로 볼 수 있다. 원강아미는 스스로 종이 되어 자신의 몸을 팔고, 또 죽음으로써 남편과 아들이 무사히 신직을 이수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여산부인은 조왕신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자신이 애지중지 길렀던 아들들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여산부인의 죽음은 아들들이 자립하여 신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측간의 신이다. 비록 여산부인을 죽게 하고 아들 일곱 형제를 죽이려 한 나쁜 새어머니이지만, 가족 모두가 신이 되었으므로 집에서 가장 부정하다 여겨지는 측간의 신이 된다.

과양생이의 각시는 신직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과양땅이라는 이름을 딴 지명이 있으므로 여신으로 볼 수 있다. 과양생이 각시는 재물을 빼앗기 위해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를 죽였으나 그 일 때문에 결국 자신의 아들 삼형제가 한 날 한 시에 죽는 아픔을 겪게 된다. 과양생이 각시의 살인이란 행위는 나쁘지만, 신화 속에서 보면 이 일로 인해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가 명을 이을 수 있었으며, 강림도령이 염라대왕을 잡으러 가게 되었다.

명월각시는 달의 신이다. 명월각시는 무능력한 남편이 아내를 곁고 내기에서 저서 배선비에게 끌려가지만 끝까지 정조를 지키고 궁산이와 다시 만나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한다. 궁산이만이 입을 수 있는 태양을 상징하는 구슬옷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입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궁산이와 다시 가정을 회복한다.

황우양씨 부인은 지신이다. 황우양씨 부인은 남편이 성주일을 할 수 있도록 연장과 의복을 마련해준다. 남편이 금기를 어기는 탓에 소진랑에게 끌려가지만 끝까지 정조를 지키고 황우양씨를 만나서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지신으로 좌정한다.

강림이 큰부인은 신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승차사인 강림이의 아내이며 강림이가 신으로 좌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능력한 남편에 비해 강림이 큰부인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 저승에 가는 법을 알아내고 소장을 준비하여 남편이 무사히 저승에 갔다올 수 있도록 원조하며, 강림이가 없는 3년 동안 정조를 지킨다.

김치원님 부인은 신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승을 다스리는 김치원님의 아내이며 과양생이 각시의 소장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김치원님의 아내는 특유의 지혜로 과양생이 각시가 낸 소장을 처리할 방법을 김치원님에게 가르쳐주었으며, 이로 인해 강림이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게 된다.

젊은 할머니신에는 저승할망과 이승할망, 선문대할망이 해당된다.

저승할망은 원래 동해용왕 따님애기이다. 부모에게 불효한 죄로 바다에서 쫓겨나 인간 세계로 오게 되며, 어머니의 말에 따라 인간의 생불왕이 되려 하지만 시든 꽃을 피우는 재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승할망으로 좌정하게 된다.

이승할망은 원래 멩진국 따님애기이다.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태어날 때 번성꽃을 거느리고 태어나 옥황상제로부터 직접 생불왕을 임명받았으며, 꽃피우기 내기에서도 번성꽃을 피워서 인간할망으로 좌정하게 된다.

선문대할망은 제주도를 창조한 국토의 창조신이다. 원래는 무속신화가 존재했으리라고 김

작되지만 지금은 설화로만 존재한다. 선문대할망은 거구였기 때문에 흠을 퍼서 나르다가 떨어진 흠이 제주도의 산과 오름이 되었다고 한다. 제주도가 육지와 이어지는 다리가 없는 것 역시 선문대할망의 요구를 사람들이 들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설명된다.

3장에서는 이러한 여신들이 어떠한 문화사적 상징을 통해서 여성성을 드러내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상징은 길쌈과 옷이다. 여신들은 길쌈을 하고 옷을 만드는데, 이것은 실제 삶에서도 여성 고유의 노동이다. 여성이 만든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여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옷을 바꾸어 입어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신하거나 남장을 함으로써 여성일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상징은 불과 솔이다. 집에서 불과 솔이 있는 곳은 여성이 주관하는 영역인 부엌이다. 여성은 불과 솔을 이용하여 가정 또는 가족을 지키는데, 소지를 통하여 하늘에 기원하기도 하고, 화덕에 항상 불씨를 간직함으로써 추위나 배고픔 같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비한다. 여성만이 이러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여성이 부엌 또는 솔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세 번째 상징은 물과 꽃이다. 물과 꽃은 동양에서 관음보살의 자애로운 이미지와 함께 재생의 의미로 이해된다. 물과 꽃은 각각 약수와 다부사리꽃으로 재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와 상반된 죽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물은 여성이 죽는 장소와 관련이 있으며, 꽃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멸망약심꽃으로 나타난다.

네 번째 상징은 대식(大食)과 배설이다. 대식과 배설이 왕성하다는 것은 여신의 풍요와 다산의 생산성을 의미한다. 항문출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는 배설을 통해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 남성성의 상징으로 쓰이는 오줌갈기기가 내기가 여성성의 상징으로 쓰일 때도 이러한 생산성을 의미하게 된다.

다섯 번째 상징은 우주목과 탯줄이다. 우주목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나무를 뜻하며, 하늘과 인간이 소통하는 연결고리이다. 또 탯줄은 어머니와 아기를 연결하는 것으로, 어머니를 대지로 보았을 때에는 우주목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신화 속에서 우주목과 탯줄은 여성의 주관 하에 연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능력이 이러한 소통과 연결, 그리고 조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장에서는 여신들이 어떠한 보편적 여성성과 특수한 여성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 무속신화 속의 여신들은 세 가지의 보편적 여성성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첫 번째, 죽음과 재생을 통해서 모성성을 발현한다. 여성은 상징적 혹은 실질적 죽음과 재생을 겪음으로 해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게 된다. 죽음과 재생은 여성의 희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지속되는 여성성을 상징한다. 특히 딸신의 경우는 죽음이 성년식의 일종으로 통과의례의 성격을 보인다.

두 번째, 탐색과 획득을 통해서 신성성을 발현한다. 탐색물과 획득물은 주로 재생을 의미하는 물과 꽃인데, 이를 통해 재생을 이루어내는 데에서 신성성이 발현된다. 딸신은 주로 탐색과 획득을 하고, 어머니신은 이를 통해서 재생되며, 할머니신은 이 자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따로 탐색과 획득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세 번째, 탄생을 통해서 주어진 전능성을 발현한다. 여신들은 불공을 드리거나 기도를 해서 낳은 귀한 자식이며,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성이 발휘하지 못하는 전능성을 발휘한다. 남성의 무능력에 비해 여성은 풍요, 다산, 치유, 창조의 전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를 보호한다.

여신들의 성격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모성성인데, 이는 여신숭배나 모계사회의 사유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모성성은 죽음이라는 희생과 함께, 재생이라는 생산과 함께 나타난다.

특수한 여성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첫 번째, 딸신의 성장은 반항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반항하는 딸신에는 가문장아기, 자청비, 당금애기가 있다. 부모에게 보통의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으로서의 능력을 보임으로 인해서 추방당하게 되며, 자립하여 신으로서 좌정하는 계기가 된다.

순종하는 딸신에는 바리데기, 심청이가 있다. 가부장제의 질서 속에서 부모의 권위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허가받은 떠남으로 인해 자립하고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두 번째, 어머니신의 성숙함은 선함과 악함이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착한 어머니신에는 길대부인, 당금애기의 어머니, 저승할망의 어머니, 심청이의 어머니, 원강아미, 여산부인, 명월각시, 황우양씨 부인, 강림이 큰부인, 김치원님 부인이 있다. 보통 자식이나 남편의 과업 완수를 원조하거나 남편과 이별한 상황 속에서 정조를 지키는 등 주변 인물들에게 우호적으로 대응하는 현모양처형 인물이다.

나쁜 어머니신에는 노일체대귀일의 딸과 과양생이 각시가 있다.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전처 소생이나 남의 아들을 죽이거나 죽이려고 하는 악인형 인물이지만 오히려 자식들이 가정에서 자립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세 번째, 할머니신의 젊음은 끊임없는 생산성을 나타낸다. 할머니신은 삶과 죽음, 국토의 창조와 같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주관한다. 할머니신의 젊음 역시니신의 젊넘어서서 사회를 음 역시젊넘어는 여신의 끊임없는 생산성을 나타낸다.

한국 여신들의 모성성과 신성성, 전능성이라는 보편적 성격과 성장과 성숙, 젊음이라는 특수한 성격은 가정의 수호자이자 사회의 유지자로서 여신들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 여성이 소유했던 보살핌과 양육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박경신, 『(인문과학연구총서 제2집)울산지방무가자료집(4권)』,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 서대석·박경신,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 30 서사무가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6.
- _____: _____,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 37 서사무가 I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아카마스 지조(赤松智松)·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上下)』, 동문선, 1991.
- 최정여·서대석, 『東海岸巫歌』, 형설출판사, 1974.
- 현용준, 『濟州道 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9-2 濟州道 濟州市 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단행본]

- A. 반 개념, 전경수 역, 『통과의례(개정판)』, 을유문화사, 1992.
- 그레엄 프레이저, 김상일 역, 『황금의 가지(상)』, 을유문화사, 1996.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 2007.
- 에리히 노이만, 박선화 역,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살림, 2009.
- 진 시노다 볼린, 이경미 역, 『우리 속에 있는 지혜의 여신들』, 또 하나의 문화, 2003.
- _____, 조주현·조명덕 역,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또 하나의 문화, 2003.
- 칼 G. 융 외, 이윤기 역,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2004.
- 강등학 외 8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개정판)』, 월인, 2005.
- 강은혜, 『한국설화문학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고혜경,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 한겨레출판, 2006.
- _____,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한겨레출판, 2010.
- 김열규,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일조각, 1978.
- _____, 『韓國의 神話』, 일조각, 1993.
- 김영균·김태은, 『땃줄코드』, 민속원, 2008.
- 김화경, 『세계 신화 속의 여성들』, 도원미디어, 2003.
- 서대석, 『韓國巫歌의 研究』, 문학사상사, 1980.
- _____,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 이나미, 『융,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 민음인, 2010.
-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이지영, 『韓國神話의 神格由來에 관한 研究』, 태학사, 1995.
- 이화어문학회, 『우리 문학의 여성성·남성성(고전문학편)』, 월인, 2001.
- 임재해,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민속원, 2006.
- 장덕순 외 3인, 『구비문학개설(한글개정판)』, 일조각, 2006.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홍대한, 『(한국무속학회학술총서 7)한국 서사무가 연구』, 민속원, 2002.

황폐강, 『(學術叢書 第1輯)韓國敍事文學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1977.

[논문]

강은혜, 「한국신화와 여성주의 문학론」, 『한국학논집』 제17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0.

강진옥, 「동아시아 농경 및 곡물기원 신화와 문화영웅의 존재양상」, 『구비문학연구』, 제 2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_____,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제25집, 한국민속학회, 1993.

_____,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구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_____,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변이양상과 여성적 경험의 재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_____, 「여성문학적 관점에서 본 구비문학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권태효, 「巨人說話의 傳承樣相과 變異類型 研究」,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 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김나영, 「장르별 심청이야기가 지니는 의미 지향」, 『판소리연구』 제19집, 판소리학회, 2005.

김대숙, 「女人發福 說話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김영경, 「巨人型說話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김윤아, 「女性 英雄 敍事の 原型性 研究」,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준기, 「당금애기 巫歌 研究」, 『고황문집』 제15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4.

김태곤, 「한국 무속신화의 유형」, 『고전문학연구』 제4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8.

김헌선, 「무속신화 연구의 방향과 과제」, 『인문과학』 제28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나경수, 「帝釋巫歌의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박기원, 「동해안 심청굿 사설 연구」, 강릉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박경신, 「한국 巫歌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5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박상란, 「여성 신화의 원리」, 『한국문학연구』 제19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7.

_____, 「여성 영웅의 일대기, 그 두 가지 양상」, 『동국논집』 제6집,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4.

신동훈,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오세정, 「무속신화의 희생양과 희생제의」, 『한국고전연구』 제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 윤교임, 「여성신화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경복, 「심청굿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이경하,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_____,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9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이수자, 「무속신화 <생불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여신상, 여성상」, 『이화어문논집』 제14집, 1996.
- _____,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_____,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제16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8.
-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정재, 「한국의 신화와 문화영웅」, 『한국문화인류학』 제34집, 한국문화인류학회, 2001.
- 이지영, 「무속신화에 나타난 救藥모티프의 서사화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 _____,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pp.199-233.
- 장영란, 「한국 신화 속의 여성의 주체의식과 모성 신화의 전복적 기제」, 『한국여성철학』 제8집, 한국여성철학회, 2007.
- _____, 「한국 여성-영웅 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 『한국여성철학』 제9집, 한국여성철학회, 2008.
- 전주희,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나는 증여 관계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조미선, 「서사무가의 여성상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좌혜경, 「자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제30집, 민속학회, 1998.
- 천혜숙, 「신화로 본 여계신성의 양상과 변모」, 『비교민속학』 제17집, 비교민속학회, 1999.
- 최원오, 「동아시아 무속영웅서사시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 『구비문학연구』 제9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 _____,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위계 전변과 윤리의 문제」, 『비교민속학』 제24집, 비교민속학회, 2003.

- 홍태한, 「한국 신모 신화의 변화상 연구」, 『인문학연구』 제3집,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 황루시, 「巫俗의 天神儀禮에 관한 研究」, 『비교민속학』 제22집, 비교민속학회, 2002.
-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제18집, 어문연구학회, 1988.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s of Goddess in the Korean Shaman Myths

Ah yong, Jeo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Ulsan

This paper deals with Korean shaman myths of woman in all aspects, *daesangsin* of *bonpuri* and several goddess who have primary functions also were studied. The twenty goddesses in the Korean shaman myths were examined by dividing in three categories; growing daughter goddess, mature mother goddess, and young grandmother goddess. It was classified according to life stages because Korean Gods have similar life styles as humans' life.

First, *Gameunjangagi*, *Jacheongbi*, *Danggeumaegi*, *Simcheong*, and *Baridegi* belong to the category of the growing daughter goddess. Next, in the category of mature mother goddess, there are *Gildaebuin*, *Danggeumaegiui Eomeoni*, *Jeoseunghalmangui Eomeoni*, *Simcheongiui Eomeoni*, *Wongangami*, *Yeosanbuin*, *Noiljedaegwiirui Ttal*, *Gwayangsengi Gaksi*, *Myeongwolgaksi*, *Hwanguyangssi Buin*, *Gangrimi Keunbuin*, and *Jimchiwonnim Buin*. Lastly, *Jeoseunghalmang*, *Iseunghalmang* and *Seonmundaehalmang* belong to the category of young grandmother goddess.

Theses goddesses exhibit the symbol of feminist through the symbols of cultural history which are weaving and clothes, fire and pots, water and flowers, gluttony and excretion, world tree and umbilical cord. Generally, the goddesses of Korea manifest the maternalinstinct maternal nature through death and regeneration, holiness through exploration and acquisition, and almighty nature through birth.

However, the goddesses have not only the general symbol of feminist, but also have other symbols of feminist according to the criterion of the classification. First, the growth of the daughter goddess is expressed as disobedience and obedience, and that means the process that the goddesses acquire the maturity by supporting herself. Next, the maturity of the mother goddesses is expressed as goodness and badness; as a result, that means the goddesses have the ability to support and take care of the members of family. Also, the youth of the grandmother goddesses means constant production and creation that are extended from a family to society.

These characteristics of Korean goddesses directly display the characters of mothers who are the guardians of family and supporters of society.

* Keyword : goddess, growth, maturity, youth, disobedience, obedience, goodness, badness, maternal nature, holiness, almighty nature.